

시로 읽는 성보순례
오랜 고요
국보 제44호 보림사삼층석탑 및 석등
통일시라시대 ▶2면

현대불교

악행은 과보를, 선행은 복을 받는다.
과보와 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
누가 대신 받는 것이 아니다.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5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93 호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여수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불교를 세계불자들에게 알리고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12일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등축제 점등식 모습.

세계불교연대…지구 살리자

2012 WFB 10개안 결의후 15일 폐막…30여국 75개 지부 참석

세계 불교인들이 한데 모여 우의를 다지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21세기 불교 생태환경사상과 수행'을 주제로 열린 제26차 WFB 한국대회의 폐막식이 6월 15일 전남 여수 디오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WFB 30여 개국 75개 지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린 WFB대회에서 세계 각국 불교지도자들은 세계와 종교 평화를 이룩하자는 'WFB 한국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세계불교지도자들은 세계평화와 종교간 대화, 문화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불교연대 강화하고, 오계를 지키고 참선을 생활화하자는 뜻을 모았다. 특히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불교적 신념과 정체성, 존재를 침해받는 지역의 대중을 위해 불교적 신념과 실천을 확산하고 지원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또 불교의 유·무형 가치와 불교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소개하자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세계 곳곳에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불교 청년 개발에 노력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폐회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아론 WFB 부회장의 대회답사, 대회기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WFB본부는 WFB한국대회 집행위원장 진옥 스님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이에 앞서 6월 12일 열린 WFB 총회에서는 WFB 상임집행이사 진월 스님이 WFB 부회장으로, 이치란 WFB 사무차장이 상임집행이사로, 김의정 WFB 부회장이 명예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한편 11일부터 16일까지 여수 일대에서 열린 WFB 한국대회에서는 학술포럼, 불교리더십 세미나, 세계고승수계대법회, 팔만대장경 공연, 창작 뮤지컬 '카르마의 노래' 공연, 화엄사 및 송광사 사찰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11면

WFB 한국선언문

△생태환경 보호 활동 실천 △세계·종교평화 위한 연대 강화 △오계 참선 생활화 △불교신념 침해 지역 지원 △인도주의 활동 진흥 △경제공동체 내 불교가르침 실천 △불교문화 대중홍보 △불교교육기관 진흥 △국제기구 협력 △지도자 및 청년 육성

한국불교계 유감 및 사과촉구

中, 티베트 참석 거부…WFB한국대회 보이콧

제26차 WFB대회에서 중국불교대표단(단장 석영)은 티베트망명정부대표단의 참석과 관련해 12일 개회식 참여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보이콧했다.

중국불교대표단이 문제 삼은 이는 티베트를 대표해 참가한 페마 친쵸르 WFB다람살라지부 지부이사(중앙 티베트 행정부 종교문화성 장관)등이다. 중국불교대표단은 12일 오전 열린 WFB총회에서 WFB다람살라지부 참석을 반대해 이들을 퇴장시켰다.

중국정부는 최근 달라이라마의 유럽순방을 두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미 중국불교계는 WFB한국대회 조직위원회가 초청한 삼동린포체의 10일 입국으로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다. 티베트 망명정부 초대 총리를 지내는 등 최고위 자문역을 하고 있는 삼동린포체는 달라이라마를 대신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불교계는 대회 직전 당초 100명 규모였던 대표단을 5명으로 축소했다.

급기야 WFB한국대회 개회식에서는 중국불교대표단이 개회식 입장을 거부하고 귀국하는 일이 벌어졌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조직위원회가 개회식장을 찾아온 삼동린포체를 비롯한 티베트 불교인사들은 모두 되돌려 보냈지만 중국대표단은 페마 친쵸르 WFB다람살라지부 이사의 개회식 참여를 문제삼았다. 총회에서 중국 측 입장을 수용한 WFB본부와 달리 개회식에서 WFB한국대회 조직위는 중국불교대표단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람살라지부는 WFB공식지부로 개회식 참석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불교대표단은 13일 오전 6시 부산을 통해 귀국했다.

집행위원장 진옥 스님은 "WFB다람살라 지부는 공식지부다. 중국 측 독단적 행동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계종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대표단의 일방적 철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청했다. 이어 조계종은 "중국불교계와 건전한 관계를 위해 관계를 재설정 할 것이며, 자유로운 티베트 불교활동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양국 불교관계의 변화를 알렸다.

여수=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법사찰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조계종, 비대위 구성 등 불교계 사과요구 강경 대응 천명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의 민간인, 종교계 불법 사찰 재조사 결과에 대해 불교계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14일 불교계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불교계 불법 사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는 첫 회의에서 불교계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종단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도적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조계종의 이런 반발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검찰이 6월 13일 발표한 민간인 사찰 조사결과가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제 불교계 사찰은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에게만 이뤄졌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 종무원들의 직접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계종 비대위는 민간인 불법사찰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 비대위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대해 불교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2천만 불자들의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린 검찰 수사는 '허즉생(許即生)'의 사기"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와 현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비대위는 △불법 사찰 자료 일체 공개 △검찰총장 및 수사 관계자 문책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 △이명박 정부 사죄와 의혹 당사자 공직 사퇴 △불법사찰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檢 "범죄행위 성립 안돼"
불교계 국정조사 등 요구
청와대까지 항의 행진도

일선 사찰의 대응도 이어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은 6월 15일 호법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청와대와 주간한국을 항의 방문했다. 가두행진 중에 경찰과 기관원들이 조계사 신도들의 길을 막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계사 호법위원회는 출범식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현 정권의 불교계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종단을 잠정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한 훼불사건"이라며 "최근 종단 각종 사태와 관련해 불법사찰을 주도해 온 정보기관이 개입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빠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계사 호법위원회는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정부와 정보기관, 사정기관에 대한 항의시위 조직 △정보기관원들의 사찰 출입 금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교계 단체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휴)는 '반인권적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은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교인들조차 이렇게 심각하게 감시해 왔다면, 대체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흉폭하게 사찰해 왔을지 짐작키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도 불교계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중앙신도회는 "이명박 정부는 불법사찰을 자행한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불법사찰에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천명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중앙종회, 쇄신 법안 다뤄지나

연석회의 개최… 임시회 운영안 논의

사찰예산회계법 등 상정 예정

조계종총무원이 6월 7일 천명한 쇄신 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쇄신 법안들이 오는 21일 열리는 중앙종회에서 상정·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중앙종회는 6월 11일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190차 중앙종회 임시회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종회의원 불징계권을 비롯해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대략적인 법안을 보고 받았으며, 관련 분과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후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대표 쇄신 법안인 사찰예산회계법과 사찰운영위원회법이 논의되며, 중앙종회법 개정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은 이미 지난 5월 23일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제안된 안건으로 삭제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된다. 또,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산중총회법, 교구종회법 개정안과 새롭게 임명된 호법부장 서리 정안 스님의 임명 동의, 재심호계위원회 선출의 건 등 인사 안건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종회는 준비 기간이 짧아 중앙종회가 처리 가능한 범주의 안건만을 다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쇄신 법안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중일 기자

893호 INDEX

종단 2
조계종 출가제도 공청회

종합 3
쇄신계획 각계 입장 잇달아
종교인 과세 워크숍
한마음선원 부의금 전액 회향

특별기획 12
통합종단50년 과제-자비실천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15
수행일화·다례재





'대한불교조계종 제1차 쇄신 계획'을 지지하며, 쇄신안의 실천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 운영, 산중공의 복원, 승단의 청정성 회복 등을 목표로 설정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차 쇄신 계획'은 전통적인 승가공동체의 운영 원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한 사찰 재정 공개, 사부대중 공동체 운영, 재가 전문종무원 양성 등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개혁안을 담고 있어 한국불교의 대혁신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이번 쇄신 계획이 결실을 맺어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쇄신안의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사찰에서 묵묵히 청정한 수행자의 길을 걷는 스님들은 봉은사의 자랑입니다. 도심포교의 현장에서 분주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매일 예불, 발우공양, 운력, 기도를 통해 산중사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 사찰 재정공개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매월 신도회 임원 전체가 참석하는 사찰확대회의에서 봉은사의 재정 현황이 보고되고 있으며, 최종 의결기구인 종무회의에 신도회 회장단은 물론 부장단까지 참석해 명실상부한 사부대중 사찰 공동운영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년고찰 봉은사의 전통을 기도와 법회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관음재일 봉행하는 관세음보살 42대원 성취 천수다라니기도에는 4천여 불자가 동참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계정혜 3학에 정통한 큰스님들을 모시고 선교율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봉은사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135-090 www.bongeunsa.org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44호 보림사삼층석탑 및 석등



오랜 고요

신 병 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가지산 기슭의 보림사
나란한 삼층석탑 앞에 섭니다
그만큼의 거리로
천년 세월 손 닿지 못한 그리움을 견디려
창 맑은 석등까지 밝혔습니다
낡아가며 빛나는 오랜 고요 곁에
생애보다 더 견뎌온 마음 하나 내려 놓습니다
덕분에 고요해졌습니다
신발 가지런히 벗어두고 살그머니 들어서면
말없이 문을 열어 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면 적멸궁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영겁의 고요로운 석꽃을 피웁니다
묵언발원의 끝말을 이으며
소리없이 씨익 웃는 고요의 그 말씀에
너도 나도 그렇게 고요해질 뿐입니다
한 세월이 뜨거워
잠시 머물렀다 떠난 그대도
지금쯤 햇살 고요한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신병은 시인은… 1989년 〈시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바람과 함께 풀잎이〉 등.

"출가, 기다리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조계종승진위, 출가제도 공청회… 다양한 제언 쏟아져

조계종 출가자 수의 감소와 노령화는 이미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2001년에는 4백 76명이었던 사미, 사미계 수지자 수는 2003년 3백 73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는 2백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상태로는 10년 뒤에는 한해 1백 명의 출가자도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가 6월 14일 개최한 '출가제도 개선과 출가자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는 이런 고민이 담겨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출가제도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대부분 기다리는 출가가 아닌 적극적인 출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의 주장한 고령자와 장애인 출가를 허용하는 특수출가제도 도입을 주장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는 맞춤형 출가제도다.

도입 이유에 대해 가섭 스님은 "출가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삶의 일부분이며, 나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출가자로 유입된다면 교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양이 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섭 스님이 제시한 고령자 특수 출가는 사회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불교발전에 회향할 수 있게 하는 재능 출가와 신심과 원력으로 사찰 관리와 종무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봉사 출가로 나뉜다. 연령 70세 이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입교는 특별갈마위원회가 담당하게 한다. 장애인 출가의 경우 장애의 판정 기준에 따라 입교 여부를 결정한다.

고령자 · 장애인 특수 출가 도입
군법당, 단기출가학교 등 활용
청소년 · 청년 포교 중요성 역설

이에 대해 가섭 스님은 "특수 출가자 지원 체계의 조속한 마련은 종단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회에서도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종단도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도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종단 출가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광 스님은 "고령 출가의 경우 현행 50세 이하로 규제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진정으로 발심 출가의 의지가 있다면 그 이상도 풀어야 한다"며 "장애인 출가 역시 수행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출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군법당을 통한 출가자 양성 △유소년 출가 유도위한 정책 수립 △출가 홍보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청소년 · 청년 계층 포교를 바탕으로 출가 정책을 주장했다. 스님은 △종립 중고등학교와 파라미타 청소년 대상 예비 출가자반 운영 △종단, 교구본사 차원 출가 학교 운영 △출가 상담소 개소 등을 제안했다.

성문 스님은 "종단의 출가 종책은 이제 적극적인 영입정책으로 가야한다"면서 "단순히 양적 인원을 늘리는자는 게 아닌 어떤 인재를 양성할 지에 대한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가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법이 이번 공청회 이후 바로 제시돼야 한다. 종단 중앙에서 구체적 성과를 보이고 이를 각 교구에 제안해야 한다"며 "출가자 영입 종책은 중앙과 교구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어떤 종무행정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종단 출가 종책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이 6월 14일 열린 출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청소년 포교를 통한 출가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고령자, 장애인 특수 출가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동행 '저소득층 가정에 희망의 빛 선사'

동국대 일산병원과 지정 의료기관 협약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이 6월 14일 동국대 일산병원(병원장 채석래)과 지정의료기관 협약식을 맺었다. 동행은 이번 협약으로 각막이식수술 및 안과질환 치료가 시급한 저소득 가정 환자의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

동국대 일산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스님, 동국대 일산병원 채석래 병원장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향후 동행은 수술비를 지원받을 저소득층 환자를 추천받는다. 일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환자는 각막이식수술비와 안과질환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02)737-9595, 농협 301-0105-5258-9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정혜숙 기자



아름다운 동행은 동국대 일산병원과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맺고 개안수술 환자돕기에 나선다.

도박, CCTV 설치 스님 3명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 기소, 1명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과 백양사 무공 스님에 대해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스님 5명은 약식기소했다. 도박에 참여하지 않은 스님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호텔 객실에 무단 침입해 폐쇄회로를 설치하고 도박장면을 촬영한 백양사 보연스님과 설치업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스님들의 도박이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고액이거나 불법, 상습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국민과 불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사법 처리 수위를 강하게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진각종 '진각오색등축제' 개최

6월 12~17일 하월곡동 일원서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각오색등축제'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일대에서 개최했다.

진각오색등축제에서는 황공작명왕, 경천사지10층석탑 등 전통등과 장엄등이 전시됐으며, 미니콘서트, 체험마당 및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마련되는 미니콘서트에서는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퓨전국악팀 프로젝트 락 등이 선보였다.

진각종 문화사회부는 "진각종은 5월에서 6월 두달동안 진각성존 회당종조 탄생절(5월 10일)과 부처님오신날(5월 28일), 창교절(6월 14일) 등 의미있는 날들이 많아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진각오색등축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 일붕 존자 탄신 98주년 및 열반 16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 ㊘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붕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하시고 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의 창종주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탄신 98주년 및 원적 16주기를 추모하는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일붕존자님과 인연이 있는 문도 및 종도,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시어 일붕존자님의 사상을 기리면서 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56년 6월

■ 다 음 ■

◎일 시 : 불기2556(2012)년 6월 28일
(음 5.9)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일붕사
◎연락 및 문의처
1. 총무원 : 전화(02)991-8175, 8904
전송(02)991-8176
2. 일붕사 : 전화(055)572-7777
◎홈페이지: http://ilbung.org

◎증 명 : 지공. 무찰.
◎고 문 : 청송. 원각. 송은. 수암. 혜천. 도기. 동봉
◎봉행위원장 : 경원 - 봉행부위원장 : 용운
◎지도위원장 : 혜운 ◎ 지 도 위 원 : 일명. 혜광. 경담. 자명.
◎기획위원장 : 법선 - 기획부위원장 : 고봉
◎집행위원장 : 법성 - 집행부위원장 : 호원
◎추진위원장 : 법해 - 추진부위원장 : 대각
◎진행위원장 : 덕봉 - 진행부위원장 : 지언
◎동원분과위원장 : 경담. 대성. 도정. 도혜. 제법. 자견. 지연. 청호. 현암. 혜일
◎총무분과위원장 : 석성 ◎재무분과위원장 : 동청 ◎의전분과위원장 : 도허
◎홍보분과위원장 : 만성 ◎봉사분과위원장 : 보해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일붕존자 탄신 98주년 및 열반 16주기 추모봉행위원회
주최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사회 · 총무원 주관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일붕사

쇄신불사, 불교계 단체 입장 연이어

종정 진제 스님, 교시 · 교구본사주지協 성명 발표

조계종총무원이 6월 7일 발표한 쇄신안에 대한 불교 각계의 입장이 연이어 발표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6월 12일 교시를 내리고 최근 도박 사태 등 현안을 넘어서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종단 쇄신에 진력할 것을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스님은 교시에서 "불교에 깊은 애정을 가진 국민들게 최근 심대한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실상은 승가(僧伽)의 수많은 수행자들이 불철주야 수행정진하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진제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쇄신에 전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우리 종단 중흥의 초석이 되는 쇄신불사는 원만히 성취돼야 한다"며 "종단 사부대중은 율장정신과 종헌종법으로 종단을 안정시키고 수호하고 각자 본분에서 수행과 교화에 정진해야 한다. 불석신명(不惜身命)하고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국민의 염원과 여망에 부응하고 높은 기대에 보답하는 불교가 되라"고 교시를 내렸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행)는 6월 14일 종단 쇄신계획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내놨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6월 7일 총무원장스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쇄신계획'이 종단과 한국불교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종정예하의 교시를 받들어 종단의 쇄신이라는 역사의 흐름에 전국 본말사의 모든 사부대중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단은 이번에 발표한 1차 쇄신계획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중앙종무기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쇄신계획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해인사(주지 선각)은 6월 10일 열린 참회 정진을 열고 수좌 원융 스님을 비롯해 사중 원로 정원, 중천, 관후, 주지 선각, 종회의원 심우, 경성, 대오 스님과 신도 등 해인사 사부대중 3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탄신상이 모셔져 있는 해인사 룸비니동산을 출발해 일주문에 이르는 1㎞ 구간을 7보 1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공동대표 만초 · 이수덕 · 성태용, 이하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6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단 쇄신계획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법보 종찰 해인사는 최근 도박사태로 인한 승풍 실추를 참회하기 위해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보 1배를 진행했다.

지도층, 쇄신안 동참 결의
해인사 7보 1배 참회 정진
연대회의 "진정성 보여라"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내용과 방향을 준비함에 많은 노력은 기울였지만 쇄신안이 선언적이여서 실천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의 모든 범계행위와 행정상의 비리들은 종단의 권력이 소수의 비구 중심으로 기득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순환적인 모순"이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점과 기득권의 해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한 방법이 종회의 재가자 참여이며 이는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종회 상하원 이원화해 재가자 참여 제도화 △범계행위 감찰기구에 사부대중 참여 명문화 △총무원장 연주암 반환 △쇄신계획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법 제시 △3개월 이내 직영, 특별분담금, 직할 사찰 재정 공개 등을 제안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는 '한국불교, 희망이 되겠습니다' 라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종단과 교구본사의 진정성 있는 개혁과 쇄신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종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자료집의 입장문을 통해 "조계종은 모든 것을 사회와 국민과 불자에게로 회향한다는 유신의 자세로 모든 것을 정비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故 대행 스님 부의금 전액 기부 회향

지난 5월 22일 원적에 든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끝낸 한마음선원은 추도 기간 중 들어온 조의금 전액을 각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회향했다.

한마음선원 문도회는 "작은 것 하나라도 두루 나누시려 했던 은사 스님의 뜻을 기려 조의금 전액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도회는 또한 대행 스님의 사리수습과 관련해 "스님께서 평소 사리 수습으로 또 하나의 상(相)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유지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5월 22~26일 대행 스님 장례기간 동안 접수된 조의금은 5억 여원으로 논산 군법당 건립 (2억원), 불교TV 영상포교(2억원), 안양시 청소년 인재육성장학재단(1억원) 기금으로 사용됐다.

혜수 스님(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솔 스님(한마음선원 대구지원장), 혜은 스님(한마음선원 자료실 담당)은 6월 15일 불교TV 본사를 방문해 성우 스님(불교TV 회장)에게 영상포교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성우 스님은 "대행 스님이 입적해 얼마나 상심이 큰지 잘 안다. 그런데도 영상포교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줘 정말 감사하다"며 "그동안 대행 스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불교TV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혜수 스님은 "그동안 불교TV와 함께 은사 스님의 영상법문을 상영하는 등 많은 일을 같이 했기에 대중들과 마음을 모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포교를 위한 영상물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5월 28일 주지 혜원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0여 명은 대행 스님의 초재를 봉행하고 스님을 추모했다. 대행 스님의 49재는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사리는 유지대로 수습 않기로
49재 조문비 모두 기부 결정

△4재=6월 18일 △5재=6월 25일 △6재=7월 2일 정오에 열리며 49재는 7월 9일에 봉행된다.

한마음선원 문도회는 "은사 스님은 늘 생활불교를 주창하시며 고통 받는 생명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셨다"며 "저희 문도회는 스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정진과 보살행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49재 추모 기간이 끝난 후 그동안의 조의금 역시 여러 불교 기관에 후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혜수 스님(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 왼쪽)은 6월 15일 불교TV 본사를 방문해 성우 스님(불교TV 회장)에게 영상포교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종교인 과세 "재정 투명화 가져와"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 실현' 워크숍

대형 교회와 사찰이 부를 축적하고 일부 성직자들의 호화생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12일 만해 NGO교육센터에서 열린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가 주최한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 실현' 세미나는 이 시대 종교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대표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과 실태'를 최호윤 회계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가 '종교인 과세의 법적 근거와 실현가능성'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종교별 성직자 노후복지를 중심으로 발제한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들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법응 스님은 "종교가 스스로 재정을 투명화게 운용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종교계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종교인 네트워크는 6월 12일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열고 종교인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지리산 천은사 문화재관람료는 합법"

조계종문화재사찰위, 입장 발표… 즉각 항소

엄연한 사찰지… 정부 대책 요구

최근 지리산 천은사 경내 지방도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결한 데 대해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종삼, 이하 문화재사찰위)은 6월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판결은 문화재보호법 입법 취지와 지리산 관광도로의 개설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문화재사찰위는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와 제74조에 의거한 합법적 조치"라며 "천은사 역시 국보, 보물을 보유하고 있고 사찰 일원도 전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문화재다. 천은사 지방도를 통행이 아닌 관람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도 이미 나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판시한 '통행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천은사가 포함된 861번 지방도 지리산 구간은 공공도로가 아닌 지리산 국립공원 내 관광도로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사찰위는 "861번 지방도 천은사 경내지 구간은 종단과 사찰의 승인 없이 88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 방식으로 개설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찰 수행환경이 심하게 파괴됐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용 수용해 개설하지도 않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한 공식도로도 아니다. 천은사 경내지 구간은 전통사찰보존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사찰위는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리산 일주 관광도로 폐지 후 원상회복해 사찰 소유지 반환 △천은사 주차장에서 시암재까지 친환경 셔틀버스 운영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향후 당해 사찰인 천은사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활동과 환경단체와 연계한 지리산 살리기 운동 등 사회 공익적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종교분쟁, 미얀마 민주화 위협하고 있다"

UN인권특사 미얀마 유혈충돌사태 성명서 발표

"최근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분쟁이 미얀마 민주화를 위협하고 있다."

토머스 오지 퀸타나 유엔(UN) 인권특사는 미얀마에서 벌어진 유혈충돌 사태에 대해 이같이 경고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퀸타나 대사는 6월 14일 성명에서 "종교적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미얀마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퀸타나 대사는 "종교 분쟁이 미얀마의 안정과 민주화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절제심을 발휘해 폭력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충돌은 미얀마 내 라카인주의 압도적 다수파인 불교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族) 사이에서 빚어졌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의 사리를 보는 것은 즉 부처님을 만나는 것!! (若見如來舍利卽是見佛)

부처님 진신사리집 출간

말로만 듣던 부처님의 사리집을 친견하여 세세생생 복덕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사진으로나마 처음 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수정(水晶)같이 맑고 무지개빛 영롱한 빛깔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황금색 빛 그대로 보옥(寶玉)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이후 이천오백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의 진신(眞身)을 친견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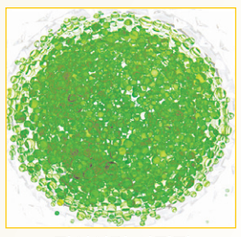
주요목차

- 진신사리의 연원
- 부천의 10대 주요 제자 사리
- 16아라한의 사리
- 사리의 진품 증명서
- 부처님의 생애
- 5대 비구 사리
- 아라한과 다른 기타 사리
- 석가모니 부처 사리
- 500아라한의 사리
- 살리의 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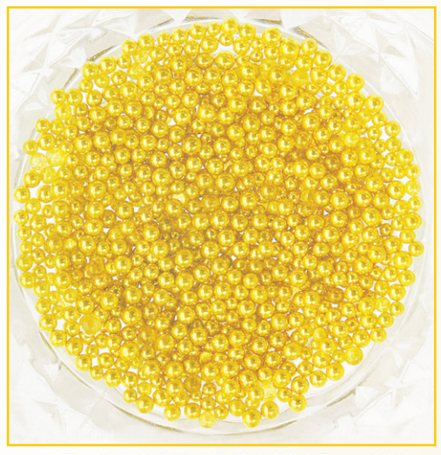
호화판 양장본 정가 ₩280,000원


부처님의 뇌 사리


부처님의 침 사리


진신사리 사진집


부처님의 사리 증명서


황금색의 장엄하고 화려한 부처님 혈(血)사리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TEL : 053)325-0400, 325-5288 / FAX : 053)325-4848 / H·P : 010-6483-0089 / e-mail : sambo111@hanmail.net
● 입금계좌 농협 : 351-0469-0075-73 예금주)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아라한과 진신사리 증정

아라한과 사리를 직접 친견하고 모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년 부처님 탄생지에서 봉행사는 룸비니 세계불교문화올림픽 기금 조성 및 불우아동돕기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보급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사리집 + 크리스탈 사리함 (木좌대 포함 + 아라한 사리 1과]

티벳과 네팔 등지에서 어렵사리 모셔 온 아라한과 사리는 정성껏 모시고 기도하면 증과를 하는 영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맑게하며 어떤 장애와 고난으로 부터 극복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리입니다.



아라함(阿羅漢, Arhan)일난 준말로는 나하(羅漢)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불제자들이 도달하는 최고의 계위이며 부처님 시대나 그 이후의 세대 동안 수행을 하면서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존경 받는 불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셔서 선근(善根)과 인연(因緣)으로 모두가 부처님 사리집과 아라한 사리를 모시는 혜택과 함께 무량한 복덕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 주 문



제2회 금강경 강송대회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8월 31일까지 제2회 금강경 강송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02)445-8486



광동학원 이사장 취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6월 18일 남양주 광동고에서 제11대 광동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02)734-8050



조계사 단오맞이 신중도량재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6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012단오맞이 신중도량재와 어르신세족식 등을 개최한다.



명상상담硏, 여름 명상수련회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이 6월 29일~7월 1일 경기도 용인 법륜사에서 여름 명상수련회를 개최한다.



해봉사 삼존불 점안법회

포항 해봉사 주지 혜주 스님은 6월 9일 해봉사에서 부처님 삼존불 점안 법회 및 '생전예수 시왕 생칠일제'를 봉행했다.



대한불자가수회 일일찻집

대한불자가수회 나운하 회장은 6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 BBS불교방송국에서 소년·소녀 가장돕기 일일찻집을 실시한다. (02)742-0200

"일본 정부 진실된 참회해야"

일본 아시아침탈 자료 110점 군산 동국사에 기증

"일본 패전 후 지난 66년간 한일 정부와 불교계의 관계는 원만치 않았습니다. 패전 후 일본정부와 불교계는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불제자로서 일본 불교계가 식민지 정책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을 진실되게 참회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꼬((一戶彰晃 64세) 스님은 단호하면서도 거침이 없었다. 스님은 일제강점기 일본정부와 일본 조동종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일제의 한국 침략과 관련된 희귀자료 110여점을 군산 동국사에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치노에 스님은 6월 22일까지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동국사에서 열리는 자신이 기증한 유물 전시회를 둘러보러 방한했다.

스님이 기증한 유물들은 일본의 아시아 침탈에 일본 조동종이 협조한 것을 고발하는 내용의 자료들이다. 이를 수집하기 위해 스님은 고서점,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뒤지며 사비를 들여 구입했다. 이 중에는 조선총독부 발행 금강사(현 동국사) 창립 인가 서류 24매를 비롯해 조선사찰 31본산 사진첩, 세계 제2차대전 말 조동종(曹洞宗) 사찰



일본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꼬 스님

서 참배를 강요했던 황금 도금 전사자 위패, 동국사 전신인 금강사에서 헌금한 명부, 1938년 조선인 최초 강제징용자 훈련소 입소 사진(현재 육군사관학교 자리) 등 근현대사의 귀중한 사료가 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그동안 진실을 은폐 축소해 온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국 동국사에 기증한 이유에 대해 스님은 "세월이 흐르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서 이런 자료들은 앞으로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이어 스님은 "일본서는 설령 자료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이런 전시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서는 이런 자료들이 잘 보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고 설명했다.

일본서도 알아주는 인권·평화운동가인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 승려들이나 불교단체는 입으로는 '반성'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한일불교 발전을 위한 소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교류해야 됩니다."

스님은 동국사가 한일 불교계의 교류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스님은 2년전부터 일본서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동지회)'을 결성해 대표를 맡고 있다.

한·일 양국의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동지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했다. 현재 회원은 25명의 학자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스님은 중일 전쟁당시 일본 조동종이 일제의 중국침략에 협조한 내용을 고발한 중국 남경대학살(1937년 12월~1938년 1월) 관련 참회 서적 〈조동종의 전쟁〉을 이미 일본서 출간한바 있다. 이어 올 가을에는 일본 조동종(曹洞宗)이 한국서 저지른 패악을 사례별로 조사한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를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중도를 알면 사회가 변한다

고우 스님, 6월 11일 '백일법문' 첫 강연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에는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할 '중도(中道)' 사상이 집약돼 있습니다."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고우 스님이 '백일법문' 특별 강좌에 나섰다. 조계종 백련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강좌는 6월 11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 전통불교문화공연장에서 개최됐다.

'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이 1967년 해인총림 초대 방장에 취임한 후, 첫 동안거 100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총림대중에게 설법하신 법문의 내용이다. 성철 스님은 당시 불교 공부에 등한시하는 풍토를 쇄신하고자 이례적으로 동안거 동안 100일이나 설법했다.

고우 스님은 "당시 동안거를 다른 사찰에서 보냈다. 법정 스님을 통해 '백일법문'에 대해 알게 됐다.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을 한 사실을 알고 무척 아쉬웠다"며 "후에 〈백일법문〉을 책으로 접하고 많은 부분에 공감을 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새롭게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원시불교, 중관, 유식, 천태, 화엄과 같은 교종 사상과 선종 사상 모두 중도사상이 핵심임을 설파했다.

스님은 "부처님과 성철 스님은 모두 '중도'를 강조하고 있다. 표현의 다를 뿐 〈금강경〉 등 경전과 선사들이 깨우친 선어록에서도 중도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며 '백일법문'의 핵심이 중도임을 강조했다. 이어 "중도를 아는 것이 결국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드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고우 스님은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조계종단의 현실을 염두하고 "어두운 면은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면 안 된다. 밝은 면을 밝혀야 어두운 면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어두운 면을 두고 싸우기보다 밝은 면으로 치유해 나가야 한다"며 "중도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밝은 면을 밝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식개혁도 중요하다. 스님, 재가자 모두가 의식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며 "의식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도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를 알면 개인의 삶의 바뀌고, 가정이 바뀌며,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바뀌게 된다"고 설했다.

한편 고우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봉암사 주지와 각화사 태백선원장,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스님의 강연은 총 10강좌로, 10월 29일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종단총연합진흥회 '호국영령 합동천도 대법회' 봉행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회장 연화)는 6월 13일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천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이사장 일공 스님(원융종 종정)을 비롯하여 대회장 연화 스님(소림선종 총무원장), 봉행위원장 성관 스님(원융종 총무원장) 등 각 종단 종정 스님,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일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 세계평화와 화합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불이상 최종남 교수·강형진 단장

7월 5일 신라호텔서 시상식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한국 재가, 여성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제27회 불이상 수상자로 연구분야에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사진 왼쪽〉와 실천분야에 강형진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사진 오른쪽〉을 각각 선정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선정 이유에 대해 불이회는 "연구부문 수상자인 최종남 교수는 불교학과 유식학을 중심으로 한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강형진 단장은 불교 유일 클래식 음악 단체로 음악을 통한 불교문화 저변 확대에 크게 공헌해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상자에게는 각 2천만 원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한편, 불이회는 한국 재가불교, 여성불교 위상 제고를 위해 설립됐으며, 1986년 인재양성을 위한 불이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성철 스님 특별전' 수익 기부

백련불교문화재단, 자비나눔기금 전달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은 6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6일 성료된 '성철 스님 일대기 특별전'과 테디베어 판매 수익금을 저소득 아동 치료비로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다.

이날 자리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시가 잘 마무리됐다. 특히 박물관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전시 성료는 성철 스님의 덕화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두 차례 전시를 보러갔는 데 내용이 알찼다"며 특별전 성료를 축하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사 신도 승려복지기금 기탁

아름다운동행에 1억 7900만원 전달

승려노후복지사업에 조계사 대중들도 동참했다.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과 신도회 회장단, 고문단은 6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을 예방하고, 총 1억7979만7000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조계사가 봉행한 생전예수재를 통해 신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금액으로 조계사는 예수재 기간동안 발우 보시함을 설치해 신도들의 동참을 유도해왔다. 이에 대해 자승스님은 "종단과 조계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지 스님과 신도회 회장단이 승보공양을 위한 기금을 전달해 줘 감사하다"며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정진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진 석법운
원로위원 석보운 석월현 석해동 석법등 석성우 석월산

귀의삼보 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으로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역대 선지식들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문화를 불교에서 찾아내어 역사와 민족앞에 제시하고 함께 실천 지도하여 왔습니다.
원효대사는 화쟁사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병폐를 치유했으며 보조 지눌선사는 고려불교의 사치와 호화를 경계하여 선교의 수행 실천으로 후학을 지도하였고, 서산대사는 선사상 등 여럿이 있지만 사명대사에 이어져 호국불교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불교로 민중을 지도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 종단 역시 깊은 뜻을 받들어 전통 불교의식의 이념전파 및 범음범패를 현재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누구에게나 열린 종단,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와 불자를 양성하는 교육종단, 일체의 삿됨도 배제하고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종단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세계화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 조계종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가와 불심 깊은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 3층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1리 1095 동명사
전화 054)974-2605(팩스겸용). 011-544-26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2년도 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나.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 수업일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자혜불교대학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업장소멸 법륜대
서울전시회

일시 : 불기 2556(2012)년 6월 21일(목) ~ 27일(수) 오전
장소 : 서울 백악미술관(조계사 앞) 1층 / 전화 : (02)734-4205
문의 : 덕유산청다향 (055)941-1083,010-4595-0017,010-3852-9500







법륜대 유래와 의미

양나라 때 선혜대사 부혐 현풍으로부터 제작, 대정17년 고려 명종에 전립, 그리고 티베트 사원에서는 법륜대에 경전과 소원을 비는 글을 넣고 돌리면 소원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업장소멸법륜대 세상을 바꿔!

1. 부처님 일천팔십 분이 별도의 공간 없이 수미단 양쪽으로 법륜대에 봉안됩니다.
2. 금강경(찬) 수천 수만 권을 복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탁이 디자인되어 법당이 더욱 장엄스럽습니다.
3. 이름과 사진이 함께 양면으로 볼 수 있는 특수 케이스가 제작되어 탈부착이 편리합니다.(특허출원)
4. LED의 에메랄드빛 연출로 화려한 반면에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안전합니다.(12V 전압)
5. 전생록(경전)을 참조한 의식임으로 더욱 신심을 북돋아 주고, 실제 경전으로 자신의 전생빚을 소멸합니다.

불교작품 건강을 사로잡다!

영원한 비색, 살아 숨쉬는 청자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불교계 이주여성 취업 지원 나선다

지혜로운여성, 7월 2일부터 서울內 이주민여성 대상 가족애착놀이강사 양성 교육


지혜로운 여성은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이주민 여성의 취업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소통, 언어와 육아의 어려움을 돕는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25%), 경제(21.1%), 자녀문제(14.2%)를 꼽았다고 발표했다. 최근 불교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사)지혜로운여성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30명을 대상으로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일일교사 활동 지원에 나선다. '가족애착놀이 강사 양성 교육'이란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애착놀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가족애착놀이는 놀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겪는 언어와 육아의 어려움을 돕는다. 참가자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 일차적으로 ▷언어 · 문화적 차이를 극복 ▷가족의 애착관계 형성 ▷자존감을 회복한 후, 지역사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에서 '가족애착놀이' 강사로 나서게 된다.

프로그램은 1960년대 미국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테라플레이(theraplay)에서 착안됐다. 당시 미국은 불우아동에게 가난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고, 교육 기회균등을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빈곤층 자녀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면, 그들이 결국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강사로 나선 홍정애 홍정애치료놀이상담센터 소장은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신감 · 자존감이 부족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언어 · 문화적 차이로 가족 간 소통이 단절된 경우도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치료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프로그램은 단순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다"고 밝혔다.

하현정 지혜로운여성 사업팀장은 "다문화가정은 사회적으로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에게 국제결혼으로 발생되는 가족 내 언어 · 문화적 차이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관계향상을 도와 건강한 다문화가족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향후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가족애착놀이'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후, 매회 가정에서 과제수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 향상과 강사양성 실습효과를 동시에 거두게 된다. 이밖에 여성결혼이민자는 스피치 발성교육과 직장생활 기본예절 등 취업 교육을 함께 받아 한국사회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지혜로운여성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3개 국어로 '가족애착놀이 활동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일교사로 활동 시 교재를 교사용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교재를 통해 각 가정에서 애착놀이를 반복해 관계향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불교계 종립학교와 복지관,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학교 등에 여성결혼이민자 일일교사 추진방안과 방과후교실운영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현정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장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은 단발적인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불교계의 다문화가정 지원이 활성화 되길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로그램은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7월 2일~10월 8일 매주 월요일 마다 실시되며, 총 12회 강연으로 진행된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광장' 건립과 여성불자 전문 교양지 〈우바이예찬〉 발간 기금 마련을 위해 6월 20~21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 갤러리에서 제5회 불교여성개발원 바자회를 진행한다. 바자회에는 예술작품, 도서, 다기, 차, 천연한지수의,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02)722-2102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孝 통해 시대 변화 앞장설 터"

대불청, 6월 9~10일 제31차 전국불교청년대회 성료


대불청은 화성 용주사 일대에서 6월 9~10일 제31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본 대회에서 최우수 지구 및 지회로 뽑힌 수상자들의 모습이다.

"효는 인륜의 근본이다. 모든 생명은 부모로부터 나오며,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하며, 부모의 은혜로 살아간다. 지극한 부모의 은혜를 반조하는 도리가 바로 효이며,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전통이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모님에 대한 10가지 은혜가 담겨있다. 6월 9일 경기도 화성 용주사 앞마당에서 청년불자들이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를 되새기며 우렁찬 목소리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을 낭독하고 있었다.

청년불자들, 효행문화 선도 나서
孝, '인류가 간직해야할 자산'
용주사 일대 효문화성지 개발 주장

6월 11~15일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를 앞두고 대한불교청년회는 민족문화수호의 기틀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 이하 대불청)는 창립92주년을 맞아 6월 9~10일 용주사와 화성지역 일대에서 '청년 21세기 孝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제31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기획 실장 능도 스님,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정우식 대불청 회장, 우호철 대불청 경기지구회장, 폰차이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정우식 회장은 대회사에서 "불교의 '효'는 타종교와 달리 연기법에 기초해 '참회'와 '소통'에 주목한다.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인연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효'가 실천된다며 계층, 세대, 민족 분단의 갈등도 능히 해결되리라 믿는다"며 "앞으로 '참회'와 '소통'으로 21세기 효행문화를 선도하는 청년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불청은 효 문화성지 선포문을 통해 "21세기 중심사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효사상은 민족과 종교, 시간을 뛰어넘어 인류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라며 "후손들이 효 사상을 배우고, 이를 사회에서 실천할 때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갖춘 민족 ·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융건릉과 용주사 일대를 문화유산으로 전승해, 인류의 근본인 효사상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존 계획해야 한다 ▷융건릉과 용주사 인근에 진행 중인 주택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효정신문화 교육환경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라 ▷효정신의 역사문화가 계승 발전돼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청년부터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본 대회에서는 각 지역 최우수지구 및 지회, 우수회원 등 12개 분야를 선정해 불청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불청대상 수상자는 배동한 대불청 지도위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을 마친 후에는 각 지회 및 지구별 축하공연과 효 소원지 소각의식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내 유학중인 외국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제6회 퀴즈대회 '범종을 울려라', 사진전, 빈그릇 운동 · 한국문화 알리기, 어린이 템플스테이, 화성행궁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이밖에 6월 10일 수원화성 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는 혜민 스님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우리시대 문화란 무엇인가' '젊은이가 가져야 할 비전을 무엇인가'를 주제로 좌담이 마련됐다. 혜민 스님과 엄 시장은 현 젊은 세대들이 어떤 시각으로 사회의 흐름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주사=이은정 기자

"커피나무 심어 마을 경제 살려요"

더프라미스 네팔 지역개발 사업 실시

국제개발구호 NGO 더프라미스가 시민참여형 프로젝트 '네팔 산간 오지 마을 커피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6월 2일~ 10일까지 열린 이 행사는 다딩 지역 카툰제 산간 오지 마을 등지에서 진행됐다. 더프라미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비와 마을 개발 기금을 마련해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더프라미스 홍보담당 이현주 씨는 "카툰제 마을 저소득 가정에 커피나무를 심어 농가 수입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으로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자립형 지역 개발 사업을 만들고자 마련됐다"며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또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프라미스는 "봉사자들이 빈곤국 체험을 통해 국제구호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UNDP 2011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네팔은 빈곤선(1일 $1.25) 이하에서 생활하는 인구 비율이 78%를 차지하는 최빈국이다. 네팔의 빈곤은 지형, 도농간 격차, 성, 민족, 카스트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에 인접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간 지역의 저발전 문제가 심각하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동국대 이색 방학강좌 '간화선 집중수행'

하루 10시간씩 8일간…안국선원 수불 스님 직접 지도

여름방학을 맞아 동국대가 간화선 집중수행을 주제로 이색 계절학기 강좌를 개설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계절학기 강좌로 간화선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기는 처음이다.

강의는 7월 9~16일까지 8일간 오전 9시부터 하루 10시간씩 동국대 국제선센터 법당에서 진행된다.

지도법사로는 안국선원 ·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이자 범어사 주지인 수불스님이 나설 예정이다.

강의내용으로는 △입제화두법문(발보리심) △화두란 무엇인가, 선지식(善知識)의 역할 △간절한 마음, 신심의 중요성 △분심의 중요성, 화두 의심의 중요성 △일념만년 집중하기, 의정과 회광반조 △의단독로, 화두참구 시 주의사항, 망상 △화두참구 시 주의사항, 혼침 · 식광 △대승불교의 꽃, 돈오 등 소참법문과 함께 실참과 지도가 함께 진행된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관계자는 "20여년간 안국선원에서 2만여명에게 간화선을 지도하고 있는 수불 스님이 직접 강의해 대학생들에게 간화선의 진가를 알릴 예정"이라며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지친 학생들이 간화선 실참을 하며 자신과 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천년고찰 건봉사 불교 성지로 재탄생

고성군 175억 들여 2017년까지 설법전 · 극락전 등 15동 복원

조선 4대 사찰 전소 아픔
군민 · 불자 힘 모아 재건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금강산 건봉사가 복원사업을 통해 한국불교 성지로 거듭난다.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최근 총사업비 175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공양간과 설법전, 극락전, 요사채, 사성전 등 건물 15동을 복원하고 소하천과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건봉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1990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팔상전지 등 4개 지역 사지 정비 등 복원사업에 착수해 2011년까지 팔상전과 대웅전 등 16개 건물을 복원한 바 있다.

고성군은 또 건봉사지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해 유적 복원의 타당성과 복원 관리 방안, 향후 복원에 관련한 정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강산 건봉사는 묘향산 보현사, 계룡산 갑사, 두륜산 대흥사와 함께 '4대사찰'로 꼽힌다.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520년) 아도화상이 창건해 원각사로 불렸다.

경덕왕 17년(758년)에 발진화상이 중건하고 정신, 양순 스님 등과 1만일 동안 염불을 외우며 수행하는 염불만일회를 시작했다. 여기에 1829인의 신도가 참여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각 사찰의 염불만일회의 시초가 됐다. 고려 태조의 스승인 도선대사가 왕명으로 원각사를 중수하고 절 서쪽에 봉황새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하여 서봉사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358년에는 나옹 스님이 중건하고 건봉사로 개칭하면서 비로소 염불과 선 · 교의 수행을 갖춘 사찰이 됐다.

1465년 세조10년에는 세조가 이 절로 행차하여 자신의 원당으로 삼은 뒤 대웅전 옆에 어실각(御室閣)을 짓게 하고 조선왕실의 원당(願堂)으로 삼았다. 이후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이후 대웅전과 팔상전, 관음전 등 모두 766칸을 보유해 조선 4대 사찰의 하나로 성장했다.

부처님 진신치아사리가 모셔져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호국의 도량이기도 하다.

일제시대까지 강원 북부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조계종 본산 중 하나로 신흥사 · 백담사 · 낙산사를 관할했으나 6 · 25로 일주문만이 남고 완전 전소돼 신흥사 말사로 편성됐다. 종전 후에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신도들의 출입마저 자유롭지 못해 폐사 위기에 까지 몰렸다.

건봉사는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8과를 비롯해 보물 1336호로 지정된 능파교와 보물 1337호인 육송정 홍교, 도문화재자료 제35호인 불이문, 사명대사 기적비, 세존양아탑비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1982년 지방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됐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김천 직지사와 함께 간이역 직지사역을 불교 테마성지로 육성한다. 코레일은 4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 40개 간이역을 대상으로 간이역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해 직지사의 제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경북 김천에 위치한 '직지사역'은 1925년 세종신호소로 문을 연 이후 1990년 간이역으로 격하됐다.

이번 최우수작 선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직지사역에 세계철도미니박물관을 조성한다. 또 직지사는 가수 제인, 개운사 녹야유치원생 50여 명과 함께 '직지사역' 노래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자리 창출이 한국의 미래"

불자 김두관 경남도지사, 부산대 특강



불자 김두관 경남도 지사가 부산대 학생들에게 한국의 미래상을 전했다.

김 도지사는 부산대 초청으로 6월 13일 열린 '제2회 인문대학 명사 초청 특강'에서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란 슬로건이 있는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현재 한국의 실질 청년실업률은 22%이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며, 급여 또한 정규직의 50%"라면서 "지금 한국 경제의 화두는 '얼마나 강한 일자리를 만드는가'"라고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들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공평한 대학정책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차별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공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학의 자율화와 총장 선출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대학생의 질문에는 "대학 자율화가 대학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럽다. 대학의 균등화가 된 지금 시점에서, 과거 지방 앨리트 양성에 큰 역할을 했던 국립대학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도지사는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동자승 OB · YB 한자리 모였다

10일 홍법사 잔디마당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10일 경내 잔디 마당에서 '제1회 홍법사 단기출가 동자승 동문회 체육대회'를 열고 우호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동문체육대회에는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에 참가한 1기부터 7기까지의 동자승과 가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동자승단기출가가 유년기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문회를 결성했다"며 "1기 동자승들이 이제 중학생이 돼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7월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자승 1기 정석현(재송중1)군의 어머니 김외선(수미정) 동문회 회장은 "아들이 유치원생일 때 단기출가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기억하는 부분은 적지만, 당시 마음가짐이 생활 속에서 묻어나고 있다"며 "동자승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불교 포교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우리가족의 즐거운 월정사 숲길 달리기

제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오대산 전국 디지털사진 공모전 대상에 김동일 씨가 출품한 '우리가족 달리기'가 6월 8일 선정됐다.

또 금상에는 김부오(강릉시 입암동) 씨의 '오대산 나들이', 은상에는 장세억(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씨의 '우리아이 키 크게 해주세요', 동상에는 박인진(충주시 칠금동)씨가 출품한 '율서보살과 소통하기'가 각각 선정됐다.

제8회 오대산 전국 디지털사진 공모전에는 평창 월정사 동별당에서 채창석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이재용 강원도민일보 사진부장,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전국에서 응모한 사진 340여점을 심사했다.

심사회의 자리에서 '우리가족 달리기'는 심사위원들로 부터 "오대산의 전나무 숲과 비포장 도로 위를 서로 손을 잡고 달리는 가족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 신록의 오대산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가족간의 따듯한 사랑이 흠뻑 담겨 있는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공모전에는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입선작에는 상장과 기념품이 전달된다.

노덕현 기자

부산 진여원, 호국영령 위령재

14일 현충공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계종 진여원(회주 혜총)은 6월 14일에 화명동 현충공원에서 제14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

이날행사는 진여원 회주 혜총 스님과 주지 무성 스님을 비롯해 이성국 부산지방보훈청장, 제53사단 125연대 6대대 서재석 대대장, 이상률 북부경찰청장, 황재관 북구청장과 300여명의 보훈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혜총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부처님 말씀 중에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라'는 법문이 있다. 호국영령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자신을 베푼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있는 것임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현충공원 내 호국영령추모비는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전사한 428위의 영령을 모신 곳으로 2002년 건립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설동근 동명대 총장 13일 취임식

동명대 '작지만 강한 대학' 비전 밝혀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설동근 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부산 동명대 제7대 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동명대는 6월 13일 설동근 총장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변화를 다짐했다.

설 총장은 취임사에서 "'작지만 강한 대학'이란 비전을 가지고 내실을 다지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산학협력거점대학인 동명대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 총장은 지난달 31일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회에서 제7대 동명대 총장으로 선임돼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 10년간 부산시교육감을 지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산 스님과 무명사 주지 무명스님, 문수사 주지 지원스님을 비롯한 불교 각계 대표들과 교육계, 언론계에서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대불총, 연등회 축제 평가회 개최

11일 대구 문화웨딩홀서…"홍보부족" 지적

대구불교총연합회는 6월 11일 문화웨딩홀에서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축제 '달구벌 관등놀이-연등회' 축제 평가회를 가졌다.

대불총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 예산을 지원받은 가운데 대구 불교계 전체가 힘을 모아 행사를 성공리에 치러냈다"며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사 기간이 길고 홍보가 다소 부족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한편 대불총은 한국 전통등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제 1회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축제를 지난달 17일부터 사흘간 두류야구장 일원에서 개최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거리 제등행진을 봉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7월 10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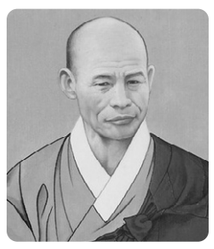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봉행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68주기
추모다례재



재단법인 선학원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68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합니다.
만해 스님께서는 일제강점기 선학원의 설립조사이시며, 우국지사로 한평생을 민족불교 수호와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민족의 선각자이십니다.
만해 스님의 열반 68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봉행함으로써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6(2012)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재단법인 선학원 중앙선원 3층 법당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 진 합장

공지사항
※ 참석을 희망하시는 사부대중께서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 문의 : ☎(02)734-9654~6

재단법인 선 학 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02)734-9654~6
http://www.seonhakwon.or.kr

국립 전북대 병원에 법당 생긴다

전북신행단체, 대책위 구성 후 건립 요구

전국 국립대 병원중 전남대와 함께 유일하게 법당이 없던 전북대 병원에 불교 신행 시설이 설립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불교신도회,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전북불교시민연대 등 18개 신도 포교단체들은 6월 11일 전북불교회관 3층 지장전에서 전북대병원 법당건립 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법당 불사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인 신행단체들은 그동안 법당 건립 불사를 추진했으나 전북대병원측에서 동의만 하고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불교계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병원법당은 불자 환우는 물론 가족들이 장시간 수술시간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의지할 수 있는 기도처가 필요하다"며 "우선 법당 건립의 당위성과 요구안 및 전북 불자들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등 상급기관 등에 시정을 촉구하는 등 건립 불사를 위해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 중 전북·전남대 병원만 법당 없어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불교계에서 이웃종교들에 비해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호스피스, 간병봉사 등 신행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에도 팔을 걷어 부치기로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북대병원 김종우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립 전북대 병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교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귀를 귀울이겠다"며 "불교 법당 건립 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계획은 계속 회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 팀장은 또 "병원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불교계 시설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중인 병원 리모델링 계획이 완료되면 다른 종교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당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불교계측에서 다양한 자원봉사나 병원내 복지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를 통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측 "법당건립 계획 이미 확정" 리모델링 완공시 공간 마련

한편 본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 중 종교시설이 없는 곳은 한 공간을 각 종교가 공동사용중인 강원대 병원이 유일하며, 불교계 시설이 없는 곳은 전남대 광주 병원과 전북대병원 2곳이다.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전북대 병원은 연간 600만명의 환자와 가족이 이용하고 있는 전북지역 대표적 병원으로 현재 개신교와 천주교 시설은 있지만 불교계 시설이 없어 불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일단 전북대병원측의 법당 건립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환영한다"며 "병원 리모델링이 완공때까지 오래 걸리는 만큼 임시 공간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병원측과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주민 동의없이 폐기물 처리장 설치"

나주 죽림사 · 지역주민 설치반대… '강력 대응 할 것'

1600년 역사를 지닌 나주 죽림사(주지 법룡) 입구에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찰과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죽림사와 나주 남평읍 풍림2구 주민들은 "전남산업(대표 이갑순)이 사찰인근 남평읍 풍림리에 '의료 폐기물 수거 및 저장 창고' 설치를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법룡 스님은 " '의료 폐기물 수거 및 저장 창고'가 들어서면 마을주민뿐 아니라 사찰을 찾는 신도와 참배객들에게 큰 장애가 될 것이다"라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염오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더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평읍은 영산강의 지류인 지석천이 2번에 걸쳐 범람해 농토가 침수당한 적이 있다"며 "시설 설치 후, 또 범람이 발생하면 마을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남산업은 나주 남평읍 풍림리 일대 863㎡에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와 사무실 및 주차장을 계획하고, 매월 5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을 건립 예정중이다. 나주시는 이미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불허했지만, 전남산업은 나주시의 이같은 입장에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한 상황이다.

'의료 폐기물 수거 및 저장 창고'는 광주지역 전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4곳의 대형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은 인체조직, 실험동물 사체 등 인체 감염을 유발하는 폐기물들이 포함돼 사찰과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황인열 풍림 2구 이장은 "풍림지역은 여느 농촌지역과 달리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딸기, 채소, 한라봉을 생산해 대도시에 판매하는 지역이다"라며 "광주지역 대형 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장소가 설치된다면 누가 농산물을 구매하겠느냐. 마을에 존폐가 달린 만큼 결사적으로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남평읍 이장협의회와 주민 800여 명의 서명을 통해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나주시청에 ▷주거지역 마을입구 ▷감염성 의료, 유해 폐기물 유출시 인체 감염 ▷지역의 노약자 요양원 시설에 감염, 정신적 피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로써 생산 가치 절하 ▷지석천 및 수계의 오염 ▷문화재 보호구역인 죽림사의 경관 훼손 및 가치절하를 이유로 반대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 죽림사와 주민들은 관련 전문가와 법률자문을 통해 설치반대활동을 진행해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소년들의 잔치한마당 '청소년 모악축제' 개최 전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행)가 6월 9일 김제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를 개최했다.
'나의 삶을 자비롭게, 온 누리를 향기롭게'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음악놀이경연은 사물놀이, 국악, 전통악기, 노래, 단체댄스, 마술, 그룹사운드 등 다양한 경연이 펼쳐졌다. 이번 경연에서는 임실 지사중 사물놀이 팀과 중앙여고 그룹 댄스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은 임실 지사중 사물놀이 팀의 공연 모습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산사에서 태권도로 심신단련 하다

무주 안국사, 태권도 템플스테이 실시

태권도와 함께하는 특별 산사체험이 무주 안국사(주지 보산)에서 진행됐다. 안국사는 6월 9~10일 태권도 수련을 비롯해 예불과 108배, 참선, 발우공양, 다도체험, 연등만들기, 탁본, 산사문화탐방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는 중국 등봉시 소림사무술시범단 20여 명이 참가해, 한 · 중의 전통무술을 비교 · 체험해 보는 기회도 마련됐다.

안국사 보산 스님은 "행사는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가족과 자신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심신을 단련해 활력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2013년 안국사 인근의 자연경관을 연계해 '무주 태권도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린이·청소년 포교 우리가 최고"

나무숲, 광주지역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앞장서



나무숲이 진행하는 '자따마따'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연음식을 맛있게 먹고 빈그릇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불교계가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청소년 공동체 나무숲(대표 무등, 이하 '나무숲')이 모범 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나무숲은 지난 1년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나무숲은 자따마따(자연따라 마음따라), 어린이생태학교, 청소년 지리산마음캠프, 선재역사문화탐방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나무숲, 1년간 10여 차례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 실시 자따마따, 생태학교, 지리산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기

무등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세상의 당당한 주인으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나무숲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사찰과 전통문화를 연계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 학생들은 휴대폰과 게임기 등을 휴대할 수 없고, 자연 음식섭취 등 자연의 문화 · 환경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대표적 프로그램인 자따마따는 1박 2일로 지난 3월 24일 쌍계사를 시작으로, ▷4월 28일 해인사에서 진행됐으며, 앞으로 ▷6월 23일 대구 유가사 ▷9월 8일 고창 선운사 ▷10월 27일 완도 신흥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각 사찰의 특성에 맞춰 웰빙트레킹, 팔만대장경 둘러보기, 원자력발전소 탐방, 우포늪 탐방, 동학 농민혁명지 탐방, 장보고유적 보기 등이 진행된다. 또 걷기 명상, 오감체험, 공동체놀이, 다도, 전통놀이, 요가, 108배 등 환경과 전통문화체험도 실시된다.

자따마따에 참여한 김진영(12) 군은 "부처님의 욕심 없고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이 인상 깊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미래에는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무등 스님은 "행사 사찰 신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자녀들도 참가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나무숲에서 4년 넘게 진행해온 어린이 생태학교는 녹색에너지체험관, 에코트레킹, 우리밀 쿠키만들기, 광주환경기초시설 견학, 명상, 다도, 오감체험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7월 27~29일에 장성 백양사, 11월 10~11일 광주 증심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의 먹거리 중요성과 소통을 일깨워 준다.

또 청소년들을 위해 8월 3~5일까지 제1회 청소년 지리산마음캠프를 진행한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지리산 종주를 통해 청소년들의 국토사랑을 일깨워 준다. 캠프는 집과 학교, 학원에서의 답답한 생활을 탈피해 탐험과 모험심, 자립심 등을 길러내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나무숲은 6월 17일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후원에 모인 기금은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여래후 금강진법사구계인 수,육,보,영으로 영육이 합일 문자와 형상과 염불,독경,참선 수행 등 보이는 세상을 초월 성품이다니는 현관을 찾아 비구니와 보살들도 성불득도 혜안을 열어 부처나 제왕이 되는 타심통대법회

지구촌 천지개벽으로 동방의 빛이 지구촌을 비추니 대한민국의 운이 전세계를 비추어 만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하늘이 내리신 얼과 혼인 말과 글의 28자를 아는 시대가 오는 것이며 가감승제를 뺀 24자인 것이다.

◆중생들은 과거에 업장과 지은 공덕이 부족 수명이 짧고 병마로 고생하며 비구 비구니 중생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업연으로 성불 득도가 없으며 염불 목탁 화두 정진 수행으로는 자성을 볼 수 없기에 무여 열반 뒤에 제도한다 하셨고 방편 불교 후 천지공사 지계 수복자에 의하여 진법사구계인 수육 보 영 사계와 진종도 민족업, 봉천명, 9자인 사구계로 유불선이 하나 되는 중생들을 제도 세계 평화 불국 정토로 광신 유포하는 천하 제일의 대 비밀장인 것이며 부처님의 초능력으로 천지공사 및 명부공사하여 생명의 문인 현관찾아 성불 득도하여 부처와 제왕이 되는 것이다.

천지 공사란
천은 평생해도 안되는 성불의 심종자 태양 입법계 자성문인 마음이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지**는 부모님에게 육신을 받은 공덕과 진빚을 갚으려고 육신의 법당에 들어가는 현관에 주인 만나는 문을 두드려야 유아독존 나를 찾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증상대운으로 거혼 금혼 매혼

공사는 찾고 있는 내부처가 현관은 만났으나 폐쇄되어 각종 파충류와 귀신 마귀들이 침범 못하도록 하는 공사이며 염불, 독경, 화두, 정진 등 수행으로는 고행인 것이며 출입문은 오직 현관뿐인 것이며 자성이 다니는 문을 찾는 것이다.

명부 공사란 원시천존 도덕천존 영보천존에서 자신의 명을 지키는 명부 운명을 관장하는 삼업은 조상업, 전생업, 금생업을 경신일 자오시에 소울음 우는 주문에 의하여 천상보살과 이구지 보살과 환희지 보살이 천상 신장들에 의하여 진업, 죄업, 구업으로 자신이 부리는 신은 무당, 만신, 스님, 목사, 신부, 철학, 예언 등의 신을 자손으로 가지않고 자기대에서 해원상생하여 막힌 자성에 문현관을 열어 성불득도 제왕으로 사주팔자와 운명을 바꾸어 주는 타심통 평생에 한번 만나는 법회에 동참하시어 종교 종파 국가를 초월 성불 득도하여 신선,도인되어 생에에 최고 스승되어 마음 평화와 행복은 오직 천지공사 해인도법인 잣대로 삼마구니와 삼사자를 상생 제도하는 비법은 오직 진태인의 원방각 해인도법의 잣대인 것이다.

오직 수행기도 마장은 삼라만상 괴멸되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욕심이 아상을 만들어 보이는 허상에 목을 매기 때문에 귀신 잡신 빙의 신에 지고 마는 것은 악연으로 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중생과 비구니 보살들에게는 아상과 죄과 많으므로 성불득도는 없느니라하시고 열반후 방편 불교가 끝나 지계수복자에 의하여 금강 진법사구계인 수육보영으로 영과 육이 합일되어 성불득도하는 천하제일의 부처나 제왕이되어 태양의 빛으로 혜안을 여는 기법 일체 일여 심인 타심통인 것이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입 제 일 – 2012년 6월 27일 윤 5월 8일 수요일 해시
회 향 일 – 2012년 6월 28일 윤 5월 9일 목요일 해시
■동참비 : 천지 명부공사 합 150만원 49제는 성불득도 및 생명연장법 전수
■부부 및 개인 33만원 49재 7.7재 살아있는 생전예수재 기도비
※본 도량은 석가세존상 만불을 모신 기도소원성취도량 입니다.

농협 029-01-167866 곽한영(태일)
상담전화 : **02)821-6622, 010-3239-3110**
천지공사 응조 미륵 달마 경신 도통회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종 총본산 환성 태일대종사 합장**
부산 법회 : 사단법인 대한불교 달마조계종 경문사
상담전화 : **051)635-3110, 010-8533-1601**

'佛性' 동아시아 불교서 어떻게 변용됐나

금강대 불문연, 6월 22~23일 국제불교학술대회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님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구문은 동아시아 대승불교를 만나면서 '부처가 될 가능성'에서 '부처와 다름없는'과 같은 뜻으로 진화했다. 이는 동아사아 불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불성론, 여래장 사상의 기본이 된다.

이 같은 불성론, 여래장 사상이 동아시아 불교에서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 인문한국(HK)연구센터는 개교 1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에서 불성, 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중국 런민대학 불교와 종교학이론연구소와 일본 도요대학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무엇보다 한중일 삼국 불교의 원천인 불성론이 어떻게 변용됐는지를 삼론학, 지론종, 천태, 화엄, 선종 등의 각 분파를 통해 조명한다.

먼저 다케무라 마사오 일본 도요대학 총장은 첫날 기조발제를 통해 여래장사상의 다른 표현인 본각사상이 〈대승기신론〉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다케무라 총장은 동아시아 불교의 이론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대승기신론〉이 본각 사상을 설한 논서이고, 이는 붓다의 대비, 즉 타력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중도가 곧 불성'이라고 본 삼론학을 조명한다.

中 런민대, 日 도요대 참가

삼론학 등 불성론 수용 살펴

10년 공동 연구… 교류 체결

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중국 길장의 〈대승현론〉과 백제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를 중심으로 삼론학파의 중도불성론이 고정된 불성론이 아닌 역동적인 불성론이였고, 이내 '남종선의 불성론'에 그대로 반영돼 특유의 선문답의 토대가 됐음을 밝힌다.

'선종의 성립과 불성관의 변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는 일본 도요대학 이부키 아츠시 교수는 깨달음이 성립되기 위한 이론적 근거였던 '불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본래 면목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 변화를 선종 내부의 사상적 변화에서 찾는다.

중국 인민대학 장원량 교수는 '불성론의 중국불교사에서의 전개'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당대(唐代) 열반종 법보 스님(7C초~8C초)과 화엄종 4조 징관 스님(738~839), 천태종 부흥조 담연 스님(711-782)의 불성설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다.


다케무라 마사오 총장


김성철 교수


이부키 아츠시 교수


장원량 교수

이밖에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원측 스님 전문 연구가인 일본 도요대 가츠카와 토모야키 박사가 '이불성과 행불성' 주제발제를 통해 중국 법상종의 불성관에 대해 조명하며, △대만 국립정치대학 칭컹 박사의 '정영사 혜원의 불성관 이해' △금강대 최은영 박사의 '여래장계 경론과 길장의 불성론' △시징펑 중국 런민대학 교수의 '축도생 스님의 불성사상의 형성과정 분석'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센터 교수의 '〈대승기신론〉주석서에 나타난 여래장 해석 변화' 등 다양한 각도로 불성론의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강대와 런민대학, 도요대학은 10년 동안 '불교의 동아시아 변용'을 대주제로 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 역시 공동 연구의 첫 성과로 금강대와 이들 대학은 10년 동안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물도 공동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석길암 교수는 "한중일 3개 대학의 공동연구는 동일 한문문화권 불교학 연구의 국제간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가 세계불교학 연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다산, 스님들 전등契 형성에 영향"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다산 탄신 250주기 세미나서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을 맞이해 한국한문학회(회장 김영)가 6월 9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다산과 불교계의 관계를 조명한 발표가 눈길을 끈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사진〉은 '다산 정약용의 전등계 형성과 그 영향'을 통해 다산 정약용과 아암 혜장, 초의 의순 그리고 당시 불교계와 다산이 맺은 교우관계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박 소장은 "전남 강진에서 긴 유배 생활을 보낸 다산 정약용이 당시 아암 혜장, 초의 의순 스님과 교유를 나누며 불교계와 유학계의 소통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박 소장은 "다산과 아암의 만남은 아암의 소개로 초의에게 까지 이어지며 이어 차를 계기로 진행된 불교와 유교의 만남은 차 문화 중흥을 넘어 그 후손과 제자들에게 까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박동춘 소장은 새로 발굴된 다산의 초당 시절 제자인 윤종영이 주최한 시회의 시를 묶은 〈가연유사〉를 토대로 다산이 해남에서 스님들의 전등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유불 교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다산은 초의에게 승가에서는 계율을 유가에서는 법도를 강조한 규범의 중요성을 가르쳤으며 초의는 사제의 예를 다했으며 다산 자제들과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소장은 1805년 봄 다산이 아암을 만난 이후 강진이 떠나기 전까지 초의를 비롯해 대둔사 스님들과의 학연이 확대돼 전등계를 형성한다고 덧붙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3개 분과로 진행됐다. 1분과 다산연구의 점검과 전망에서 조성을 아주대 교수의 '다산과 천주교' 이헌창 고려대 교수의 '다산의 국가제도론' 등이 발표됐다. 2분과 다산연구의 자료와 시각에서는 정민 한양대 교수의 '다산 일문을 통해 본 승려와의 교유와 강학' 이영호 성균관대 교수의 '다산과 석천의 경전해석을 통해 본 실학파 경학의 일면'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말씀과 마음은 둘이 아니기에…

동국대 종학연구소, '간화선과 불교교학' 주제 국제학술대회

6월 23~24일 세미나, 25일부터 일주일간 마곡사 실참


2011년 열린 제2차 간화선 국제세미나 모습. 2012년에는 70여 학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간화선과 불교학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종호 스님)는 6월 23~24일 이틀간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3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간화선과 불교교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30여 불교학자들이 참여해 선과 교의 관계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0년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와, 2011년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에 이어 세 번째 마련되는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다.

첫날인 23일에는 국제선센터 선원장인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이 '한국불교의 활로 간화선에 있다'를 주제로 기조강연 한다. 수불 스님은 한국불교 수행의 정맥(正脈)인 간화선이 도입돼 정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간화선이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올바른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어 각 분과 별로 12개의 주제로 각각 간화선과 교학이 어떻게 상호 수용되고 용인되는지 다뤄진다.

특히 제니퍼 에이흐먼 미국 모레이비앤대 교수는 '1714년 2720 공안집에 대하여'란 발표를 통해 1700개의 공안(公案·화두)이 중국 명나라 후기 2720 공안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밝힌다. 공안의 증가는 스승들의 수행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 방편의 시도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프라마하 노파돌 사수타 태국 마하출라랑콘라자위달라야대 교수는 상좌부불교에서의 간화선 흔적에 대한 문헌적 전거와 현재 태국에서의 공안 수행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프라마하 교수는 태국의 6명의 공안 수행자들의 수행상을 전한다.

또 웬디 아다멕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보산(寶山)에서의 참회수행-화두의 전사(前史)'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참회의식이 중국 초기 불교학파들의 기본수행법이었으나 선이 등장하며 이를 대체했다"고 주장한다.

국내 학계에서는 다양한 불교교학과 간화선의 접점이 발표된다. 먼저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이 '간화선과 화엄선' 발표를 통해 방대한 화엄학 교의에서의 간화선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또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간화선과 유식학적 이해' 발표를 통해 유식에서 보이는 간화선 원리와 근거를 밝힌다. 또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간화선과 반야중관', 동국대 교수 종호 스님은 '간화선과 천태의 구조적 연관성' 등을 조명한다.

이밖에도 손역평 중국 남경대 교수의 '송대 문자선, 간화선과 선교관계', 김진무 동국대 교수의 '간화선에 운용된 반야의 논리', 로버트 지멜로 노트르담대 교수의 '불교에서 의심과 믿음' 등 논문이 발표된다.

한편, 학술세미나 참가자들을 비롯한 70여 국내외 학자 및 스님들은 이번 학술대회에 이어 6월 25~7월 1일 공주 마곡사에서 간화선 실참에 들어간다. 7월 2~3일에는 적명 스님(봉암사), 무여 스님(축서사), 혜국 스님(석종사)과 대담도 나눌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한국명상치료학회, 치료 사례연구 발표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는 6월 23일 오후 1시 서울 동국대 도서관에서 제12차 정기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명상치료와 질적 사례연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명상심리치료〉 출간 기념해 저자 인경 스님이 '명상(심리)치료와 질적 사례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지홍원 동방대 교수가 '나의 명상치유 여정-자서전적 내러티브', 류지숙 동방대 교수가 '호흡 명상이 신체화상장애 통증감소에 미치는 효과' 등을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3개 불교학술단체 공동 워크숍 눈길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7월 6~7일 평창 월정사에서 '인지과학과 불교의 만남'를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뇌 과학과 불교', 최훈동 한별 정신병원 원장이 '정신의학과 불교', 윤병수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가 '인지심리학과 불교'를 발표한다.

워크숍 일정으로는 나를 깨우는 108배 및 참선, 산내 암자 순례, 전나무 숲길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2260-3129 **노덕현 기자**

한국 근대종교의 탄생 심포지엄

한국종교문화연구소(소장 윤승용)와 종교문화비평학회(회장 장석만)는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한국 근대종교의 탄생'을 주제로 2012년도 상반기 정기 심포지엄을 연다. (02)886-2480 **노덕현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무선 마이크 무료보시!

지난 25년간 金文華가 제작해온 최고성능의 'DX-707 스탠드 마이크'를 구입 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7대의 'DX-707 스탠드 마이크' 제작을 끝으로 더 이상 공급 해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DX-707 마이크 7개는 법당에 앰프설치를 새로 할 사찰 일곱 곳에만 공급합니다.

마지막 남은 7대의 'DX-707 스탠드 마이크'를 영원히 소장, 보관하실 스님 7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당에 새로 앰프 시설을 원하시는 스님께는 "고급 무선 마이크 + 헤드셋1세트"를 무료 보시하겠습니다. (₩270,000원 상당)



DX-707 스탠드 마이크

1대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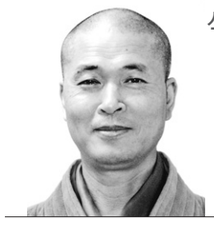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 법당 고급 앰프시설 특별 설치 □
특별가격 : 1,620,000원(선착순 7스님께)
구 성 : · 스테레오앰프 300와트 1대
· CD 기기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DX-707 스탠드 마이크 1대
· v-620 핸드 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무선 핀 마이크+헤드셋 1세트 (보시)


무료 보시 무선마이크

高音質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평범한 말 속에 은밀한 뜻있다

학승이 물었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집집마다 문 앞은 장안(서울)으로 통하고 있어."

問 狗子還有佛性也無 師云 家家門前通長安

본 〈조주록〉 132번째에 한번 나온 질문이다. 부처님이나 옛 조사 스님들은 움직일 줄 아는 자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불성(佛性), 즉 부처의 성품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개도 불성이 있을까? 이것이 이 질문의 요지였다. 이 질문에 대해 조주 선사는 '없다[無]' 고 잘라서 말했다. 비록 축생의 업식성이 강하다고 해도 성품은 변함없는 불성일 것인데, 왜 없다고 대답한 것일까? 이것이 화두가 되었다.

그런데, 같은 질문에 이번 답변은 불성을 인정하고 있다. '문 앞의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는 말은 곧 축생도 당연 불성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처럼 여기서는 개의 불성을 인정하고, 앞의 132문에서는 왜 개의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본 납자가 한 마디로 평을 하자면, 이것이 바로 조주 스님의 정확한 가풍이라고 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눈앞에 내놓습니다. 이것이 대의(大意)를 다 보인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저구(底口)!"
학승이 말했다. "거두어들여도 얻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저구(低口)라고 말했네."

問 覿面相呈 還盡大意也無 師云 低口 云收不得處如何 師云 向你道低口

저구(底口)란 '입이 바닥에 붙었다' '입이 낮아 졌다' 는 뜻이니 '할 말이 없어' 라는 뜻이다. 고난도의 선문답이다. '눈앞에 내놓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분명 도(道)를 들어내 보인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도를 다 들어낸 것인가? 이에 대해 조주 스님은 가타부타 뭐라고 말이 없었다.

도가 밖으로 나왔다면, 그것을 도로 거두어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설사 거두어들인다 해도 절대 얻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에 대해서 선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조주 선사는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 왜 조주 스님은 말이 없었는가?

조주 스님의 저구에 대해 본 납자가 평을 한다면, "조주 스님은 절대 밥을 굶지 않는다고 하겠다." 제방의 납자들이여, 조주 선사가 왜 입을 닫았는지 한번 일러보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눈앞의 일구(目前一句)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자네와 같지 않아."

問 如何是目前一句 師云 老僧不如你

선객들은 대개 선사가 한 마디 던지는 목전일구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많은 말을 싫어하고 조촐한 한 마디를 툭 던질 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선사들의 목전일구는 그만큼 매우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 저 앞에서 나온 330문 자가본의(自家本意)에 대한 질문에서 학승이 "무엇이 자가본의입니까(如何是自家本意)?"하고 묻는 말에 조주 스님은 "노승은 소 잡는 칼 따위는 쓰지 않아(老僧不用牛刀)."라고 한 마디 던졌는데, 이 목전일구는 사실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다. 옛 선사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았고, 또 자기의 얼굴에도 먹칠하지 않는 기막힌 한 마디이다. 도가 무르익는 납자라면 이 한 마디에 최후의 알을 깨고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번 학승은 목전일구에 대해 직접 물었다. 조주 스님 또한 대수롭지 않게 한 마디를 던졌는데, "나는 자네와 같지 않아." 라는 말이다. 언뜻 들으면 평범한 말 같지만, 여기서도 선적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들어난 뜻은 당연한 말이다. 질문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다르고, 선사와 객승이 다르고, 도의 경계가 다르고, 노승과 청년 승이 다르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이 속에 깊은 뜻이 있다. 길 조심해라, 밥 먹을 때 흘리지 마라, 상관이 되어도 겸손해라, 인간은 누구나 붓다이다, 문단속 잘해라 등등의 평범한 말들 속에도 은밀한 뜻이 있다. 납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18〉

삼학-①계학(戒學)

청정심으로 이타행하는 수행체계

계 · 정 · 혜 삼학(三學)은 대소승의 여러 불교종파마다 내용상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부처님이 설한 수행체계 분류법으로서의 권위에는 이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삼학의 체계가 불교의 독자적인 수행체계라는 점이다.

인도의 사상 속에 인간의 내면과 신체를 닦는 수행체계는 고대 인더스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존재했던 인도의 여러 종교단체들도 나름의 수행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유사한 점도 많아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불교의 삼학 체계는 다른 인도의 종교, 즉 외도(外道)들의 수행체계와 구분 짓는 불교만의 수행체계이다. 이는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성문지(聲聞地)' 등에 '불교에만 있고, 외도에게는 없는 수행법' 이라고 명기돼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자라면 삼학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삼학의 첫 번째인 계학을 살펴보기로 하자. 〈법구경(法句經)〉 '불타품제오게(佛陀品第五偈)' 에 '모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게송에서 말하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諸惡莫作], 선을 행하며[衆善奉行],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自淨其意]' 이 바로 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소승불교, 즉 부파불교에서 정의하는 계에서는 '악을 멈추는 계' 로써 지악계(止惡戒)를 들고 있다. 지악계는 크게 번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켜야할 유루계(有漏戒)와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지켜야할 무루계(無漏戒)로 나뉜다. 유루와 무루의 루(漏)는 마치 물이 새나오는 것처럼 번뇌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하며 유루는 이러한 번뇌가 있는 상태를, 무루는 번뇌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유루계는 세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이 지켜야할 세간적인 계이고, 무루계는 번뇌가 멸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지켜야할 출세간적인 계를 말한다.

여기서 유루계는 다시 욕계(欲界)에서 지켜야할 계와 색계(色界)에서 지켜야할 계로 나뉜다. 욕계는 욕망을 가진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말하며, 욕계에서 지켜야할 계는 다시 재가계와 출가계로 나뉜다. 재가계는 재가자들이 지켜야할 계로 오계와 팔재계(八齋戒)를 말하고, 출가계는 비구가 지켜야할 250계, 비구니가 지켜야할 348계, 사미 · 사미니가 지켜야할 10계, 정학녀(正學女)가 지켜야할 육법계를 말한다.

색계는 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세계로 감각적인 욕구는 사라졌지만, 육체 등과 같은 물질이 남아있는 세계를 말한다. 욕계에서 벗어나 색계에 머물기 위해서는 사선정(四禪定)을 닦아야 하는데, 색계에서 지켜야할 계가 바로 사선정 수행 중 지켜야할 계를 말한다. 이를 다른 말로 정공계(定共戒)라고도 한다.

대승불교 시대에 들어오면 계가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것만이 아닌 남을 위한 이타적인 면도 강조된다. 이를 삼취정계(三聚淨界)라고 한다. 삼취정계는 다시 섭률의계(攝律儀戒) · 섭선법계(攝善法戒) · 섭중생계(攝衆生戒)로 나뉜다. 이는 각각 악을 멈추는 지악문(止惡門), 선을 닦는 수선문(修善門), 선을 권하는 권선문(勸善門)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중 첫 번째 섭률의계는 부처님이 제정한 계를 지켜 그릇됨을 막고 일체의 악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10가지 무거운 계율[十重禁戒]과 48가지의 가벼운 계율[四十八輕戒]을 지켜, 일체의 악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섭선법계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며, 세 번째 섭중생계는 일체의 중생을 모두 받아들여 구제하는 것, 즉 자비심을 갖고 중생을 위해 전력하는 일체의 이타행위(利他行爲)를 말한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㉓

어떤 때는 장자가 보시한 훌륭한 법의를 입기도 합니다 〈맛지마 니카야 77〉

우리 사는 세상, 모두가 잘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모양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는 부유하다. 누군가 달라이라마 스님께 여쭈었다 한다. "이 세상에 경제적 양극화는 없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스님의 대답은 "없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양극화는 저 옛날,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아예 '두 개의 나라(two nations)' 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 그 심각함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게 된다.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불교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이 화두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제시해 두고 있었음을 나는 발견했다.

어느 때 부처님의 제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논쟁을 벌였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할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밥을 빌어야 한다는 주장과 부자들에게만 밥을 빌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전자의 입장은 가난한 자들에 복을 지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내세의 부유함을 기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후자의 입장은 가난한 자들에게 보시까지 하라는 것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니 부자에게만 밥을 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 다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부처님은 가난한 자, 부자를 구별하지 말고 차례대로 일곱 집만을 방문하여 밥을 빌어라고 판결하셨다. 이른바 칠가식(七家食)이다.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맛지마 니카야〉에서도 등장한다. 방랑수행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부처님이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 다섯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 "부처님은 어떤 법의라도 만족하며 어떤 법의라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나머지 네가지도 모두 이러한 두타행(頭陀行, 고행)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의라도 만족하며 어떤 법의라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하였음은 분명한 일일 터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어떤 때에는 장자가 보시한 훌륭한 법의를 입기도 합니다."(일아 편역,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154쪽) 장자(長者)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 그 부유함을 널리 나누고 베푸는 분을 높여서 부르는 존칭이다.

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방랑수행자들의 관점이 반드시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은 물론이다. "그러나" 라는 말씀은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법의라도 만족하며 어떤 법의라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러나 ---"라는 문맥



그림 · 박구원

인 것이다. 다만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하나의 고정관념(相)이 놓여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언제나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입장이 언제나 부자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진정한 수행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미리부터 어떤 사안이든지 언제나 하나의 입장(=어느 편의 입장)을 정해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부처님은 분소의(糞掃衣)와 같은 험한 옷도 입으셨지만, 어떤 때에는 장자가 보시하는 훌륭한 법의 역시 입으셨다. 물질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어느 한 편에만 고정되기를 거부하셨던 부처님의 크나큰 자유는 우리들에게도 어느 한편에만 고정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FB 동서양 소통·생태보존… '더 나은 미래' 결의

개회식, 세계불교도축제 문열다

30여국 불교지도자 22년만에 한국서 다시 만나

6월 12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WFB한국대회 조직위원장 진옥 스님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해 LED전광판으로 구성된 대웅전이 마련돼며 송광사·화엄사 스님들의 '산사의 새벽' 무대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또 WFB주제가 합창, 삼귀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의 고불문 낭독, 주제영상 상영, 환영사 및 축사 등이 이어졌다.

개막식에서 WFB한국대회 명예대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은 개회사에서 "WFB한국대회가 세계정신문화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원융무애의 자비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자타불이의 보살행으로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축사했다.

판 와나메티 세계불교도우의회 본부 회장은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에서 이번 불교도우의회를 열게 돼 특별하게 생각한다"며 "세계는 인권과 우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경남·전남 등 10개 지역 1000여 명의 불교연합합창단과 55명의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화음을 만들어내 참석한 이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개회식을 마치고 거북선 공원에서는 40여 개국 세계 어린이들과 다문화사회를 상징하는 등과 장엄물을 점등하는 축하행사도 개최됐다.

이에 앞서 첫날인 11일에는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환경포럼이 열렸다. 도법 스님과 태국 사마나 포풋 잔타세도 스님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환경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생태환경 보존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 토의했다. 노덕현 기자



개회식에서 WFB한국대회 명예대회장 자승 스님이 축사를 하고 있다.

세계불교도우의회 WFB 한국대회가 6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계 30여 개국 불교지도자들과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15일까지 그 화려한 일정을 이어갔다. 1990년 서울대회 이후 22년만에 열린 WFB 한국대회의 모습을 전한다. 여수=노덕현 기자

세계불교화두 다뤄진 포럼

여성출가·정교분리 문제 개선 등 발표

개회식을 마친 전세계 30여 개국 불교지도자들은 13일 디오션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불교사상을 통한 동서양의 소통'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교분리, 여성문제, 환경보존 등 세계불교계의 화두가 다뤄졌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미국 샌디에고 대 종교와신학 부교수로 샤카디타 불교여성국제협회를 설립하기도 하는 등 세계여성불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카르마 렉세소모 스님은 '현대사회와 불교' 발표에서 불교의 당면 문제로 여성차별을 지적했다. 세계불교계에서 여성이 승려로 인정받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 등 극소수다.

렉세소모 스님은 "불교는 이론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그 적용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차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렉세소모 스님은 "모든 여성들에게 평등한 수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성차별에 매달리는 태도는 불교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앙드레 빅토리아 미국 안티옥 대학 일본연구학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론적으로 전쟁을 후원한 스즈키 다이세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교분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 폴 데이비드 눔릭 교수가 '미국 역사 및 문화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포럼에서는 여성출가 등 현대불교계 문제점이 논의됐다.

고승수계법회 청정지계 다짐

무더운 날씨에도 일반 불자 3만명 동참

13일 세계고승수계대법회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자 3만여명이 모여 그 열기를 더해갔다.

WFB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를 맞아 여수 현장에서 한국과 세계 각국의 원로스님들이 3만 불자들에게 계를 내렸다.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 모인 3만여 명의 불자들은 한국의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을 비롯해 폼와치라야 스님 등 태국, 프랑스 등 전세계 고승들을 3사7증으로 모시고 불자들은 참회와 정진을 다짐했다.

수계법회 전계대화상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 갈마아사리에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교수아사리에 원로의원 도문 스님이 모셔졌다.

전 프랑스불교 협회장인 탐팔라웰라 담마라타나 스님, 태국 프라 폼와치라야 스님, 방글라데시 불교협회장 수다난다 마하테로 스님, 대만불교협회장 명광 스님, 티베트 불교 지도자 캄툴린포체, 몽골 따시초링사 주지 최질자브 담바자브 스님, 호주불교협회 이사 팃폭텐 스님도 3사 7증으로 참석했다.

육법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수계법사 등단, 참회진언, 오색 실 관정, 수계첩 전달, 석가모니불 정근이 진행됐다. 고산 스님의 법문에 이어 참석 대중들은 외국전계사인 태국왕 특사 프라 폼와치라야 스님의 선창에 따라 빨리어로 오계를 합송해 장엄을 더했다. 이어 수계자 손목에 오색실을 묶고 합장 후 참회진언을 염송하는 것으로 수계의식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수계 법회에는 3만명의 불자들이 모여 재가오계를 지킬 것을 발원했다.

문화행사 및 볼거리 다채로워

콘체르토 등 불교전통과 현대 음악·무용 접합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 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기간 동안 마련된 각 프로그램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은 인드라를 구현했다.

6월 13일 여수 디오션 호텔 글랜드볼룸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공연 '소리 수행 범패 콘체르토(concerto)'이 펼쳐졌다. 공연은 20명의 스님들이 찬불가와 오케스트라로 새롭게 편곡된 음악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범패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에는 나비춤, 법고춤 등 불교전통춤과 어린이 무용단의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흥국체육관에서는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특별기획초청 공연 '천년의 보물 팔만대장경' 음악회가 열렸다.

6월 14~15일 흥국체육관에서는 한국 뮤지컬계의 최고 제작진과 배우들이 대거 참여한 창작 뮤지컬 '카르마의 노래'가 첫 선을 보였다. 웅장한 음악과 특수 그래픽 영상이 결합해 화려한 무대연출을 선보인 이번 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도 6월 12~15일 디오션 호텔에서는 불교영화의 현실과 전망을 짚어보는 제1회 불교영화포럼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 불교영화의 현실과 전망' ▷불법 전파를 위한 수레로서의 영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009년 대만의 허 챠오린 감독이 제작한 '아제 아제 바라아제'가 개막작으로 선정돼 상영됐으며, '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무무관' 등 한·중·일 불교영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이은정 기자



전국 10개 지역 불자합창단은 한 목소리로 부처님을 예경·찬탄했다.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2012년 신제품 경전학습기

보고·듣고·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49재편, 시식·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중국어·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조계종 통합 종단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7〉자비실천

"자비없는 불교 없다" 생활 속 실천교육 필요

조계종은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한 이래 오늘날까지 조계종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다. 자비의 현대적 실천인 복지와 기부 문화도 지난 10여년 간 적지 않은 성과를 내왔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서 불교계 복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7가지 핵심과제의 마지막으로 '자비실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은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념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 가르침은 결국 깨달음과 자비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비실천'이 선행돼야 한다. 자비의 현대적 실천에는 복지와 기부가 존재한다. 불교계 근대적 복지는 일제 강점기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범어사는 개화기 당시 명정학교 개교 등 교육불사를 진행했으며, 현존하는 최고의 유치원인 강릉 금천유치원은 1923년 오대산 월정사가 운영을, 금강산 건봉사가 교육을, 유점사가 출자를 맡아 지어졌다. 故 양정묵 스님이 사재를 털어 1947년 개원한 대전 성덕보육원도 지금은 '대전 자혜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적이고 현대적인 사회 복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1990년대 이후다. 현재는 조계종에만 70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며, 753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이중 노인 복지관이 43.4%로 가장 많고, 영유아 복지시설(18.2%), 장애인 복지시설(10.4%), 아동?청소년복지시설(10.0%) 순으로 이어진다.

2008년에는 불교계 최초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이 출범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해오고 있다.

양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 위탁의 복지기관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불교계 사회복지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계 자원봉사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광하 작은 손길 대표는 불교가 복지를 통한 자비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 계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타종교들은 이미 복지관 위탁을 넘어 탈북자, 난민,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복지 계층을 개발하고 있다"며 "복지는 어렵고 고된 가시밭길이다. 국비 의존도가 높아서는 안된다. 불교계 복지 계층도 더욱 심층,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교평론에 특집에 기고한 '불교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불교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채워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수는 인적 자원 관리, 교육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조 교수는 "불교 사회복지계는 인적자원 개발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종사자다. 이들에 대한 전문성 관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며 "매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래 가능하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재 양성은 불교사회복지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사회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기부문화도 고민해봐야 할 과제다. 특히 불교에는 보시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나눔문화가 있다. 조계종이 설립한 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이하 동행)도 설립돼 적재 적소에 필요한 기금과 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자비실천을 위한 종단적 사업 역량이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반면 당면 과제도 있다. 출범 4년이 됐지만, 일반 불자들의 꾸준한 동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동행에 CMS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불자는 약 1천 2백여 명.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동행 역시 일반 불자들은 사부대중의 인식 개선을 꼽았다. 혜일 스님은 "부처님의 동체 대비사상이 항상 생활에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으며 김광하 대표는 "좀 더 어려운 곳에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이라고 봤다.

모두 사부대중의 인식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지난 3월 15일 열린논단에서 발표한 '자비 실천의 윤리교육적 접근'이라는 제하의 논문은 거시적이면서도 가장 실천적인 방안이다.

방 교수는 자비 실천이 깨달음과 수행의 차원을 넘어 윤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문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인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 교수는 "자비 실천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자비라는 큰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며 "자비 윤리학을 정립시키고 자비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정교한 틀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자비 포교의 구체적인 방안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비 윤리학은 현대사회에서 작동할 자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철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 영역과 생물학, 의학 등 자연과학 영역에서 다양하게 자비의 문제를 접근하면서 이를 통합할 수 잇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능인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계층 월동 준비를 위해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는 자비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비포교' 구체적 방안 창출
다양한 복지 계층 개발 필요
전문 인력 교육에도 신경써야
기부문화 확산위해 인식 개선
자비에 대한 학문적 접근 시급


혜일 스님


방영준 교수


김광하 대표

'통합종단 50주년 핵심과제' 연재를 마치며

"조계종 역사성 다시 생각하자"

최병헌 교수 '…역사상의 조계종'서 지적

대한불교조계종은 올해로 통합종단 5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큰 도전도 받았다. 조계종은 6월 7일 종단 제1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정화불사의 터널이 50년이 지났고, 개혁 종단이 열린지 18년이 지났지만 개혁과 변화는 여전히 종단적 숙제다.

지난해 조계종은 1년 내내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를 총결산하는 12월 대토론회에서는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중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우선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선종' 중심의 종파불교를 벗어던지고 현대에 맞는 회통불교로 새롭게 정립하자는 주장을 했다. 심지어는 종명에 대한 적합성도 거론했다. 이는 현대적 회통불교 정립은 종단운영 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많은 화제가 됐다.

한국불교역사 안에서 '조계종'이라는 종명은 현재까지 3번 나타났다. 첫 번째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창립한데 반발한 선승들이 자체적으로 조계종을 창종한 것이다. 당시 조계종은 조선 초까지 3백년을 유지했다.

두 번째 등장은 일제 강점기다. 1941년 전시동원체재라는 미명아래 출범돼 해방까지 4년 동안 등장한다. 해방 이후 '조선불교'로 종명 바뀌었다가 정화 유시가 시작된 1954년 조계종이 다시 등장한다.

조계종이라는 종명 자체가 동아시아 불교 종명 중 유일하다. 중국, 일본 불교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병헌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 한국학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불교역사상의 조계종'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조계종은 한국 선종의 주체적인 의식의 표현"이라며 "한국불교역사에서 조계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면에서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역사성과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다. 1962년 1월 문교부 장관의 종용으로 비구측 종정 하동산 스님과 대처측 종정 국성우 스님이 불교재건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선서문을 작성했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적극적 개입으로 비상종회 등을 거쳐 4월 11일 비구-대처승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탄생했다.

하지만 통합종단 안에서도 법정 공방 등 반목이 이어졌고, 결국 1970년 대처승들이 '한국불교 태고종'을 창종해 나가면서 문제가 마무리된다. 통합종단이 더 이상 통합종단이 아니게 된 것이다.

최 교수는 "통합종단은 불교계

통합종단이라지만 결국 분종
禪만 집중… 회통불교 어디로
종단적 역사의식 고민해야

분쟁을 교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위협에 못 이겨서 성립된 것이어서 언제든지 와해될 수 있었다"고 봤다.

조계종단 역대 종정 현황에 대한 문제도 있다. 1954년 불교 정화운동이 시작된 이래 1962년까지 비구측은 5대 종정이 추대됐다. 하지만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하면서 당시 추대된 효봉 스님을 초대 종정으로 확정해 정화 운동 당시 5명의 비구측 종정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현재의 조계종은 1962년 4월 11일 출범한 것으로 보아 그 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근본적인 의식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비구와 대처측 통합으로 시작된 통합종단. 하지만 대처측이 빠진 조계종의 반세기 역사를 통합종단으로 기산하는 것이 맞는 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신중일 기자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14)

룸비니 석주에 새겨진 아쇼까왕 불심

아쇼까왕 룸비니에 4개의 스투파, 석주 조성

답사일행을 태운 버스가 인도에서 네팔로 건너가는 국경 도시인 소나울리(Sonauli)에서 멈춘다. 오후 4시 55분이다. 네팔 정부의 입국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급행료를 지불했는데 지금은 1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통과된다고 한다. 국경 도시답게 상점이 즐비하다. 주로 네팔의 보따리장사꾼들이 인도의 물품들을 사가는 모양이다.

국경을 통과하고 나니 날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다. 예약한 숙소는 네팔 쪽에 있다. 네팔 거리에도 예전과 다르게 숙박업소들이 많다. 룸비니를 찾는 순례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증거다.

아쇼까왕은 재위 20년에 룸비니를 순례했다고 한다. 재위 10년에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부터 순례를 시작하여 10년 만에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를 찾은 셈이었다. 현장은 〈대당서역기〉에 룸비니의 아쇼까왕 석주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사천왕이 태자를 안았던 스투파 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돌기둥이 있다. 위에는 마상(馬像)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쇼까왕이 세운 것이다. 나중에 악룡의 벼락같은 큰소리에 그 기둥은 가운데쯤에서 부러져 땅으로 넘어졌다.'

악룡에 의해 석주가 부러졌다는 것인데 외도를 악룡으로 표현했는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벼락에 맞아 파괴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아쇼까왕이 룸비니를 찾아와 부처님의 탄생을 경배하여 4개의 스투파와 석주를 조성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당시 룸비니 지역은 제법 큰 마을이 있었던 것 같다. 스투파와 석주는 상당한 인력과 자금, 그리고 기술이 동원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그렇다.

그러나 룸비니는 12세기 전후로 번성했던 네팔의 나가(Naga)왕조 이후 역사의 저편으로 차츰 실종해 버린다. 마을은 사라지고 울창한 사라나무들이 룸비니를 감춰버렸던 것이다. 아쇼까왕이 조성한 스투파나 석주도 숲속에 방치돼 오다가 그것들이 발견된 때는 19세기 후반 무렵이었다. 독일의 고고학자 휘러가 1896년에 룸비니를 지역을 탐사하다가 스투파와 승원 터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마우리아왕조 사리용기 발굴된 마야부인사원

룸비니의 날씨도 인도 북부 비하르주와 대동소이하다. 낮과 밤의 일교차 때문에 아침 한때는 안개의 시간이다. 부처님이 태어난 땅이어서인지 룸비니 안개는 왠지 포근하다. 어머니의 품처럼 모성애가 느껴진다. 답사일행은 한국절인 대성석가사로 먼저 가 참배한다. 절은 5년 전에 하룻밤 머문 적이 있어 낯설지가 않다. 당시에는 법당의 골조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참배할 수 있을 정도로 마무리돼 가고 있는 느낌이다.

답사일행은 법당에 들어 삼배하고 룸비니 참배의 미를 되새겨본다.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화두 삼아 명상해 보는 것이다. 현장은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모습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부축도 받지 않고 사방으로 일곱 걸음씩 간 다음에 스스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도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생은 다했다. 이것이 최후의 생이며 앞으로는 윤회전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본생경〉에는 부처님의 원력까지 나타낸 탄생게가 보인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엄하도다.
삼계가 모두 고통에 헤매나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天上天下唯我獨尊 三界皆苦我當安之

일행은 석가사 스님이 차를 권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룸비니를 참배하고 싶어 서두른다. 안개는 여전히 대지의 입김처럼 일행을 감싸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움직인 순례자들이 안개 속에서 유영하듯 오가고 있다. 이윽고 일행은 마야부인사원으로 들어가 발굴 현장을 살펴본다. 30여 년 전에 마우리아왕조 때 만든 사리용기가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다른 장소로 옮겨가 보존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네팔의 나가왕조 때, 그러니까 13세기 초에 말라왕이 조성했다는 탄생불 조각은 다행히 한쪽에 전시하고 있다.

마야부인사원 바로 뒤편에 아기부처님을 목욕시켰던 싯다르타연못이 있다. 짐작하건데 현장이 다음과 같이 기록한 연못이 아닐까 싶다.

아쇼까왕이 룸비니에 세운 석주
"위대한 분의 탄생에 경배" 기록
마을에는 조세 면제 등 예우도
악룡으로 묘사된 외도에게 파손

'화살샘(箭泉)에서 동북쪽으로 8, 90리가면 룸비니 숲에 이른다. 이곳에는 석종(사캬족)들이 목욕하던 연못이 있다. 물은 맑아 거울과 같고 주변에 갖가지 꽃이 피었으며 그 북쪽으로 스무 걸음 남짓 되는 곳에 무우화수(無憂花樹)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한때는 우물로 사용했던 것도 같다. 법현은 〈불국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마야부인이 세욕(洗浴)한 못은 지금도 중승(衆僧)이 항상 그 물을 떠서 마신다.'

무우수 그늘 법당서 수행하는 父子 스님

마침내 일행은 아쇼까왕 석주 앞으로 가 안내하는 인도청년에게 설명을 듣는다. 현재 석주의 높이는 약 7.2미터라고 하며 지면으로부터 3.3미터 지점에 새겨진 명문이 아쇼까왕 비문이라고 한다. 비문은 인도의 옛 글자이며 다섯 줄로 돼 있다.

'많은 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야다시(Piyadasi 아쇼까왕의 다른 이름)왕은 즉위한 지 20년이 지나 친히 이곳을 찾아 참배하였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로 말의 형상을 만들고 석주를 세우도록 했다. 이곳에서 위대한 분이 탄생한 바 경배키 위한 것이다. 룸비니마을은 조세를 면제하고 생산물의 8분의 1만 징수케 한다.'

싯다르타연못 건너편에 있는 고목이 현장이 말한 무우화수일 것이다. 마야부인이 아기부처님을 아무 고통 없이 낳는 순간 팔을 들어 올려서 잡았던 그 나무이다. 그래서 무우수라고 하는데 네팔 스님들이 그늘에 앉아 수행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 중에 내가 아는 비베깐난다 스님이 있을까 싶어 가본다. 내가 비베깐난다를 만난 것은 10여 년 전이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부처님은 왜 마야부인의 옆구리로 태어났는가?'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라문은 신의 입에서, 크샤트리아는 옆구리로, 바이샤는 배에서,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납니다."

나중에 힌두 사두에게 더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 달랐다. 어쨌든 부처님 탄생은 힌두 설화와 결합돼 있었다. 즉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은 아트만(영혼)의 입에서 태어나 신의 전달자가 되고, 크샤트리아는 아트만의 팔뚝에서 태어나 모든 이의 보호자가 되며, 바이샤는 아트만의 배에서 태어나 모든 이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며, 수드라는 아트만의 발에서 태어나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이의 종복이 된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를 처음 만난 지 6년 후에 갔을 때도 그는 무우수 아래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만난다면 세 번째인 셈이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비베깐난다는 보이지 않고 낯선 수행자들만 앉아 있다. 승복을 입은 수행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비베깐난다를 묻자 그들 무리 중에 끼어 있던 20대 초반의 청년을 소개해 준다. 비베깐난다의 조카인데 아직은 승복을 입지 않은 행자라고 한다. 그 청년이 비베깐난다는 사원 일을 보느라고 오늘은 늦게 나온다고 알려준다. 대신 비베깐난다의 아버지를 소개해 준다. 그러고 보니 그의 아버지도 스님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스님이고, 조카까지 스님이 되려고 하는 불심이 깊은 집안이다.

일행은 각자 흩어져 좌선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으려니 문득 비베깐난다의 말이 떠오른다.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기운이 가득한 룸비니에서 수행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룸비니의 어원인 '룸브'는 고통이란 뜻이라고 한다. 마야부인의 나이 마흔쯤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으니 순산은 아니었을 터이다. 그런데도 경전은 고통이 없었다고 하고 마야부인이 잡았던 나무 이름을 무우수라고 하고 있다. 중생계에서는 고통과 행복이 반대개념이지만 분별없이 받아들이는 부처의 경지에서는 하나인 것일까. 나는 또 다시 망상을 피우고 있다. 망상을 피우는 나는 누구인고?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룸비니에 세운 아쇼까왕 석주. 석주에는 "위대한 분의 탄생을 경배드린다"라고 새겨 있다. 아쇼까왕의 불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야부인사원과 싯다르타연못〈사진 위〉과 발굴이 진행 중인 마야부인사원〈사진 아래〉. 사원에서는 마우리아왕조의 사리용기가 발굴되기도 했다.



마야부인사원 안의 탄생불 조각. 13세기 초 나가왕조 말라왕이 조성했다.

2013년 한지·탁상 달력 출시

보리심(한지)
•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63㎝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5월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행복한 하루(탁상용)
•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19㎝ • 매수 : 14장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입니다.




숫자판


1월


2월


3월


4월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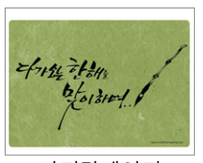

6월


7월


8월


9월


조견표


마지막페이지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 남자/여자/위패

인쇄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 남자/여자/위패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국민은행:9011-554-2988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고요히 흐르는 임진강 속으로 호국의 달이…

③ '평화'의 님을 찾아 간 DMZ

자전거로 달리는 평화누리길

자전거를 타고 6월의 신록 속으로 들어갑니다. 행자(行者)의 자전거는 경기도 파주 금촌역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긴 가뭄에 목이 타는 6월입니다. 신록은 때가 되어 저토록 푸른데 호국보훈의 달을 기리는 행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애국가를 잘 모르고, 60여 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색깔론'이니 '메카시즘'이니 떠들고 있습니다.

선종(禪宗)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6월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 이 나라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한 번 쯤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 아닐 터이니 말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의 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행자는 자전거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평화누리길'의 DMZ 인근을 달리고 싶었습니다.

화석정, 중세이후 '전쟁과 평화'의 역사

통일로의 끝자락 여우고개에서 임진각으로 가는 직진 코스를 비켜나 오른쪽 37번 국도로 들어섭니다. 도로는 한산하여 차들이 달리는 속도에 겁이 덜컹 나기도 합니다. 임진강을 끼고 달리는 이 국도의 파주 연천 구간은 근래에 확장 포장되어 고속도로를 방불케 합니다. 그러나 37번 국도가 경남 거창군에서 시작되어 남북 연장길이 482Km에 이르는 도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모든 길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 중간에서 시작과 끝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니 인생행로 또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화석정(花石亭).

임진나루 인근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을 한눈에 조망하는 이 정자는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 선생의 체온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정면 3칸 측면 2 칸의 화석정(경기도유형문화재 제61호)은 율곡이 어릴 때 놀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가 8세 때 지었다는 시 한 수가 바위에 새겨져 정자 옆에 서 있습니다.

화석정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탔고 다시 지어졌다가 6.25 한국전쟁 때 다시 화마에 먹혔습니다. 지금의 화석정은 1966년 지역 유림이 다시 짓고 1973년 정부에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박정희 前 대통령이 쓴 현판 글씨가 이 정자의 고된 역사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나이가 560살이나 된 두 그루의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안에 들어앉은 화석정의 역사는 한반도의 중세 이후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율곡,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앞 뒤 분간 못하는 당쟁과 무사안일이었습니다.

화석정 기둥에 기대서서 유유히 휘도는 임진강을 내려다봅니다. 햇살이 튕겨 오르는 강물 그 안쪽에는 푸른 녹음이 담겨 있습니다. 강 건너 평지에서는 군인들이 각종 포를 설치해 놓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정에서 되새기는 율곡
'10만 양병설' 외면한 당쟁
오늘의 안보불감증과 같아


한 때 백화점 분점이 들어설 정도로 규모가 큰 포구였던 고랑포. 물은 깊고 푸르게 흐르는데 작은 배 한척이 쓸쓸함을 더한다. 이 포구 인근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440여 년 전, '10만 양병설'이 먹히지 않았던 그 때의 상황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겪고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 오늘날의 '안보불감증'을 대비(對比)해 봅니다. 율곡의 집안이 대대로 아끼던 이 정자가 한 밤중에 도강(渡江) 하는 임금의 몽진행차를 밝히기 위해 불에 타야 했다는 이야기는 과거가 아닌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000년 전 경순왕이 생각 못했던 설움

국도를 벗어나 두지리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목을 축이고 자전거는 장남교를 건넙니다. 임진강 푸른 물을 건너 인삼밭이 즐비한 마을의 안쪽 길을 달립니다. 등줄기에 땀이 차오르지만 가끔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은 그지없이 상쾌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시간을 달리는 자전거의 목적지는 1000여 년 전 아득한 과거를 향합니다.


DMZ 깊은 안 쪽 마을 석장리 미술관에서는 6월 한 달 '민통선 예술제'가 열린다. 전시된 작품들이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웅변하고 있다.



'평화누리길'을 포함하는 DMZ 지역은 길이 아니면 가지 못한다.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를 실감케 하는 표지판을 만나면 가슴이 아려온다.

신라 경순왕릉(敬順王陵).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일구어 냈던 신라. 그 푸른 하늘의 평화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지켜졌습니다. 삼국 시대의 변방은 늘 싸움판이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로 그 균형이 깨지고 통일국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변방은 시끄러웠고 병장기의 힘이 핍박과 평화의 울타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경순왕(?~935)은 신라의 제56대 왕입니다. 선왕 경애왕이 후백제에 인질로 잡혀가서 자결해 버리자 견훤에 의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난폭한 견훤보다는 다소 온건한 왕건에게 항복한 경순왕. 새 왕조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벼슬을 받고 말년을 보냈던 그는 이역만리에서 한 많은 목숨을 거두었고, 죽어서도 선대왕들이 묻힌 경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돌아가면 옛 신라의 민심이 요동칠 것을 염려한 고려 왕실에 의해 개성 100리 안쪽 변두리 임진강 고랑포구 옆 언덕에 묻힌 겁니다. 이름이 왕릉이건만, 800여 년이나 잊어진 무덤으로 전해 왔고 1747년(조선 영조 23)에 비를 세우고 능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왕릉이 조선의 왕릉 양식을 따라 조성되는 모순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국가 사적 제244호인 경순왕 능역은 3967㎡입니다. 그리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신라 마지막 왕의 능역은 철책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끝내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왕,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고 항복으로 불안을 극복해야 했던 경순왕. 죽어서 1000년 뒤에도 분단으로 대치한 병장기 속 철책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신세를 꿈에라도 예견했겠습니까?

숭의전, 고려와 조선의 태조가 만난 곳

다시 자전거는 임진강 물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아미천교를 지나고 'DMZ 생수' 공장도 지납니다. 가문 밭에서는 흙먼지가 폴폴 날리지만 김매는 아낙들의 등 너머로 얕은 산들이 정겹습니다.

석장천을 따라 석장리 안쪽끝자락에 위치한 조각공원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민통선 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원 가득 들어 선 조각품과 설치미술품들은 단절의 고난과 분단의 아픔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석장리를 나와 백학 저수지를 오른쪽에 두고 달리다가 숭의전 표지판을 따라 갑니다. 어느새 정오가 넘은 한 낮이고 약간 오르막길이라 힘이 들지만, 오른 만큼 내려가는 것이 길이므로 견뎌 봅니다. 그러고 보니 기어를 조여 올리고 풀어 내리기를 반복하며 길에 적응하는 자전거는 어느새 내 몸이 되었습니다.

숭의전(崇義殿).

조선조가 고려조의 왕과 공신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래는 고려 태조 왕건의 원찰인 앙암사(仰巖寺)가 있던 자리에 조선의 태조가 재위 6년째 되던 해(1397년)에 왕건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지은 것이 시초입니다. 한 왕조의 창업을 이룬 위인들이 500여 년의 세월을 건너 만났으니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는 곳이 숭의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사적 제223호인 숭의전은 야트막한 언덕위에 있는데 여기도 570살 먹은 느티나무 두 그루가 전각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려 태조, 현종, 문종, 원종 등 4왕의 위패가 정전에 모셔져 있고 그 옆 배신청(陪臣廳)에는 복지겸, 홍유, 신숭겸, 유금필, 배현경,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김취려, 조충, 김방경, 안우, 이방실, 김득배, 정몽주 등 16명의 고려조 충신들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제례는 개성왕씨종친회와 숭의전 보존회가 주관하여 봄과 가을에 봉행된다고 합니다.

망국의 왕에 모셔진 곳이지만 숭의전과 경순왕릉에서의 느낌은 아주 다릅니다. 시절을 놓치지 않고 격을 갖춘 예우와 시절도 격도 다 놓쳐버린 예우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수 십 억년 시간이 모여 사는 곳

학곡리 임진강 뚝방길을 달리다가 백제건국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돌무지무덤(경기도 기념물 제212호)과 청동기시대의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경기도 기념물 제158호)을 만납니다. 물 건너는 화산이 폭발하며 나온 용암이 식어서 형성된 단애(斷崖)인 주상절리(柱狀絶理)가 병풍처럼 강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임진강의 주상절리는 중국대륙에서 뻗어 나온 선캄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류에 해당하는데 생성연대는 '탄소연대측정기'로도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푸짐한 햇살 속 푸른 갈댓잎과 강물이 하나로 흐르고, 건너편 수십 억 년 시간의 기둥이 발을 물에 담그고 6월의 더위를 식하고 있으니 평화라는 이름의 님은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劫 밖의 노래 끝나니 소쩍새가 우네

경허 스님 수행 일화

㉜제자 만공 스님 추모송



그림 · 박구원 -

경허법사영찬 (추모송)

빈 거울에는 본래 거울조차 없고,
소를 깨달음에 일찍이 소도 아니로다.
거울도 없고 소도 아닌 곳곳마다
산 눈 자유로이 술과 다못 색이로다.

鏡虛本無鏡 惺牛曾非牛
非無處處路 活眼酒興色

선함과 악함이 부처와 호항이보다 더하신 분

바로 경허 선사이시다.

돌아가셨으니 어느 곳을 향해 떠나셨는가

술에 취하여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

善惡過虎佛
是鏡虛禪師
遷化向甚麼處去
酒醉花面臥

만공 스님이 시에서 '술에 취해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는 구절은 스승 경허 스님의 변방을 떠도는 고독한 삶을 함축하고 있다. 술은 스스로를 이류중행에 몰아놓기 위해 취하는 방편이며 꽃밭은 스스로 선택한 가시밭인 것이다.

제자 혜월 스님과 만공 스님은 1913년 7월 25일 갑산 난덕산에서 경허 스님의 시신을 운구해 다비에 모셨다. 당시 경허 스님의 저고리 속에는 게송이 들어있었다고 전한다.

삼수갑산 깊은 골에
속인도 아니요 중도 아닌 송경허라
천리 고향 인편이 없어
세상 떠난 슬픈 소식은 흰 구름에 부치노라

三水甲山長谷裡
非俗非僧宋鏡虛
故鄕千里無人便
別世悲報付白雲

제자 만공 스님은 스승 경허 스님의 법은을 생각하며 그와 함께 산하를 떠돌던 날들을 생각하며 스승의 잔해를 불태웠다. 다비의 불을 붙이면서 만공 스님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가슴에 남은 노래 한 소설을 불렀다.

'함북 갑신군 웅이면 난덕산 아래에서 돌아가신 법사스님의 다비 때 부르다'라는 긴 제목을 가진 게송이다.

삼수갑산서 성속 초월
인편 없어 흰구름에 소식 전해
그 뜨거운 일성 지금도 전해져

시비에 물들지 않는 바람같은 나그네가 있어 난덕한 아래서 겁외가를 그쳤도다

나귀의 일도, 말의 일도 다 재가 돼 스러지니 날은 이미 저물고 먹지도 못하는 소쩍새가 '솟적다' 우네

舊來是非如如客
難德山止劫外歌
驢馬燒盡是暮日
不食杜鵑恨小鼎

만공 스님의 게송처럼 나귀의 일도, 말의 일도 다 재가 돼 스러지고 날은 이미 저물었다. 시비에 물들지 않는 바람같은 나그네가 영원한 겁(劫) 바깥에서 부르던 노래도 이미 끝났다.

다만 먹지도 못하는 소쩍새의 울음소리 속에서 경허 스님은 술에 취해 꽃밭 속에 누운 것이다.

경허 스님은 그가 떠돌던 고원의 소쩍새 울음 소리를 들으며 깨달음의 회랑(回廊)에 영원히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남기고 본원청정불(本源淸淨佛)의 세계로 떠났다. 그리고 지금 현대 한국 선의 회랑에는 여전히 그의 크나큰 웃음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경허 스님은 한국 선불교 중흥의 뜨거운 불을 당긴 존재다. 경허 스님이 깨부순 불교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통해 한국불교는 다시 생성됐다. 경허 스님 문하에서 배출된 고승들로 현대 한국불교는 비로소 그 목소리를 가지게 됐다. **(경허 선사 수행 일화를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님의 생생한 法香, 아직도 우리 곁에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추모 다례재 봉행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이 6월 14일 열린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다례재에서 스님의 행장을 봉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불교중흥조 경허 스님의 열반 100주년을 기리기 위한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열반 100주년 다례 봉행위원회와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지운)는 6월 14일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열반 100주년 다례재를 열고 경허 스님의 선업과 법향을 추모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경허 선사의 선풍진작은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심인법이 내려오는 원동력"이라며 "작금에 세계만방에 간화선법을 떨치고 있으니 그 깊은 은혜가 사해오호에 가득하다"고 경허 스님의 업적을 찬탄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경허 스님은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수행 정진력과 동체대비 실천, 무장무애한 대자유인의 삶을 가르쳤다"며 "자성과 쇄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스님의 열반 100주기를 맞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자리가 우리가 가야할 길을 새롭게 모색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도들을 대표해 나온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경허 스님의 선업을 기리기 위해 사부대중이 초발심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사가 가신지 10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찬연했던 무심도인의 본모습을 진실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경허 스님이 화광동진의 정신으로 한국불교와 중생에게 정법안장의 심인을 전했듯이 오늘 이 자리도 불조의 참 뜻을 실천하기 위한 결사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다례재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장 지원,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삼귀의, 반야심경, 행장소개, 추도사, 청법게, 법어, 종사영반 등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오는 9월 수덕사 근역성보관에서 〈지심귀명례-念弓〉 특별전을, 10월에는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정본 〈경허집〉발간도 추진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방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New 꽃과 나비

원기둥나비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차 한잔 마시면서도 삶의 고마움 누려야”

서양원 한국제다 회장 부부

“자그마하게 가내공업처럼 공장을 할 때 법정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영감님이 키가 훤칠한 스님이 와서 차 이모저모를 묻고 가시더라고 그래요. 그땐 법정 스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 뒤에 스님과 목포상고 동창인 전남대 박광순 교수가 차를 좋아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셔서 만나러 가자면서 스님께 기별을 드렸더니, ‘먼데까지 올 게 뭐가 있냐 내가 가겠다.’며 오셨어요. 저는 그때 법정 스님께 처음 인사드렸습니다. 다들 스님한테 가까이 가면 베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어렵다는데, 저는 처음 뵈었을 때부터 정다운 스님으로 보이더만요.”

부처끼리는 서로 알아본다는데. 벙긋 웃는 길상화 김판인 보살(77), 백제서산마애삼존불을 쏙 빼 닮았다. 백제의 미소를 닮아 별호가 백제보살이라는 길상화 보살이 해주는 밥을 먹지 못한 사람은 차인(茶人)이 아니라는 말이 돌만큼 둘레 사람들에게 많은 공양을 해드렸다. “제가 밥을 많이 했어요. 요 앞길이 원래 저희 땅이었어요. 그때는 마당이 굉장히 넓어서 ‘차의 날’ 행사나 광주에서 하는 행사를 여러 차례 치렀습니다. 스님이 광주에 오시면 제가 꼭 공

차 만드는 이 찾아 나선 법정 스님
다들 베일 것 같은 느낌 받는다는데,
백제보살에겐 정다운 스님으로 보여
공양해 드리면 “다음엔 콩국수를…”

양을 해드렸어요. 처음에 잘해드리려고 뭘 좀 차려드렸더니 ‘차려주셨으니 먹기는 먹는데 다음에는 국수를 해주시오.’ 그러세요. ‘국수를 어떻게 해요?’ 여쭸더니 잣을 조금 넣고 콩국수를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콩국수 말고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을까? “다 잘 드시는데 김치에 마늘을 조금만 넣어도 귀신 같이 아시더만요. 오신다고 그러면 김치도 미리 담가놓곤 했어요. 팥죽을 아주 잘 잡수시는데 조금 덜 달면 더 달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달면 달다고 그러시고 식성이 조금 까다로우세요. 몇 번 겪다보니까 스님 식성을 알아가지고 길상화 보살이 해주는 음식은 잔소리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 번은 화순 사평에 있는 ‘데사리(다슬기) 수제비를 먹으러 갈까?’ 그러시기에 제가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사평에 가서 고동 삶은 것을 사다가 원체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말차를 넣어서 반죽을 해서 푸른색을 내고, 홍차를 조금 넣어서 붉은색을 내고, 하얀색하고 삼색수제비를 했더니 ‘하, 재주가 좋다고’ 그러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서양원 한국제다 회장(82)과 부인 길상화 김판인 보살(77). 서산 마애삼존불 미소를 닮아 별호가 ‘백제보살’인 그는 법정 스님께 잣넣은 콩국수와 삼색 다슬기 수제비를 해드렸더니 맛있게 드셨다면서 생전의 스님을 그리워 했다.

광주에서 베토벤음악감상실을 하는 이정옥 사장을 따라 불일암에 처음 갔다는 백제보살. “불일암에도 여러 번 가서 자고 스님 따라서 꽃구경을 많이 다녔습니다. 연꽃도 맞으러 가고, 매화가 필 때 다니고, 다회도 하고, 미황사도 저희가 가자고 말씀드려서 여러 차례 갔습니다. 스님이 강원도 가신 뒤로 좀 드문드문해졌지만 꽃을 보러 스님과 광양으로 해남으로 정채봉 선생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장익 주교님과도 여러 번 다니고, 류시화씨하고도 몇 번 같이 다녔고.”

무남독녀인 백제보살은 지난해 94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오래 모셨다. 가끔 절에 다니던 분이 천주교에 가면 장례를 잘 치러준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성당에 다녔다.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가서 교리 공부를 여섯 달을 하고나서 영세를 받기 전날, 아무래도 절에 가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여기서 무등산으로 쭉 올라가다보면 문빈정사가 있고 더 올라가면 증심사,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약사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가 보드만요. 아래 두 절에 들려 마당도 둘러보고 법당에도 가보곤 했는데도 스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약사암에 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니까 얼른 봐도 불자가 아닌 줄 알았는지 스님이 이리 와서 쉬

서산마애불 빼어 닮은 부인 ‘백제보살’
햇차 보내드리면 꼭 편지로 인사
“맛있다…조금 덜 볶았으면” 품평도
서양원 회장 차 만들때 스님의견 유념

었다 가라면서 절에 다니지 않는 보살이냐고 물어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절에 다녀보시오. 보살님은 꼭 보살상이라 절허고 잘 맞겄습니다.’ 종일 스님이라고 주지스님이었어요. 그 말이 좋았던가, 그 절을 다니게 됐어요.” 그때가 1986년. 그곳에 어린티를 갓 벗은 고운 스님이 있었는데 지금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다. “해인사에서 왔다는 곱고 예쁜 스님인데 목소리가 창창한 스님이 입시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딸이 다섯이나 되지만 입시기도라는 걸 해 본 적이 없는데, 마침 아들이 고 3이어서 입시기도를 부쳤어요. 우리 아들이 동국대학교 무역학과를 꼭 가고 싶어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성적이 안 된다면서 원서를 써주지 않아요. 기어이 써달라니까 담임선생이 재수를 해야 할 거라며 마지못해 써주었어요. 열아홉 명이 입시기도를 올렸는데, 스님이 어찌나 지성으로 기도를 했던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저희들이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 인연으로 세월이 오래 지난 지금도 금강 스님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한다. 이 말씀 끝에 전설 같은 미황사 기우제가 떠올랐다. 금강 스님이 지게 스님이라 불리며 절을 다듬던 1992년. 가뭄이 들자 우르르 미황사로 몰려온 마을사람들은 30년 전 가뭄이 심했을 때 괘불부처님을 모시고 기우제를 지내고 나서 장대비를 퍼부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강 스님에게 “스님! 기우제 좀 지내주십시오.”하고 매달렸다. 그러나 30년 전 미처 장대비를 피하지 못해 배접이 떨어져나가 모시밖에 남지 않은 괘불탱화를 괘불대에 걸 수 없어 대웅전 앞마당에 펼쳤다. 그때는 미황사 중창 불사가 막 시작될 때라 지금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마당에 높이 12m 폭 5m나 되는 괘불탱화를 가슴까지 펴니 마당 반이 차버려 어쩔 수 없이 그만큼만 펴놓고 기우제를 올리고 두 시간쯤 지났을까? 억수같은 비가 쏟아졌다. 나흘 동안이나 줄기차게.

백제보살과 부군 서양원 회장(82)은 2009년 법정 스님이 제주도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뵈었다. 내외분을 맞은 법정 스님은 여느 때처럼 한국제다 차는 봄에 마시나 가을·겨울에 마시나 차 맛이 늘 똑같다. 봄 차는 누가 만들어도 맛있고, 발뒤꿈치로 비벼도 맛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꾸준히 한 맛을 유지하는 차는 서사장이 만든 차뿐이라며 처사님하고 보살님을 닮아 변함이 없다고 칭찬을 했다. “법정 스님은 꽤 여러 해 동안 햇차가 나오면 꼭 백만 원어치씩 사셨어요. 한 해 내내 두고 드시겠다고. 그런데 아프시면서 겨를이 없으신가. 거르셨어요.” 한국제다 차는 저장고에 넣어뒀다가 그때그때 한 번 더 덖어 내놓으니까. 이른 봄 2월이나 3월에 한국제다 차를 마시는 사람은 벌써 햇차가 나왔느냐며 놀란다. “저희는 햇차를 화개나 보성처럼 빨리 만들지 못합니다. 너무 일찍 만들면 맛이 덜해 조금 키워서 만드니까.” 절대미감絶對美感뿐 아니라 절대미감絶對味感도 가지고 계셨던 법정 스님은 햇차를 받고 잘 받았다는 인사를 전화로 건넨 적이 한 번도 없다. 꼭 편지로 “맛있다. 또는 조금 차를 덜 볶으면 좋겠다.”고 콕 짚어서 말씀했다. “우리 집 양반은 유념을 강조해요. 많이 비벼야 차가 침출이 되어서 빛깔이 잘 나오고 맛도 좋고, 찻잎에 있는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가 있다고. 행여 찻잎이 깨질까봐 살살 비비면 빛깔이 진하지 않고 노라니 맹물 같아요. 그것은 아니다 그거여. 목욕만 시켜가지고 마실 거냐? 우리 아들이랑 직원들이 우리도 다른 데 차 같이 많이 비비지 말고 이파리를 많이 살려놓자고 해마다 그래요. 조금만 비벼서 내놓으면 성글어서 같은 양이라도 부피가 커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맛이 나질 않아. 맛이 없어요. 그걸 아시는 법정 스님은 한국제다 차가 으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햇차가 나오면 가장 먼저 스님께 보내드렸어요.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한테 공양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햇차가 나오면 가장 먼저 길상사와 불일암으로 보냅니다.”

법정 스님은 1997년 6월 7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광주모임 탄생 법문 끝자락에 세계에 내로라하는 차와 견줬을 때 한국제다 감로차가 으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향藝鄕인 빛고을 광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요즘 불자님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님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각권 10,000원
☎ 031-534-3373

행복의 파랑새는 내 안에 있다
무한한 불성의 힘, 믿고 깨달아 쓰자!
자기를 비워 세상 전부를 얻는 비움과 나눔의 지혜!
시비 · 분별 없는 평상심으로 살면 일상의 삶이 도道이다
참선과 금강경 독송의 힘으로 풀어낸 더불어 행복한 성공 전략!

‘치과의사’가 들려주는
선禪을 통한 인생경영
최우환 지음 | 비움과소통 펴냄
국판 양장 | 컬러 | 280쪽 | 14,0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중

생활선으로 풀어낸 참된 자기계발과 성공학
마음공부와 인생경영이란 두 가지 과제를 선(禪)으로 풀어낸 자기계발서. 저자(최우환 궁플란트치과 대표원장)가 조석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좌선 하며, 보살행을 실천한 힘을 바탕으로 바쁜 치과의사 생활을 하며 살아온 성공 노하우를 불교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분주한 현대인들의 마음에 삶의 여유와 잔잔한 행복, 참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엮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해 약령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 약령사 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령 사 주지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차를 좋아하신 법정 스님은 차 만드는 곳을 찾아 다니기도 했다. 한국제다 서양원 회장은 "스님에게 제다 방법과 차유통구조를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서양원 회장과 길상화 보살이 장성, 영암, 해남 등 세 곳에서 따온 차잎을 섞으며 흐뭇해 하고 있다. 차밭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한결같은 맛을 내기 위한 비결이다.

주는 수식어가 발달한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운치를 누릴 줄 아는 멋이 있는 고장이에요. 기를 쓰고 벌려고 들지 않고 어지간하면 즐기고, 인정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 한국사람 특성인데, 그동안 좋은 점이 가려져있었다니까요. 게다가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좋은 차가 광주에서 나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녹차뿐 아니라 중국 · 일본차를 두루 마셔봤지만, 한국제다 감로차 맛을 느낄 수 없어요. 차 맛을 잘 아는 일본, 중국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에요. 한국제다 감로차는 세계적이에요. 이 좋은 차가 이 고장에서 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요. 그 까닭은 이곳 사람들 혀 감각이 섬세해서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감로를 많이 마시면 장수해요. 본의 아니게 차 선전을 하는데, 감로甘露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암리타amrita, 영생불사永生不死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차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삶에 고마움을 느끼고 누려야 합니다. 광주는 한갓 이름에 지나지 않아요. 그 안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바로 실체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광주는 이름 그대로 빛고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가 진정한 예향을 이루려면 삶이 맑고 향기로워져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인연으로 광주가 이름 그대로 영원히 빛나는 고을이 되기를 빌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차를 향한 한국제다 내외분 정성이 얼마나 미더웠으면 많은 대중이 모인 법석에서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을까.

법정 스님 49재는 송광사뿐 아니라 해남 미황사에서도 치렀다. 병상에서 스님을 모셨던 분들이 넌지시 부탁을 했기 때문이다. "송광사로 가려고 차비를 하는데 하루 전날 미황사에서도 스님 재를 지낸다는 연락이 와서 갔어요. 스님이 좋아하셨다는 화과자하고, 능이버섯국과 아보카도라고 시커멓게 생긴 과일을 한 바구니 올렸어요. 저도 스님이 좋아하시던 차를 올려서 조촐했어요."

말씀이 무르익을 무렵 몸이 좋지 않아 못나온다던 한국제다 서양원 회장이 들어왔다. 인사라도 하려고 들렸다면서. "우리나라 불교와 차 교류에 큰 획을 그은 거목이 돌아가셔서 충격이 크죠. 법정 스님은 특히 글을 쓰다가 정신이 흐려질 때도 저희 감로차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든다는 말씀을 하실 만큼 저희 차를 좋아하셨어요. 차 선물이 많이 들어와도 다 누구 줘버리고 아무리 비싸도 소용없어요. 깨끗하고 정갈한 차만 드셨어요. 법정 스님처럼 차를 아끼는 글을 많이 남긴 분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단순하고 담백한 성격 그대로 글도 쓰시고 차 산업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양반에게 제다 방법이나 차 유통구조를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제다 감로차는 세계적인 차 처사님과 보살님 닮아 한 맛 유지"

브랜드 '설록차' 태평양 화학에 넘긴 서양원 회장 차문화 발달에 기여

1951년 한국전쟁 한 가운데서 차를 만들기 시작한 한국제다 서양원 회장은 젊어서 지금 한전 전신 가운데 하나인 남선합동전기회사에 다녔다. 그때 거래처 가운데 우리가 흔히 양은냄비, 양은주전자라고 부르는 노란 양은그릇을 만드는 알루마이트 공장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릇에 물을 들이는데 홍차를 쓰는 것을 보고는 '사업이 되겠구나!' 싶었다. 고향 광양에 작설차 나무가 있어서 인이 박히게 먹었기 때문에 찻잎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기에. "홍차를 공업용으로 쓰는 방법을 터득해 6년 동안 납품을 했습니다. 홍차는 세계 3대 기호음료에 들어갈 만큼 많이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러나 식음료로 처음 만들 때는 차를 만들어도 팔 데가 없어서 공짜로 퍼주면서 시장을 만들었어요."

차근차근 성장가도를 달리던 70년 대 초. 전남 보성군에서 차를 보성농특산물로 정하고 차농사를 독려하다 차 수요가 줄어 판로가 막히자 서양원 회장에게 매달렸다. 서 회장은 10년 동안 보성 농가 차를 사주기로 약속한다. "보성농가 57세대와 전량 수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450만원을 전도금으로 줬어요. 부동산을 잡고 공증을 하고 어음을 받았어요. 73년부터 84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빌려준 돈인데 계약기간이 끝난 지 몇 십 년이 지나도록 돌려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 홍차를 5년 동안은 동서식품에서 모두 사줬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차 문화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고사 상태에 놓였다. 그러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신비한 영약이라며 선풍을 일으켰던 '홍차버섯' 덕분에 소비가 늘자 몇몇 제다업자들이 고구마 잎이나 동백나무 잎에 색소를 넣은 가짜 홍차를 만들어 팔았다. 언론은 '당신은 가짜 홍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시중 홍차 거의 가짜'라고 크게 써댔고, 홍차시장은 무너져 내렸다. "동서식품 초대회장 김재명씨가 내 말을 듣고 홍차를 5년 남짓하다가 가짜 홍차 파동을 겪으면서 아이고 못하겠다며 손을 들고 말았어요." 동서식품이 빠지자 서양원 회장은 태평양화학 서성환 회장을 설득했다. 기꺼이 차를 사준 서성환 회장이 너무 고마워 서양원 회장은 아끼던 브랜드 '설록차'를 기쁜 마음으로 태평양화학에 넘긴다. "일가 어른이라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차문화가 발달한 배경에 서양원 회장 땀과 정성이 서려있다. 한국제다 차밭은 장성과 영암, 해남 세 곳에 있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은 최소 50킬로미터는 떨어진 곳에서 난 차를 섞어야 차 맛이 한결같기 때문이란다. 차 맛이 한결같은 데는 비결이 더 있다. 구수하고 넉넉한 백제보살 품 때문일까? 군대 제대하고 스물세 살에 와서 일흔이 넘은 공장장을 비롯해 공장에 20년이 넘는 근속자가 네 사람이나 있다. 올해 마흔아홉 살로 사무실 살림을 하는 관리책임자도 처녀 때부터 근무하다가 결혼하고 삼 년 쉬다가 다시 나와 이제까지 함께한다. 차밭뿐 아니라 사람들마저 붙박이니 차 맛이 한결같을 수밖에.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장 미



동국대 명예교수

길목에도 이웃 담장에도 얼굴을 내밀고 있는 장미를 본다. 유난히 초등학교 울타리에 피어있는 장미는 응고된 사색의 실타래를 풀어내기에 충분하다. 울타리는 흔히 볼 수 있는 연둣빛 철사로 만들어 졌다. 마치 가로 세로 줄을 그어놓은 듯 간격을 유지해 정연한 양이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더욱 발길을 잡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넝쿨장미가 수놓고 있기 때문이다.

오선지에 악보를 그려 넣듯이 하루가 다르게 울타리를 오르며 꽃을 피우고 있다. 그 장미의 성장을 보며 정진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저와 같은 성장이요 결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간혹 바람이 찾아오면 장미의 음계는 이내 달라지기도 한다. 계면조가 되기도 하고 장조가 되기도 하는 모습은 흡사 인생의 굽이마냥 다양한 음계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물레따(muleta)가 되어 나부끼기도 하고 금새 투우사의 망토가 되어 나풀거리기도 한다. 투우사에게 물레따는 긴요한 소지품이다. 나무 막대기를 넣은 물레따는 붉은 천으로 만들었으며 소와 가까이서 소를 유인하는 도구이다. 관중의 갈채 속에 등장한 투우사는 소와 예술의 한 마당을 펼치는 투우의 백미가 펼쳐진다.

장미는 분류방법에 따라 갖춘 꽃, 안갖춘 꽃, 갈래 꽃으로 나누기도 한다. 갖춘 꽃이란 꽃받침 · 꽃잎 · 암술 · 수술을 완전히 갖춘 꽃을 말하고 안갖춘 꽃은 꽃받침 · 꽃잎 · 수술 · 암술 중에서 어느 것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꽃을 말한다. 갈래 꽃은 꽃잎이 갈라져 있는 꽃으로 이판화(離瓣花)라고도 한다.

장미의 꽃말은 사랑이다. 빨간 장미는 욕망, 열정, 기쁨,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송이별 꽃말도 있다. 빨강 한 송이의 꽃말은 '당신은 킹카입니다'이다. 킹카(king-card)는 외모가 특히 빼어난 남자를 말한다.

나에게는 아련한 기억이 스멀거리는 장미가 있다. 소년시절에 썼던 일기장 표지의 붉은 장미이다. 그저 장미려니 생각하고 지나쳤던 장미가 킹카를 의미했다니 놀랄만한 일이다. 외모가 뛰어난 남자는 다수가 연예인이 되어 대중의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무대에 올라 갈채를 받고 산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회한이 없고 환희만이 넘쳐나는 듯하다. 그러나 속내를 알고 보면 좌절과 애환이 있었고 암울한 시기도 있었으리라. 마치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도사리고 있고 진딧물이 끼이듯이.

일기장을 펼치며 매일 매일 보았을 장미는 '당신은 킹카입니다'라고 무언의 속삭임이 있었으련만 지금의 나는 삶이 영 딴판이다. 하기야 삶을 단편적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질과 양의 무게가 다르기 마련이고, 단발성이냐 영속성이냐의 문제도 있으니 말이다.

오래 전에 나의 연구실에는 투명한 유리컵에 붉은 장미 한 송이와 안개꽃이 어우러져 놓여 있었다. 그들의 수명을 연장해 보려고 물도 반 컵쯤 담아 놓았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유한하기에 언젠가 헤어질 날을 대비하여 소묘를 그려 놓았다. 그 실물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이제 분신은 소묘1이라는 이름으로 〈최현각 선학전집〉 11권에 자리하고 있다.

빨간 장미와 안개꽃이 갖는 의미가 '오늘 만큼은 그냥 보낼 수 없어요'라고 한다. 그래서 그랬던지 오늘 만큼은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의미를 되뇌이며 소멸해가는 시간 속에 작은 여운을 남겨 둔 것이다. 소묘의 영혼은 여운을 남기고 자유로이 허공을 선회할 것이다.

꽃만 본 사람 '장미꽃은 아름답다'
줄기만 본 사람 '가시만 있다'
뿌리만 본 사람 '미생물 득실득실'
넝쿨장미 보며 '사물은 보기 나름'

전혜린의 〈목마른 계절〉에 나오는 시가 생각난다.

지상의 공간에 산 모든 것은
지나가버린다.
그러나 나에게는 네가 있다
지나가버리지 않는
무상의 거친 파도가
사랑의 해안에 높이 부딪친다
- 리카르다 후흐 -

선에서 양보 없이 치닫는 문제가 있다. 옥신각신의 표본이라고나 할까. 돈오(頓悟)니 점오(漸悟)니 하는 문제이다. 마치 장미를 보는 사람에 따라 분수 끝 말하듯이 판이한 견해를 편다. 꽃만 본 사람은 장미꽃은 아름답다고만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상반된 견해도 있다. 줄기만 본 사람의 경우 장미는 거친 가시만 있다고 고집할 것이다. 뿌리를 본 사람인들 없을까. 이 경우 미생물과 곤충이 득실거린다고 내세울 것이다. 사물은 보기 나름이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오늘도 넝쿨장미는 사유하는 사람의 반려자가 된다.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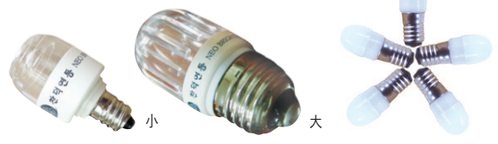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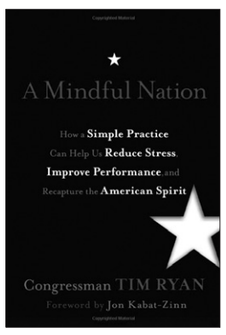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음챙김' 美 정계·軍·기업에서 주목

라이언 하원의원 '마음챙김에 기반한 국가론' 출간

불교 수행인 '마음 챙김'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큰 사업의 아이템'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헤럴드 썬(Herald Sun, heraldsun.com. au) 지가 12일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현직 하원의원 팀 라이언(Tim Ryan · 민주당)이 '마음 챙김에 기반 한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는 〈A mindful nation〉 출간과 함께 다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편집자 주〉





美 하원의원 팀 라이언이 펴낸 〈A Mindful Nation〉(사진 왼쪽). 마음챙김수련으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큰 사업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호흡과 몸을 관찰하며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혹은 정신) 수련에 참여하며,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음챙김에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찾고 있는 것이다.

팀 라이언 하원의원은 지난 3월 말 출간한 〈A mindful nation〉에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한 원동력으로 '마음 챙김'에 초점을 맞춰, 워싱턴 정가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라이언 의원은 "분열과 대립이 난립하는 워싱턴 정치계에서 마음 챙김은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마음 챙김을 초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삼는다면, 미국은 더욱 풍요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08년 대선 직후 존 카밧 진(Jon Kabat-Zinn) 박사에게 마음 챙김 수련을 받았다는 라이언 하원의원은 "대선의 엄청난 스트레스는 35세라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경험이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마음 챙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의학계와 과학계에서도 마음 챙김은 관심 받는 연구 주제가 되었다. UCLA, 스텐포드대학, 하버드대학, 위스콘신대학, 메사추세츠대학, 듀크대학, 에모리(Emory)대학, 마이애미대학, 조지타운(Georgetown)대학 등은 이미 마음 챙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엘리자베스 스텐리 조지타운대 교수는 "마음의 안정이 몸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됐다"며 "앞으로 의학 및 과학계는 마음과 몸이 '어떻게(how)' '왜(why)' 동일한 변화의 과정을 밟는 지에 대한 연구에 더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텐리 교수는 마음 챙김 훈련 과정에서 두뇌

초등학교 정규 교과목 선택 제안
의학 · 과학계서 관련 연구 진행

의 혈액과 산소의 흐름에 주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 해병대도 마음 챙김에 기반 한 'Mind Fitness Training(마음 단련 훈련, MMFT로 통칭)'을 운영하고 있다. 이 훈련은 하나의 목표물에서 다른 목표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감각이나 감정 등을 빠르게 극복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캘리포니아 랭커스터에서 복무하고 있는 해병 소콧 윌리엄(Scott Williams · 1st Lt · 32)은 "MMFT 훈련은 혼란과 불안이 팽배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정신적 안정성과 육체적 민첩성을 지키고 부하 장병들을 이끄는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다.

미 해병대는 MMFT 훈련 대상자를 전투병과 행정병 외에도 교도소 수감 병사에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수감 병사의 스트레스와 폭력성 감소에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글로벌 기업이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믿음이 구글(Google), 타겟(Target), 프록터 & 갬블(Procter & Gamble), 제너널 밀스(General Mills), 컴캐스트(Comcast), 바스프(BASF), 보스(Bose) 등의 사내 주류 문화로 '마음 챙김'의 자리를 마련하게 한 셈이다.

이들 기업은 마음 챙김 프로그램에 직원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그 성과를 업무 현장에 적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 케이트린 토두터(Katelin Todhunter)는 "사내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생산성은 물론 도덕성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음 챙김에 주목한 미국인들의 성향을 충족시켜주는 사업 규모도 커지고 있다.

미 연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월 약 340억 원을 대체의학 비용으로 지출했고, 이중 12%인 약 45억 원은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나 유사 프로그램 등의 참가 비용으로 지출했다. 또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인들의 수도 6%나 증가했다(2009년도 기준).

심리학자와 종교학자의 마음 챙김 관련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는 동안, 이를 브랜드 이미지로 변화시키고, 세속화를 유도하면서, 참가자의 기부(희사)도 이끌어내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라첼레 스콧 테네시대 교수는 "불교의 상업화는 불교가 생겨나면서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마음 챙김에 몰입하는 대다수 미국인들은 그것의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단지 '그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목적의식에 함몰된 채 고가(高價)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돈황 · 중국불교미술 전문가

세계의 불교학자(21)

로드릭 윗필드 英 런던대 명예교수



중국 간쑤성(甘肅省)에 있는 도시 돈황(敦煌)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관문이다. 동서문화의 교류통로였던 비단길을 따라 여행하던 수도승과 여행자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머물렀다. 때문에 돈황은 중국 서역 경영의 거점이 됐고 동서문화 교류의 교두보이자 상업, 종교,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번영을 이루는 곳이었다.

세계적인 돈황미술 전문가 로드릭 윗필드(Roderick Whitfield · 75) 교수는 "돈황은 중국 비단길에 위치한 가장 거대한 불교미술의 보고"라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영국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동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인 런던대 동양 · 아프리카학스쿨(SOAS)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윗필드 교수는 미국 프린스톤대학에서 고고학과 중국 예술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영숙 런던대 SOAS 명예교수(70)와 고고학과 불교미술이라는 학문적 공통점을 화두로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동료 학자로 평생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윗필드 교수는 중국 돈황미술, 박영숙 교수는 고려불교 미술로 두 분야에서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1984년 대영박물관 한국문화재 전시를 주도한 윗필드 교수는 부인과 함께 〈Buddhist Sculpture(불상)〉, 〈Earthenware and Celadon(토기 청자)〉 등 불교미술에 대한 많은 저서를 발표했다. 티베트 불교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티베트 불화 중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1백여점을 주제별로 정리한 도록 〈탕카의 예술(Art of Thangka)〉(한빛문화재단刊)의 영역(英譯)을 맡았다.

윗필드 교수는 1996년 돈황 석굴의 불화를 담아 출간한 〈돈황 1 · 2〉(예경 刊) 제작에 참여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돈독히 맺었다. 윗필드 교수의 제의로 미술 전문 출판사로서 전문성을 지켜온 예경이 불교미술서적 〈돈황 1 · 2〉을 발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돈황 1 · 2〉은 일본 NHK출판부가 1992년 출간한 〈돈황의 예술〉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어판에 실리지 않은 미공개 사진과 삽도 · 삽화를 포함해 가장 최근에 알려진 돈황에 대한 역사와 미술사자료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500부 한정판으로 발간된 이 도록은 영국 · 미국 · 일본 · 프랑스 등에서 공동 출간됐다.

〈돈황 1 · 2〉에는 돈황의 가장 중요한 석굴 40여 곳을 수록했는데 1권 도판부와 2권 해설부로 나뉘었다. 윗필드 교수는 해설부인 2권 제작에 참여해 집필논문 '명사산의 석굴사원'을 수록했다. 그는 논문에서 돈황석굴의 발전과정, 불상과 장엄문양 등을 종교 · 지리 · 미술사적 관점에서 살폈다.

〈돈황 1 · 2〉출간을 기념으로 1996년 한국을 방문해 '돈황의 미술'을 주제로 강연한 윗필드 교수는 "〈돈황〉은 불교건축 · 조각 · 회화 · 미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강조하며 돈황석굴의 문화 · 종교적 의의를 설명했다.

윗필드 교수는 이 강연에서 경전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닌 일반 서적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황 지방이 인도를 향해 여행하는 구

〈돈황〉 출간으로 한국과 인연 돈독
'한국 전통사상 총서' 영역교정 감수
한국에 중국불교 미술 소개 희망

법승들의 여행경로였습니다 돈황석굴에서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이미 발견됐고 한국인의 이름이 적힌 문헌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경전이 아닌 일반 서적 중심의 문화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이 강연에서 윗필드 교수는 "수백년간 돈황을 거쳐간 중국불교의 각 종파가 남긴 도상이나 석굴 내부의 장엄, 돈황 지방 지배층과 주변국가와의 정책결혼을 묘사한 벽화 등을 통해 종교 · 정치 · 지방사 등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윗필드 교수는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이하 간행위) 제7팀에 소속돼 2011년 발간한 〈한국전통사상총서〉의 영역본 영역원고와 교정감수를 맡고 있다.

2011년 열린 '제2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부인 박영숙 교수와 한국을 방문한 윗필드 교수는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중국의 학자, 문인, 지식인들은 스님들과 긴밀한 교류를 펼쳐왔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가해 중국불교나 미술 등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안젤리나 졸리 "결혼식 날짜 부처님 뜻대로"

헐리웃 스타 안젤리나 졸리(36 · 오른쪽)가 스님의 도움으로 브래드 피트(48 · 왼쪽)와의 결혼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예매체 '쇼비즈 스파이'는 현지 시각으로 6월 11일 "졸리가 스님의 도움으로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있다. 측근에 의하면 졸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적합한 날이나 길일을 선택하기 위해 불교식 택일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졸리는 등에 불교 경전의 일부 문구를 새길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 수술날짜나 휴가계획, 심지어 영화 개봉일을 결정하는



데도 불교의 힘을 빌리곤 했다. 측근은 "졸리가 아는 스님과 진지하게 상의 중이다"면서 "졸리가 부처님의 기운을 받아 완전한 기일을 고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트와 졸리는 2005년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6명의 자녀를 두었다. 최근 결혼식 날짜를 두고 무성한 소문이 떠돌았지만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나은 기자

中, 종교시설 불법 · 장삿속 행위 단속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종교시설의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 ·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국이 6월 4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종교활동 장소 관리경험 교류회'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전했다. 이날 국가종교국은 중국 내 상업적인 종교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왕줘안(王作安) 종교국장은 "종교시설의 합법적 권익은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상업적인 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엄격한 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등기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불합리하게 돈을 받는 행위 등을 통제한다. 특히 종교시설의 주주제, 중외(中外)합작, 임대도급 등 행위는 단속 대상 영순위다.

종교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종교 활동 장소로 개방을 허용한 곳은 전국 13만 9000여 곳이다. 이 중 기독교 관련시설 5만 6000곳, 이슬람사원 3만 5000곳, 불교 사찰 3만 3000곳, 도교 시설 9000곳, 천주교시설 6000곳 정도 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의미없는 돌탑, 사찰 조형물로 적합치 않아


청평사 올라가는 길에 만들어 놓은 돌탑은 절에 오르는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소망탑이다.

돌탑

산사 가는 길에는 이곳저곳에 무더기를 이루며 쌓아올려진 돌탑이 많다. 이러한 돌탑은 적석(積石)신앙이나 건탑(建塔)사상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적석신앙은 오랜 역사를 지니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나타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다. 건탑사상 역시 적석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불교의 상징물인 불탑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후 제자들이 만든 스투파를 원형으로 한다. 스투파는 벽돌이나 돌을 쌓아 올려 몸체를 만들고 그 위에 회반죽이나 진흙을 발라 마감한 것으로 적석의 한 유형이다. 이 스투파는 불교의 전파와 함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변화 발전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의 파고다를 원형으로 한 석탑을 만들어 고유양식으로 정착시켰다. 이와 같이 사리탑은 불교가 전파된 나라마다 그 지역의 문화와 재료가 바탕이 되어 특별한 형식으로 전개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컨셉은 쌓아올린다는 것이었다.

돌탑은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에 조성한 서낭당에서도 볼 수 있다. 서낭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신역(神域)으로, 그것의 형태는 서낭나무에 잡석을 쌓아 올린 돌무더기와 더불어 나무에 백지나 청·홍·백·황·녹색 등의 오색 비단 헝겊을 잡아맨 형태, 잡석만을 형식 없이 쌓아올린 돌무더기의 형태, 서낭나무에 백지나 5색 비단 헝겊 조각을 잡아맨 형태, 서낭나무와 당집이 함께 있는 형태, 입석의 형태 등 다양하다. 서낭당을 지나는 사람들은 돌무더기에 돌을 세 개 얹고, 세 번 절한 다음 침을 세 번 뱉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무탈을 빌었을 것이다.

몽골의 대초원에서 발견되는 오보(Ovoo) 역시 우리나라의 서낭당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돌무더기의 형식을 가진다. 오보는 사방이 끝없이 펼쳐진 망망한 대초원에서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유목민들에게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유목민들은 오보에 돌을 던져놓고 시계방향으로 세 번 돌면서 가족구성원들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교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탑돌이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팔의 히말라야에서도 산길 이곳저곳에 쌓아올린 돌무더기를 흔히 볼 수 있다.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돌탑에 돌을 쌓아 올린 후 정성으로 무사히 귀환하기를 기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산행을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도 한다. 때때로 돌무더기 앞에서는 다양한 제사의식도 거행하는데, 제사는 산신을 대상으로 하는 원시적 신앙형태로 나타난다.

길에서 발견되는 돌탑은 이와 같이 히말라야로부터 몽골, 한국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으로 매우 넓은 지역에서 분포한다. 특히 불교가 전파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돌무더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돌탑을 쌓아올리는 것은 적석신앙이 불교적 개념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찰 가는 길에 조성한 돌탑 가운데에는 역사적으로나 조형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오래된 돌탑도 길을 넓히거나 포장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훼멸된 것들이 많은 까닭이다. 진안 마이산 탑사에 조성한 돌탑무리들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돌탑무리는 절 길에 특별한 형식 없이 쌓아올린 돌무더기와는 형식적으로는 물론 개념적으로도 차이가 있어 차별화된다.

산사에서 발견되는 돌탑은 형식 없이 쌓아올린 자연적 산물이기는 하나, 그것은 몇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즉, 장승이나 선돌과 결합한 돌무더기의 형식, 다른 것과 연관 없이 주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들을 한 무더기로 높이 쌓아올린 형식, 낮은 돌탑을 여러 개 쌓아올린 형식이 있다.

장승과 돌무더기가 결합된 형식의 돌탑은 순천 선암사, 함양 벽송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돌 무더기탑, 네팔·몽골·한국 등 분포
절길 돌탑, 적석 신앙 진화한 소망탑
통도사 옥련암 돌탑 등 기계로 쌓아

순천 선암사에 있었던 것은 오래된 장승 하부에 돌무더기를 쌓아올린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암사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었으나 장승을 새로 깎아 세워놓는 바람에 역사성이 지워져 버렸다. 함양 벽송사에는 오래된 장승이 있으며, 장승에 얽힌 이야기도 있으나, 돌무더기와 결합된 장승은 오래 묵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장승과 돌무더기가 결합된 형태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요즘에는 이러한 형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선돌과 돌무더기가 결합된 사례는 남원 실상사에서 볼 수 있다. 실상사 바로 옆 입석리에 세워진 이 돌탑은 자연스럽게 깎은 입석을 가운데 세우고 그 주변에 돌을 쌓아올렸는데, 사용한 돌들이 냇돌인 것을 보면 지리산에서 흘러와 마천 쪽으로 흘러가는 람천(만수천)에서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 이 돌탑이 세워진 마을 이름이 입석인 것을 보면 돌탑의 역사가 아주 오랜된 것으로 보인다.

절길 올라가면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주워 정성껏 하나하나 쌓아올린 돌탑은 어느 절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절에 오르는 불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있는 소망탑이다.

무더기를 이루며 형성된 돌탑도 있지만 작은 돌을 여러 층으로 쌓아올린 여러 개의 돌탑들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돌탑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지만 무너지면 또 쌓아올려 항상 그곳에 가면 그러한 돌탑무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돌탑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면서도 항상성이 있어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의 힘을 빌려 쌓아올린 돌탑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통도사 옥련암 입구에 만들어 놓은 돌탑도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인데, 이 돌탑을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사리탑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사찰을 상징하는 조형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

사찰에 도입되는 조형물은 즉시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항상 상징적 개념을 가지고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요즈음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지는 조형물은 사찰의 경관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만드는 작용인자가 될 뿐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통도사 옥련암 입구에 새로 만들어 새운 돌탑은 의미론적으로 볼 때 불교적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상사 가까운 곳에 있는 입석과 돌무더기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전형적인 돌무더기의 형태이다.


벽송사의 장승과 돌무더기

능화스님의
불교무용 마스터 과정 모집

불교의식 가운데 범패는 진리를 노래하고, 불교무용인 작법무는 진리를 춤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문화예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능화스님을 모시고 불교무용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교무용 마스터 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불교무용 마스터 과정 특강
※특강일시 _ 2기 : 2012년 7월 9일~7월 25일
3기 : 2013년 7월 8일~7월 24일
※강의시간 _ 매주 월·화·수요일 14:00~18:00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일산)
※수 강 료 _ 기당 120만원
※교 수 진 _ 능화스님(예능보유자), 인화스님, 전경화, 박은하
※교육대상 _ 제한없음, 무용전공자, 스님
※교 재 명 _ 능화 『한국의 불교무용』, 『다게나비춤』, 『천수바라춤』
※강의내용 _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특 전 _ 수료후 인천무형문화재 범패와작법무 이수평가 시험 응시자격부여 (응시자 전원 가산점 부여)

불교무용 및 불교실용의식
※개강일시 _ 2012년 9월 3일(월) 14:00, 16:00 (서울)
2012년 9월 6일(목) 14:00, 16:00 (일산)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일산)
※수 강 료 _ 1학기 40만원
※교 수 진 _ 능화스님, 인화스님, 전경화

한국전통무용
※개강일시 _ 2012년 9월 4일(화) 13:00 (입문반)
2102년 9월 4일(화) 15:00 (전문반)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일산)
※수 강 료 _ 1학기 40만원
※강의내용 _ 한국무용기초, 입춤, 태평무, 장고춤
※강 사 _ 박은하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헤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미얀마 성지순례 * 고품격 상품 *
일 정 : 양곤 바간 헤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7일 210만원
출발일 : ~~5월30일~~, ~~6월 1일~~, ~~6월 8일~~, 6월14일, 6월21일, ~~6월23일~~
*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뜨레져, 후핀)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 식사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29만원 / 6월~7월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한국불교 수호자는 누구인가"

불패(佛牌)의 기능과 의미

불패는 부처님이나 큰스님들을 주로 모시는 위패(位牌)로 경전명이나 불보살님들의 명호 큰스님들의 법명이나 발원내용들을 적어 불단에 함께 모시는 위패를 말한다. 보통 그 형태는 내용이 적힌 아름다운 조각이 되어있는 위패를 연화대(蓮花臺)위에 놓는다. 위패의 주위를 채운(彩雲)모습이나 보주(寶珠) 등의 모습으로 조각하고 그 안에 모란 연꽃 같은 화훼나 운용(雲龍)같은 문양을 화려한 모습으로 조각해 상단에 모신다.

불패는 보통 하부 좌대와 상부의 패신으로 나뉘는데 상단의 모습은 주로 구름을 도상화한다. 그리고 앞면 중앙에 직사각형의 액(額)을 만드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 발원문이나 불명을 넣어 발원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는 '발원패'

유교 선비 난동 막기 위해 삼보와 함께 발원패 조성

동화사에도 여러 개의 불패가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삼보패(三寶牌)와 발원패(發願牌)다. 삼보패는 말 그대로 삼보를 선양하는 세 점의 불패다. 각각 그 액에 나무(南無) 진여(眞如) 불보(佛寶), 나무(南無) 심심(甚深) 법보(法寶), 나무(南無) 청정(淸淨) 승보(僧寶)라고 쓰여 있어서 삼보인 불법승을 모시는 불패임을 알 수 있다.

발원패는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와 세자저하수천세(世子低下壽千歲)라는 두 개의 불패가 있는데 모든 불패가 다 청룡과 황룡이 어우러져 있는 복잡한 문양을 보인다. 특히 발원패는 황룡과 청룡이 여의주를 쥐고 상당히 어려운 조각방식인 투각(透刻)으로 조각된 유려하고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그렇다면 왜 불가 최고의 삼보(三寶)와 함께 발원패를 만들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의외로 슬픈 사연을 지니고 있다.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이래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결정한 신라시대를 거쳐 세계 최고의 불교미술품들을 양산한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에 이르러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다. 조선의 창건자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고 불교의 위력으로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상당히 잔혹한 핍박과 압제를 가한 것이다.

승려의 도성출입이 금지되고, 여러 종파가 정부의 명령으로 합병되거나 인수되기도 하고, 승려의 숫자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사찰에 속한 직원과 토지를 자의로 수용하기도 했다. 또한 승려들에게 특산물을 생산해 바치게 하는 등 수많은 압박수단을 자행한 것이다.

우리나라 종교사에 있어 기독교의 목사들로 이루어진 군대, 카톨릭의 수사나 신부로 이루어진 장병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등의 큰 전쟁에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수천, 수만명의 승병을 이끌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고 청나라의 침입 때도 많은 승병들이 미리 궐기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승가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교 선비들과 관리들은 수시로 사찰에 침입해 승려들을 괴롭히고 사찰에 폐해를 끼치곤 했다. 그 폐해와 사단(事端)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발원패다. 주상전하와 세자전하의 장수(長壽)를 비는 발원패를 대웅전 부처님 바로 앞에 놓음으로써 유교세력의 행패를 미연에 차단하려하였던 것이다. 주상전하의 발원패가 있는 곳에서 감히 관원이나 선비가 행패를 부릴 수는 없었기에 발원패는 바로 사찰과 삼보(三寶)의 보디가드였던 것이다. 지금 한국불교의 수호자는 누구일까? 흔들리는 위상은 바람앞의 등불 같은데…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도심서 매달 만나는 '찬불가 향연'

풍경소리 무료 '붓다콘서트'… 관객과 소통의 장 마련

흔히 절집 음악회라 하면 고즈넉한 산사에서 개최되는 산사 음악회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 도심 속에서도 불교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정기 공연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좋은벗풍경소리'(회장 덕신 스님 · 이하 풍경소리)는 매달 전석 무료 붓다콘서트를 열어 대중들에게 찬불가를 알리고 관객과의 소통을 꾀한다.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붓다콘서트는 2000년도 초반에 시작됐다. 부처님오신날과 연말 등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해 왔는데 늘 횟수가 적어 아쉬움이 많았다.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다양한 연령대의 불자들도 도심속에서 찬불가를 함께 즐기고 따라 부르는 정기공연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7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서 매달 열리는 붓다 콘서트는 초청 가수 공연은 물론 ▷다함께 노래를 ▷법문이 있는 이야기콘서트 ▷찬불가 작사 작곡자 초대 ▷작은 사찰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7월 공연에는 분당 원적사 합창단, LMB싱어즈 등의 출연이 확정된 상태다.

붓다콘서트는 대중들이 찬불가를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훈훈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실장은 "찬불가를 부른다는 것은 수많은 신행생활 중 하나다. 하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신행생활이 될 것이다. 또한 고정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콘서트가 열리면 찬불가 마니아들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 될 것"이라며 공연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래서 출연진과 관객들이 찬불가를 함께 부르는 '다함께 노래를'은 주목할 만한 코너다. 이종만 기획실장은 "그동안 풍경소리는 찬불가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대중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늘 아쉬웠다. 이번 공연은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중들이 찬불가를 함께 부르며 부처님의 법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작은 사찰 합창단의 공연도 주목할 만하다. 유독 작은 사찰 합창단에 풍경소리가 주목한 것은 대형 사찰에 비해 공연 횟수가 적은 이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를 위해서다. 이종만 기획실장은 "대형사찰 합창단이 다양한 대외적 공연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작은 사찰 합창단은 탄탄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공연 기회가 그리 많지 못했다. 이들에게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해 사찰 합창단의 공연을 활성하고 이들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7월~12월까지 정기 공연 마련
함께 노래 따라부르는 코너 훈훈
작은 사찰 합창제도 '주목'

음악은 그것을 듣고 따라 부르고 느끼고 즐길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교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붓다 콘서트의 개최는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실장은 "앞으로 붓다콘서트를 상설화하는 것은 물론 도서 산간 지역으로 찾아가는 콘서트 개최도 기획 중에 있다. 찬불가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좋은벗풍경소리'는 7월부터 매달 전석 무료 붓다콘서트를 개최해 대중들에게 찬불가를 알리고 관객과의 소통을 꾀한다. 사진은 지난 연말 '붓다콘서트'에 출연한 LMB싱어즈 공연 장면.

여름방학 맞아 풍경소리 34집 발매

'우리절 꽃밭' 등 9곡 수록



풍경소리 34집 앨범 자켓 사진

늘 푸른 소나무 솔향기 솔솔 처마 밑 풍경은 바람에 땡그랑/ 법당에 가득한 은은한 향내음 염불하는 스님의 목탁소리 똑똑/ 하늘에 흰구름 두둥실 떠가고 뜨락에 다람쥐 오늘도 오가네

찬불동요 창작곡집 풍경소리 34집에 실린 덕신 스님 작사 이종만 작곡의 '우리절 꽃밭'이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좋은 벗 풍경소리가 34집 앨범을 냈다. 우리절 꽃밭, 산사의 하루, 108배, 아이더워, 부처님 앞에 서면, 선물 보따리, 부처님 얼굴, 손 끝에 단풍이 물들었어요, 우린 꽃이다 등 9곡이 담겼다.

풍경소리는 "1994년 1집 발매 이후 서른 네 번째 앨범을 내게 됐다. 율동 위주의 찬불가는 물론 동요 본질의 모습을 찾기 위한 곡들로 구성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미국 간 '아미타불' 한국을 찾다

국립중앙박물관 '미국, 한국미술…' 展

'아미타불 · 지장보살도' 등 미국 박물관에 소장된 불교 미술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우상)은 8월 5일까지 특별전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를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미국 9개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미술품 소개 전시에서는 ▷고려 후기 '아미타불 · 지장보살도'(메트로폴리탄미술관) ▷조선 16세기 '석가설법도'(호놀룰루미술관) ▷조선 후기 '목조동자상'(호놀룰루미술관) ▷통일시라의 '금동불입상'(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보스턴미술관의 청자 꽃 새 무늬 매병, 브루클린박물관의 청자 연꽃 무늬 주자, 클리블랜드미술관의 청자 앵무 무늬 정병, 청자 모란 넝쿨 무늬 사각형 반 등 다양한 한국 미술품도 만나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이 전시는 미국인과 미국의 박물관이 한국미술을 소장하게 된 오랜 역사를 살펴보고 미국에서 한국미술품의 중요성을 조명해 보고자 기획됐다. 이번 특별전에는 미국 내 총 30개의 한국실 또는 한국 코너 중에서 대표적인 9개 주요 박물관의 한국미술품 86건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아미타불 · 지장보살도'

총 3부로 구성된 전시에서 '한국미술을 소장하다'는 미국 박물관 한국미술 소장의 역사를 조명했다. '한국미술을 전시하다'는 미국 주요 박물관의 한국미술품을 한국실 설치년도에 따라 박물관 별로 작품을 전시했다. '한국미술을 빛내다'는 미국 박물관 한국실 전경과 주요 한국미술 관련 특별전을 조명, 관련 도록과 교육자료도 선보인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호놀룰루미술관, 브루클린박물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 보스턴미술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클리블랜드미술관, 하버드 새클러 미술관 등이 참여했다. (02)2077-9483

정혜숙 기자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고급 밤나무 재질
옻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지친 몸과 마음에 춤으로 말 걸어봐요”

명상 기반한 춤 치유 프로그램 ‘확산’

춤이란 흥에 겨워 몸을 움직여 뛰어노는 동작을 일컫는다. 그래서 춤을 춘다는 것은 억눌린 감정을 발산하고 내 안에 잠재된 자유본능을 일깨운다는 말이다. 흔히 춤을 춘다고 하면 술과 함께하는 축제나 클럽 공간 혹은, 무대의 화려한 공연을 연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힐링이 대세인 요즘 춤은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치유의 동작이자 위로의 몸짓이 되고 있다.

‘대추씨’의 명상춤을 활용한 힐링운동회, 성균소극장의 힐링댄스 스터디, 관무용단의 춤 테라피 등 춤을 통해 현대인들의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춤명상을 통해 대중과 함께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대추씨’는 소통과 돌봄이 필요한 곳 을 찾아가는 호모루덴스(유희적 인간) 그룹을 표방한다. 춤명상-그림 치유-글쓰기 등을 통해 내면 치유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치유프로그램으로 학교 기업 각종단체 등을 방문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대표 권민희 씨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수행해온 108배, 위빠사나 명상에 애니어그램 등 심리적 프로그램 등이 결합됐다는 사실이다.

권 대표는 “명상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내면에 억눌렸던 감정과 상처 등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취지를 전한다.

특히 ‘대추씨’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프로그램의 진가를 인정받는 전기를 마련했다. 권 씨는 “많은 참가자들이 춤명상을 통해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 받고 있다. 학교 회사 등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되고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추씨’는 수익금을 새터민 등 소외이웃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환원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010)5391-1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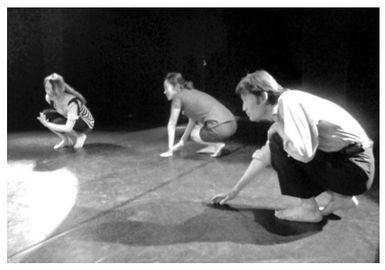
명상춤 · 힐링댄스 · 춤테라피 등
현대인 내면 치유 효과 탁월

지난 6월 12일 오픈한 대학로 성균소극장 무용치료프로그램 ‘힐링댄스스터디, 당신의 몸이 하고픈 말에 귀기울여주세요!’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강의는 일반인들을 위한 극장 치유프로그램이다.

성균소극장은 “극장 무대로 직접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무용치료 프로그램으로 무대를 치유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첫 시도다. 대중들이 춤을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관객과의 새로운 소통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프로그램은 ▷움직임 기초 교육▷움직임에서 춤으로 연구하기 ▷‘스스로 추는 춤’ 무대 올리기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안재은 무용치료사는 “춤을 통해 창의적인 몸과 순수함을 담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각자 잠재된 창조성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힐링댄스 스터디는 7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회 진행된다. (02)747-5035


춤을 통해 몸을 관찰하고 자신의 내면을 정화화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예비사회적기업 ‘대추씨’의 힐링운동회 명상춤 장면.


성균소극장의 힐링댄스 스터디 장면.

불교 ‘관무용단’이 7월부터 예정인 힐링캠프 역시 춤테라피를 기반으로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원 예술을 결합한 심신정화 프로그램이다. 관무용단 이영빈 단장은 “거울댄스-오감표현하기-숨쉬기-청개구리 게임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우리 단원들이 팀웍을 위해 수행해오던 프로그램에 불교사상을 녹여 새롭게 구성했다. 기업이나 학교 강의를 통해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불교를 포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10)8897-2466

이제 일상속으로 스며든 춤은 현대인들의 잠재된 내면을 일깨우는 새로운 활력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춤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 내 몸 구석구석을 살피고 내면의 나를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된다.

이철진 한국춤예술센터 이사장은 “커뮤니티 아트가 강조되는 요즘, 일반인들이 직접 참가하는 춤 치유 프로그램은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의 심리 치료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춤 치유는 놀이를 통해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내 몸의 부분을 움직여줌으로써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며 춤 치료 효과에 대해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아름다운 서체로 전하는 부처님 말씀

허유지 작가 ‘사경(寫經)전’ 19일부터
작품판매 수익금 전액 도서기금 기부

취원 허유지(翠苑 許洧誌) 작가의 사경전이 6월 19일~7월 5일까지 동국대 중앙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감지금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백지묵서 금강반야바라밀경 ▷홍지은니 관세음보살상 ▷이산혜연 선사 발원문 등 부처님과 선사들의 말씀을 다양한 불보살상과 문양들로 펼친 30여점의 사경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 작품 판매 수익금은 전액이 동국대 중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도서기금으로 기부돼 더욱 의미가 있다.

동국대측은 “불심이 매우 깊은 허유지 선생이 작품 판매수익금 전액을 동국대 중앙도서관 도서기금으로 희사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는 대학도서관 중 전시회 개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기금을 모금하는 최초의 시도다. 도서관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업분위기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여년 동안 서예 활동을 펴온 허유지 작가는 그동안 대한민국 미술대전, 경인미술대전 특선, KBS 전국휘호대회 특선, 한국미술대전 전통민화 삼체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허 작가는 7년 전부터 대한민국 전통사경 기능전승자 김경호 작가에게 사경을 지도받은 이후 하루 13시간씩 사경수행에 매진 제5회 서예문화대전 사경부문 대상의 영광을 안은 바 있다.

서예문화대전 초대작가, 경기미술대전 초대작가, 신사임당 예능대회 초대작가, 남경서법가 한 · 중 교류전, 중국 명주 한국사경연구회초대전, 서예문화대전 대상작가, 초대전 한글서예대축제 초대전, 한국사경연구회 회원전,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개인전 등을 열었으며 뉴욕 플러싱타운홀 갤러리 초대전을 앞두고 있다. 현재 허 작가는 한국사경연구회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취원 허유지 작가의 사경전이 6월 19일부터 동국대 중앙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작품은 허 작가의 감자금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문화 소식

중국 고대 불교 미술을 엿보다

갤러리떼 기획전 7월 15일까지


중국 북위시대의 ‘불상문 전돌’

갤러리떼에서 동아시아 불교자료 80점을 선보인다. ‘흙 그리고 불심천년의 아름다움…장신구 히말라야 수호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7월 15일까지 갤러리떼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북조 시대, 당 · 송에 이르기까지 비천상, 불상문, 사리함, 나한상 등 8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갤러리떼 김요철 관장은 “신강위구르, 투르판지역과 몽고, 서안, 낙양, 지역 등에서 출토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15여년에 걸쳐 모아온 동아시아 불교자료를 한 자리에 모으게 됐다”며 취지를 전한다.

김 관장은 “‘신강출토’는 실크로드에서 출토된 작품이며 불상문 전돌은 간다라 미술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실크로드에서 출토된 목제 사리함도 주목할 만하다. 목재 유물이 1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갤러리 떼는 “중국인들은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 승려들이 가지고 온 작은 불상을 통해 불교미술을 접하게 된다. 이후 당나라에 이르러 중국만의 독자적 세계를 창출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중국 불교문화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금비녀, 목걸이 귀걸이 등 300여 점의 고대 장신구도 만날 수 있다. (02)733~2190

청오스님, ‘업장소멸 법륜대’ 전시

6월 21~27일까지 백악미술관서

청오 스님의 업장소멸 법륜대 전시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백악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경전이 봉안된 18점의 상감청자 법륜대가 전시된다.

오랜 시간 불상을 제작해 오던 청오 스님은 〈전생록〉에 착안해 법륜대를 조성했다. 스님은 “법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끝에 상감기법에 착안하게 됐다. 업장 소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륜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며 감회를 전했다.


청다향 법륜대.

한편, 청오 스님은 범어사 금동천수천안 및 금동신중탱화, 청도 보현사 금동 약사여래대불, 해운대 해운정사 금동천수천안, 마라도 해수관음상 등의 불상을 제작해 왔다.

정혜숙 기자

원진 스님 국제 아트페스티벌 참가

‘법정스님1’ 등 작품 출품

원진 스님이 ‘2012 MIAF 국제구상아트페스티벌’에 참가한다. 목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6월 16~22일까지 서초동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원진 스님은 스님들의 일상을 인물화 중심으로 그린 ‘법정스님1’ ‘법정스님2’ ‘무념’ ‘환생의 빛’ ‘마애불2’ 등 다섯 작품을 선보인다.

그림을 통해서 꾸준히 자아발견의 길을 걷고 있는 원진스님은 동국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으며 프랑스 파리에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원진스님의 작품 ‘법정스님’

1991년 불교미술대전 특선, 2011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신라미술대전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원진스님은 소성회 회원, 청도미협 회원으로 작품활동 중이며 청도 보갑사 주지를 맡고 있다.

주요목차

상
1장 사찰의 구조
절은 왜 산에 많은가요?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라는 의미인가요?
사천왕은 각각 어떻게 구별하고 그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왜 어떤 사찰은 탑이 하나고 어떤 사찰은 탑이 두 개인가요?
최초의 불교 사원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2장 사찰의 건물과 불화
절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무엇이고 절 속의
주요 전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륵보살은 왜 항상 서 있는 모습으로 모셔지나요?
왜 어떤 탑의 사면에는 불상을 새겨넣었나요?
우란분절에는 왜 조상 천도재를 지내나요?

3장 사찰의 상징
연꽃은 어떻게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 되었나요?
불교에서 사자와 코끼리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불교 의식용구 중에는 왜 물고기 형상이 많은가요?
적멸보궁에는 정말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건가요?
탑의 층수는 어떻게 헤아리며, 층수가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나요?

하
4장 상식과 착각
석굴암 불상은 왜 가슴을 드러내고 있나요?
불상의 수염은 왜 파란색인가요?
모든 사찰의 기상 시간은 새벽 3시인가요?
〈달마도〉에서 달마의 모습은 왜 그렇게 우락부락한가요?
사찰에서는 왜 산신을 모시나요?

5장 불교의례
왜 법당의 중간 문으로는 출입을 못하게 하나요?
불상은 왜 금빛으로 되어 있나요?
스님들은 왜 삭발을 하나요?
제사와 절에서 하는 재는 뭐가 다른가요?
범종을 치는 이유는 무엇이고 몇 번을 쳐야 하나요?



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사찰의 상징세계

글 자현 스님

때론 오해가 빚어낸 역사가,
때론 가슴 절절한 신앙이
오롯이 담겨진
‘사찰’에 대한 종합 안내서

사찰을 이해하기 위해 샤머니즘, 인도, 중국의 문화를 한 줄로 불교, 유교, 이슬람, 기독교의 문화까지 또 한 줄로 대입해 가며 300여 장의 사진과 함께 풀어낸 크로스오버 문화서

상하 각 320쪽, 312쪽
가격 각 22,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소설로 만나는 부처님 말씀



소설경(小說經)
김정빈 지음
문학의 문학 펴냄
2만2천원

1984년 출간된 〈단(丹)〉의 작가 김정빈이 27년 만에 내놓은 장편 구도소설 이다. 이번엔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남방불교에 전승된 '빠알리 경전' 과 티베트에 전해오는 '티베트 대장경' 등 3종의 불교 경전을 토대로 한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 이야기다.

"태어난 자는 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가?" 가족 모두를 잃게 된 열여섯의 라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타인의 먼 죽음이 아닌 자신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절박한 '죽음' 에 대한 답을 찾아 라자는 길을 떠난다.

"혹 죽음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한다. "혹 삶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실 만한 분을 아시나요?" 그러나 길 위에서 만난 그 누구도 라자의 그 간절한 질문에 대답해 주지 못한다. 〈소설경〉은 도리천에 난 천인 부부 라자와 시리마의 시점에서 시작된다. 시작은 라자의 전생에서 부터다. 어느 날, 답을 찾아 헤매던 라자는 한 소녀로부터 어느 마을에 부처님이 와 계신다는 말을 듣는다. "그 분은 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라자는 그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난다.

"라자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예, 저 또한 부처님을 뵙기 위해 야쿠 마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부처님을 뵙는다는 것은 더없이 영광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어르신께서는 이토록 몸이 쇠약하신데 어떻게 구도 여행을 떠나신 것입니까?" "아가야, 너는 마치 쇠약한 몸으로는 구도 여행을 떠날 수 없다는 듯이 말하는구나. 그러나 아가야… 〈중략〉 네 말처럼 나는 늙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오오, 너는 알아야 한다. 나의 이 여행은…생사윤회의 여행보다는 오히려 쉽다는 것을…."

구도소설의 문장에는 법(法)의 형질이 들어있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문장들 곳곳에 가르침과 깨달음의 '은유' 들이 배치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바탕으로 한 〈소설경〉은 부처님이 활동했던 기원전 4~5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초기 경전들의 이름들로 각 장을 구성했다. 특히 빠알리 대장경에 보이는 기사(記事)에 작가가 상상력을 더했다. 작가는 사상면에서 대체로 빠알리 대장경에 근거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하여 한역 대장경의 사상을 원용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부의 내용은 빠알리 대장경의 사상과 대부분 일치하고, 후반부에서는 빠알리 대장경과 한역 대장경의 사상을 혼합하여 반영했다.

라자와 시리마는 하늘 구도자로서 인간계에 내려와 부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출가하기 전 사끼야국의 왕(부처님이 출가함으로써 비게 된 태자 자리를 이어받아 왕이 된 사람)이었던 밧디야를 만나고, 밧디야는 자신의 스승인 부처님의 수제자 사리뿟따 마하테라에게로 간다. 그 사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된 팔만대장경 경판

이, 부처님은 전에 천재적인 음유시인이었다가 밧디야가 왕이었던 시절 그의 왕비 아유타를 유혹하여 간음한 적이 있고, 절대신 후루와 신앙에 빠져 종교 전쟁을 일으켜 수 만 명을 죽게 한 빙기사를 만나기 위해 인도 남서부 숩바라까를 향한다. 이에 사리뿟따 마하테라 또한 밧디야 등과 함께 부처님과 합류하기 위해 숩바라까로 떠나는데, 그 사이에 수억 명의 천왕 · 천인들이 사리뿟다와 동행하여 부처님을 향해 간다. 마침내 여섯 달 뒤에 부처님과 사리뿟따, 숩바라까 시민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에서 모여든 무량대수(無量大數)의 천왕 · 천인들 앞에서 빙기사는 부처님으로부터 "그대는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기(記)를 받는다. 소설은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로, 많은 서사와 불교의 교설이 다채롭게 전개된다. 특히, 작품의 실제상의 주인공인 빙기사, 아유타, 밧디야의 인연이 전생으로부터 현생으로 전개되는 후반부에 이르면 서사는 매우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작품의 문장은 불교 초기 경전처럼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부처님이 오신다! 부처님이 오신다!" 부처님은 맨 앞에서 일행을 이끌고 있었다. 마침내 부처님과 빙기사가 만난다. 부처님의 발걸음이 빙기사 앞에 이르고, 빙기사는 엎드린 자신의 눈앞에 흙먼지 묻은 두 발이 나란히 멈추어 서는 것을 본다. 그는 자신의 두 손으로 부처님의 두 발에 묻어 있는 흙먼지를 닦는다. "빙기사여!" 빙기사는 차마 부처님을 우러러 뵐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이 지난 날 어리석은 생각으로 지은 죄업 때문이다. 빙기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리고 부처님을 올려다보는 순간 빙기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저자 김정빈은 1984년에 소설 〈단〉을 낸 후 불교에 귀의했다. 그리고 2010년 그는 25년간의 구도기(求道期)를 통해 배우고 얻은 바를 문학적으로 형상화기로 결심하고, 1년 4개월의 집필 끝에 소설을 완성했다. 저자는 "단테의 〈신곡〉과 괴테의 〈파우스트〉,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서양문학들이라면, 〈소설경〉은 동양 문명의 정수인 불교를 바탕으로 한 자기구원적인 문학이다"고 자신의 소설을 소개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명쾌한 능엄경을 더 명쾌한 능엄경으로

수능엄경·중

반라밀제 편역 | 천명일 해설 | 지혜의 나무 펴냄 | 2만원



밀교와 선종을 함께 설한 능엄경을 의역에 가까운 해설로 풀어 쓴 책이다. 상권에 이은 중권으로 능엄경 제4권에서 제7권까지의 내용을 담았다.

능엄경(楞嚴經)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약칭으로, 수능엄경, 대불정수능엄경, 대불정경, 만행수능엄경 등으로도 불린다. 능엄경은 인도의 나란다에서 비장(秘藏)하면서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왕명으로 인해 당나라 이전까지는 중국과 한국 등에 전래되지 못하다가 705년에 중인도 스님 반랄밀제가 한역하면서 전래됐다. 능엄경은 스님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교과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불교에서는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과 함께 강원의 사교과 과목으로 채택된 경전이다. 이번 중권에서는 오행의 생원과 중생들이 무상도를 구하려 할 때에 어느 수행을 해야 쉽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문수사리법왕자의 게송 등을 알기 쉬운 해설로, 난해하다는 수능엄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문 아래에 한글로 토를 달아 일반인도 경문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능엄경 4권~7권 내용 담아
경문과 함께 쉽게 읽도록 배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분별하는 버릇을 버리고 자신에게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가르침은 대소승의 현교뿐만 아니라 밀교사상까지 가미되어 있는데, 선정을 역설하고 있어 밀교쪽보다는 선가에서 환영하고 있다. 제1장 '수능엄경 제4권' 에서는 여래장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중생들이 미혹하게 된 원인과 업을 짓는 근원,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2장 '수능엄경 제5권' 에서는 수행할 때 풀어야 할 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제3장 '수능엄경 제6권' 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몸으로 화현함을 밝히고,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관음의 능문문(能聞聞)의 수행문(修行門)임을 설한다. 이는 '법화경' 과 함께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전파에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 장 '수능엄경 제7권' 에서는 해탈의 문제에 들어가는 주문인 능엄다라니를 설하고 그 공덕을 밝히고 있다. 〈수능엄경 · 중〉은 만고에 풀 수 없었던 물리와 성리의 근본 뿌리를 명쾌히 밝힌 부처님의 말씀을 한 층 더 쉽게 전달하려고 애썼다. 어떤 경전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중생을 걱정하는 부처님의 깊은 마음과 따뜻한 말씀이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6~6/1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5	받아들임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이제 마음이 보이네	백성호	중앙북스
8	탄허록	탄허	휴
9	경허	일지	민족사
10	해탈장엄론	감뽀빠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생명, 나눔, 수행, 행복공동체 마곡사

태화산 마곡사

한상길 · 홍대환 지음 | 활불교문화단 펴냄 | 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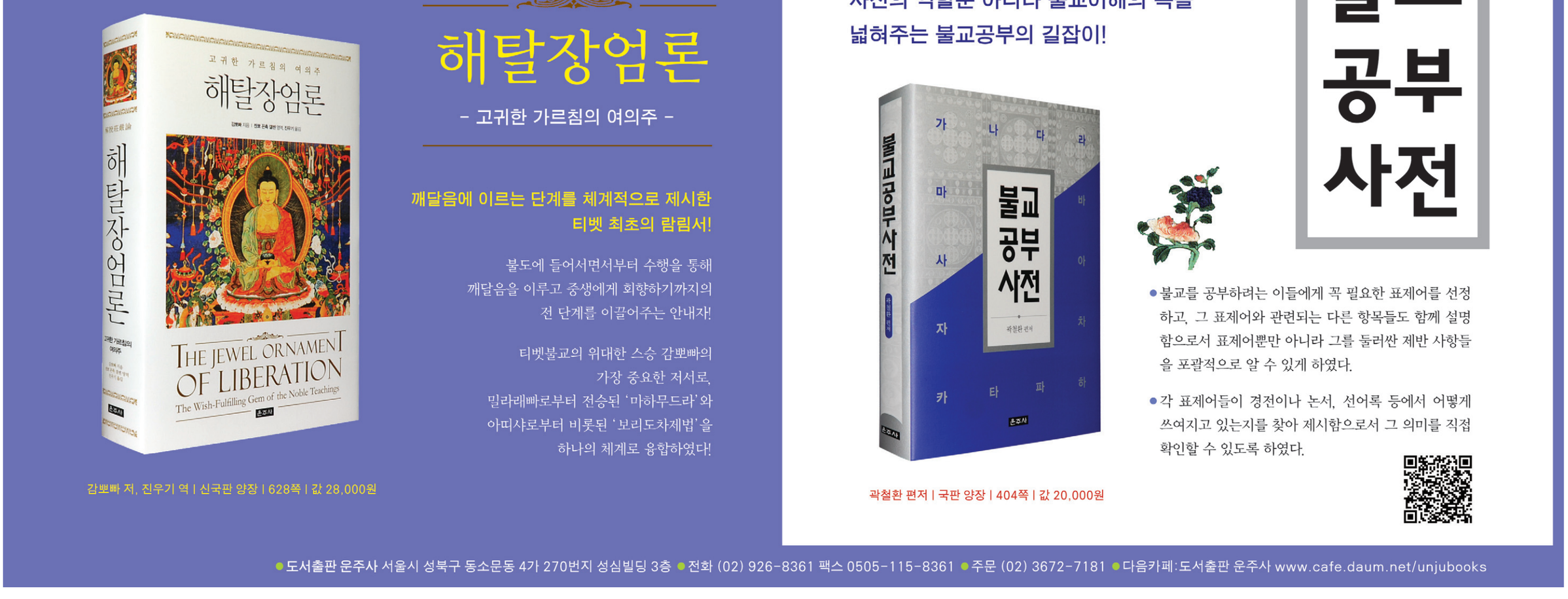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이 발행해 왔던 '한국의 명찰 시리즈' 의 12번 째 책으로, 태화산 마곡사 편이다. 대한불교진흥원은 2009년 11월 19일 〈한국의 명찰〉 시리즈 첫 권을 발간한 이래 2011년까지 10권을 발간했다. 그리고 2012년 11번 째 책인 설악산 신흥사 편부터는 그 동안 함께 책을 만들었던 활불교문화단이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사찰문화의 보존과 현대적 계승이라는 발간의 취지를 이어받은 이번 〈태화산 마곡사〉는 마곡사의 역사와 가람의 배치, 관련 인물과 문화재 등을 통해 마곡사가 복지 생태 문화 공동체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발전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오늘날 '찾아가는 포교' , '행복공동체' 를 추진하는 마곡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마곡사가 있는 공주는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다. 공주는 누구나 차지하고 싶었던 땅이기도 했지만, 전란 등을 피하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공주는 역사의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겪은 땅이 되었다. 더불어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주었던 땅이기도 했다. 그 넉넉한 땅에 깃든 도량 마곡사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명찰 중의 하나로, 조계종의 25개 본사 중 6교구 본사다. 마곡사의 창건은 대부분의 기록이 643년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쓴다. 마곡사의 창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책은 안향덕 스님과 만공 스님, 백범 김구 등 마곡사를 스쳐간 인물들을 소개한다. 옛 스승들의 흔적을 더듬고 나면 책은 해탈문과 천왕문, 대광보전, 대웅보전 등 마곡사에 깃들어 있는 전각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어서 백의관음벽화를 비롯한 성보를 소개하고, 마곡사의 법회와 행사, 특히 2004년 '천년 땅 푸르게' 라는 주제로 열려온 마곡사 신록축제와 마곡사의 행복공동체 가꾸기 등 마곡사의 현재와 비젼을 소개한다. 마곡사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사진자료와 애정 어린 손길로 눌러 쓴 마곡사의 이야기가 있다. 저자 한상길은 동국대 박물관 전임연구원, 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지냈고,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재직 중이다. 저자 홍대환은 호암박물관, 목아불교박물관 학예사와 포스코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지냈고, 현재 상명대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보물 799호인 마곡사 5층석탑과 보물 802호 대광보전, 보물 801호인 대웅보전이 나란히 서있다.



박사 스님이 뽑은 사찰 상식 100가지



사찰의 상징세계 상·하
자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2천원

사찰에 가서 사전 지식이 없으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진다. 이를 테면 왜 대웅전에는 불상이 세 개 일까? 사찰 입구에는 사천왕상이 있을까? 불상은 왜 금색을 입힐까? 등등.

하지만 혹여 궁금한 마음이 들어도 맘 놓고 물어볼 곳이 없다. 혹시라도 실수라도 하면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라 할지라도 사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리 만무하다. 이제 그런 이들의 불편함은 없어질 것 같다. 이 책을 유심히 읽어보면 웬만한 궁금증은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100개의 질문으로 묶고 이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사찰 곳곳에 담긴 은유와 상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설명하는 '사찰의 상징세계' 속에는 단순 문양뿐 아니라 일주문서 해우소까지 사찰 전체의 구조와 전각 그리고 불화도 들어 있으며 무형인 불교 의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이 책에는 사찰에 자주 다녀보지 않은 이들을 위해 주요 전각이나 불화뿐 아니라 자주 다녔어도 쉽게 지나치기 쉬운 각종 문양, 상징까지, 모두 330여 장의 사진이 글과 함께 실려 있다.

이 책의 장점은 단순히 사찰의 상징에 대해, 우리의 궁금증 하나하나를 친절히 설명해 주는데 있지 않다. 그것뿐이라면 이미 문화해설이나 사찰 안내를 주제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좀 남다르다. 불교학, 동양철학, 미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스님의 이력답게 사찰 구조나 상징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리적, 역사적, 문화적 연원을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다. 여기에 인도, 중국 등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이전 불교가 거쳐 왔던 많은 지역의 풍습과 의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와 이웃종교와의 교류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배흘림 기둥은 그리스 신전처럼 안쪽이 빈 경우에만 시각 보정효과를 준다. 사진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교리, 역사, 문화적 연원도 함께 밝혀
한 장에 20~40개 질문과 답 구성
이웃 종교와의 유사성도 비교 설명
330여 컷 사진 등 풍부한 시각 자료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다 보면 2000년을 넘어 유전되어온 불교 고유의 문화가 우리 사찰에 어떻게 담겨졌는지 뿐 아니라 변형되기도 하고 때론 오해와 착각 속에 그냥 남아 있기도 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이 책은 가볍게 사찰을 방문하고자 하는 초심자에서부터 인문학이나 미술전공자까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예를들면 이렇다. 사찰 입구에서 수호신 역할을 하는 사천왕은 무관복장을 하고 당당한 기품을 보이는데 불교우주론에 따르면 사천왕은 왕이기 때문에 무관복장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천왕은 천하의 악에 대한 제압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악귀를 밟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북쪽지장에서는 이 악귀가 청나라 만주족으로, 남쪽에서는 일본인으로 묘사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천왕만 봤지 및에 깔린 악귀는 대부분 놓친 경우가 많았을 거 같은데 이렇듯 이 책 곳곳에 나와 있는 100가지 궁금증을 풀다보면 같이 사찰을 방문한 이들에게 '사찰박사' '문화재해설사' 등의 닉네임을 얻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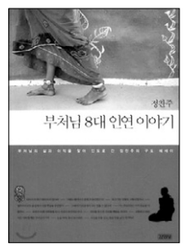
이 책은 상하 각권 합쳐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장은 20~40여 개의 질문으로 묶여 있는데 이 책의 시작은 우선 일주문에서 해우소까지 사찰의 구조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산사에 가보면 대체로 절의 구조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울을 건너는 다리와 일주문, 그 너머에 있는 천왕문, 그리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탑과 대웅전이 나타난다. 이런 유사 구조는 동일한 관점에 따라서 가람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한옥식의 복합건물이지만 향교나 왕궁과 사찰을 혼동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유사함의 배경에는 불교의 수미산 우주론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첫 장인 사찰의 구조에서는 "절은 왜 산에 많은가?",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라는 의미인가?", "사천왕은 어떻게 구분하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어떤 사찰은 탑이 하나고 어떤 사찰은 탑이 두 개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불교의 세계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찰의 구조에 대해 역사 · 문화적 해석을 시도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팔상도 따라간 인도 네팔 순례



부처님 8대 인연이야기
정찬주 지음
김영사 펴냄
1만5천원

전생부터 장엄한 열반까지 부처님의 생을 여덟 장면으로 압축해 그림으로 펼쳐 놓은 것이 '팔상도'며 글로 요약한 것이 '팔상록'이다.

〈팔상록〉은 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 전래된다.

절에서 팔상도가 그려진 것은 불경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 신도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였을 것이라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이 책은 본지에서 '아쇼카 대왕 유적기행'을 연재중인 정찬주 작가가 팔상도에 나타난 대사건들을 따라 인도와 네팔 전역을 순례한 불교 에세이다.

지금 인도인들의 삶에 부처님의 생애를 오버랩시키며 생로병사에 대한 고뇌와 종교적 방황,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오직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살다 열반하신 희생의 삶을 잔잔하게 펼쳐 놓았다.

저자의 구도 여행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바라나시에서 시작된다.

'영적으로 충만한 도시'란 뜻을 지닌 바라나시의 부드러운 강가강 모래밭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생각한다.

저자는 부처님이 이 땅에 싯다르타라는 인간으로 태어난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속된 윤회의 세월 동안 자비의 화신으로서 공덕을 쌓으셨고, 마침내 부처님이 될 필연에 의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것이다.

이런 인과 논리는 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다. 저자는 "내생에 무엇을 받을 것인지 알고 싶은가. 금생에 하는 것이다"라는 불가의 전언을 인용하며, 내생의 복을 빌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 할 일을 고민하라고 조언한다.

즉 불교에는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것이 인과에 의한 필연이기 때문에 원력이란 인(因)이 있었으니 탄생이란 과(果)가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곳이면 대부분 아쇼카왕의 석주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에 우연히 던져진 인간 존재가 아닌 오랜 수행과 원력이 있었기에 필연에 의한 축복적 탄생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자는 설명한다.

부처님의 전 생애를 좇아가는 저자의 발걸음은 인도와 네팔 전역을 누비며 그의 눈과 손끝은 현지인들의 표정과 생활을 오롯이 담아낸다.

순례지 중 한 곳인 '상카시아'에는 아직도 부처님의 직계 후손들이 살고 있다. '샤카(석가)'라는 성을 쓰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어머니 마야부인을 너무 그리워하여 도리천까지 찾아갔던 부처님의 천진한 마음을 이어받은 듯하다.

부처님이 제자 사리불과 머물던 나란다 마을에는 세계 최고(最古) 대학인 나란다 대학 터가 웅장하게 남아 있다.

사리불의 무덤이 있던 이곳에 아쇼카왕이 참배를 와 사원을 지었고 그것이 대학의 기원이 되었다.

부처님이 처음 가르침을 전하셨다면 아쇼카왕은 그 가르침을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다. 불교가 중국과 동남아 등 각지로 뻗어나간 데는 누구보다 그의 노력이 컸으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승려들은 나란다대학에서 불교를 배우며 고국의 소식을 그리워하곤 했다.

"내생 위해 금생 도 닦아야"
인도 네팔 현지인 삶도 담아내
부처님 인연지엔 아쇼카석주 있어
바라나시서 쿠시나가라 순례

부처님의 열반지인 쿠시나가라에는 전 세계에서 나이와 인종의 구분 없이 간절한 신심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들은 오로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살다 가신 부처님의 생을 기억하며 스스로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작가는 죽음을 준비하는 노스님과 삶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 젊은 스님의 모습에서 생과 사도 겹쳐 본다. 그리고 그 순간 먼저 가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내려놓으며 온몸으로 타인과 세상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저자가 마지막 장에서 소개한 '자신을 등불삼고, 법을 등불 삼고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은 현재 도박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불교에 촌철살인같은 사자후로 큰 울림을 전한다.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 부처님은 불자들이 무언가에 매여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오직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고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다. 그것이 저자가 아니 부처님이 이 책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준 큰 선물인것 같다.

김주일 기자

종교계 선지식에게 듣는 '참 나 찾기'

이제 마음이 보이네

백성호 지음 | 중앙북스 펴냄 | 1만3800원



이 책은 저자가 종교전문기자로 활동하며 만난 다양한 종교계의 인사들과의 인터뷰, 옛 성인의 일화, 그리고 일상의 성찰을 통해 진짜 나를 위한 마음을 찾는 가장 간단한 비밀을 전한다. 현각 스님이 말하는 '참나'를 찾는 방법, 고우 스님의 일상 구도법, 이용규 선교사가 말하는 내려놓음의 의미, 이재철 목사가 말하는 버릴수록 채워지는 비밀, 정진석 추기경이 전하는 나눔 등 어디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깊은 성찰을 종교전문기자의 시선을 통해 전달한다. 아픈 상처와 치유법, 욕심과 내려놓음, 개인과 타인 사이의 조화 등으로 나누어진 주제들은 각각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가 전하는 일상 구도의 비밀은 간단하다. 일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걷어내 보라는 것이다. 우리가 좇아간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집착'이니 우리 마음을 걷어내고 나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일도 없다고 말한다. "가볍게, 가볍게 고집스런 오랜 나를 훌훌 벗어 버리세요. 그런 하루의 변화가 1년 뒤에 꽃이 되고, 1년의 꽃이 피면 인생의 나무도 자라날 겁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간단한 깨우침을 공식처럼 다른 고민에도 대입해 번뇌에서 자유롭길 바란다고 했다.

김주일 기자

2800용어 쉽게 해설한 한영불교사전

현대 한영 불교용어사전

박종매 지음 | 푸른향기 펴냄 | 2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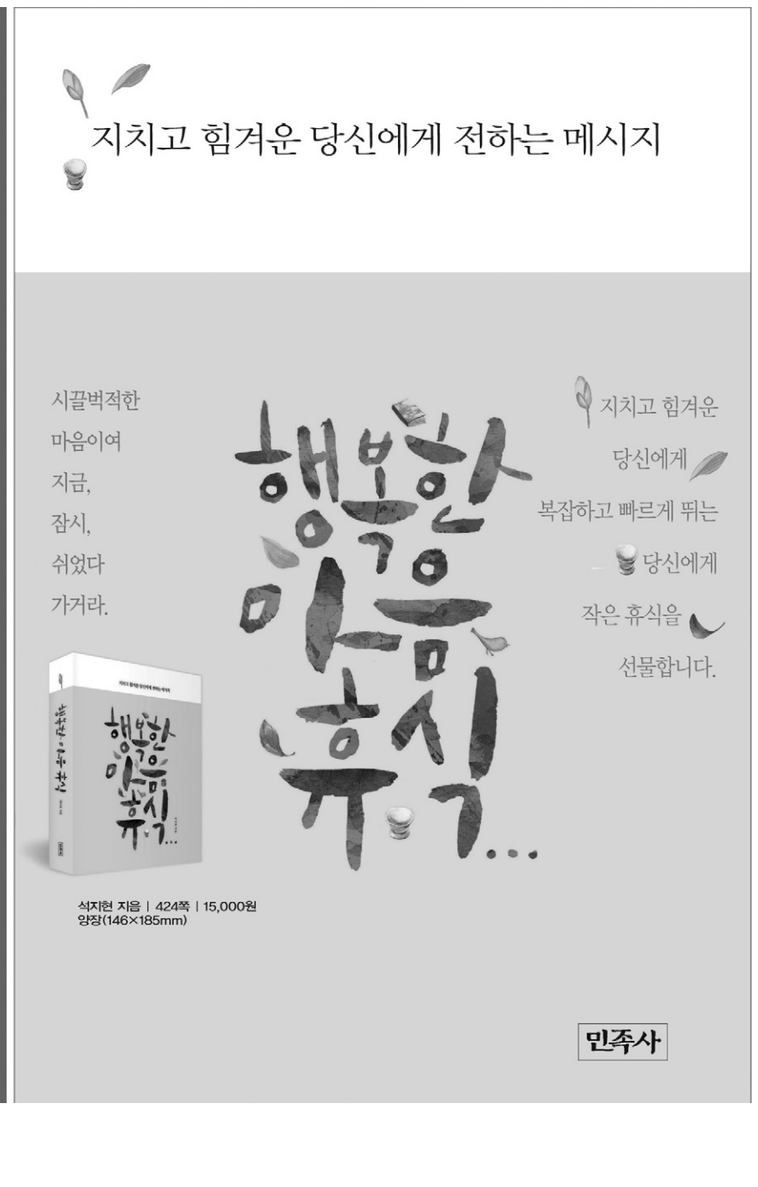


2004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설립한 이후 전 세계 수십여 국가에서 포교에 앞장서 온 종매스님. 스님은 오랜 외국생활과 해외 불제자들과의 인연으로 어려운 불교용어를 간결하고 쉽게 편집했다. 불교 용어의 원뜻을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한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은 현재 미국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영어를 바탕으로 쓰였으며 범어 역시 현대 사회에 알맞도록 쉬운 알파벳을 사용하였다. 또한 오랜 세월 종매스님이 경험한 절집안의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언어들을 삽입하여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로 있는 종매 스님은 우선 방대한 불교용어를 2,800단어로 집약해 한글, 한문, 범어, 영어로 나눠서 설명했다. 중요치 않다고 여기거나 일상적 용어는 과감히 배제시켰다. 또한 불교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 지침이 되어주는 불교 용어만을 선별해 쉽고 간결하게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포교에 뜻을 둔 스님들과 한국불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그리고 불교 공부하려는 불자는 물론 마음공부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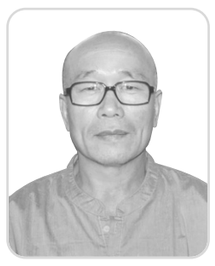




淨安寺 心靈治癒院

(사찰등록번호 : 504-8268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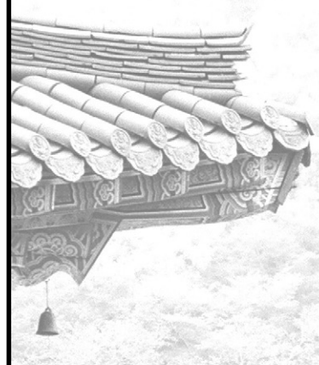
건강·소망



각종 난치성 말기환자
의학적 치유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
(방문치유 및 요양치유 전문)

경북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215-1
淨安寺 心靈治癒院
상담전화 010-6810-6158
道律 스님 합장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범음범패학인모집

-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거룩하신 부처님의 도량이 철조망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만등 불사 성취기도 발원문

철조망이 강원도 동해시 대명산 향운암 진출입로에도 설치 되어 있습니다. 동해 대명산 향운암 출입로 철조망제거 기원만등 불사 동참을 발원 합니다. 향운암은 약70년 이상 된 약사기도 도량 인데 사찰 진출입로가 2011년 4월4일 포크레인작업 과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참배객과 등산객 농민들의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산주는 평당4만원 구입후 20만원에 전부매입을 요구함) 사찰진입로 회복을 위하여 시청, 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과 탄원을 수차례 하였지만 산주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인지 진입로 철망제거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어서 소승 만등불사 기도 를 발원하여 기도 회향에 소통되지 못한 진입로와 아름다운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 지길 발원하오니 전국의 불자님들의 만등 불사 1인 1등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인 일등 동참만이 철조망으로 막힌 사찰 진입로 소통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만등불사 입제 : 2012년 5월 28일 (음 4월 8일)
동 참 안 내 : 1인 1등 1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689501-01-477577
우 체 국 202093-01-006018

약사기도 도량 대명산 향운암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496-4 (발한천길 43-68)
전화 033) 532-1773, 010-2873-2888

향운암 주지 무진 합장
신도회,관음회 일동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法과果 법과





활용(Application)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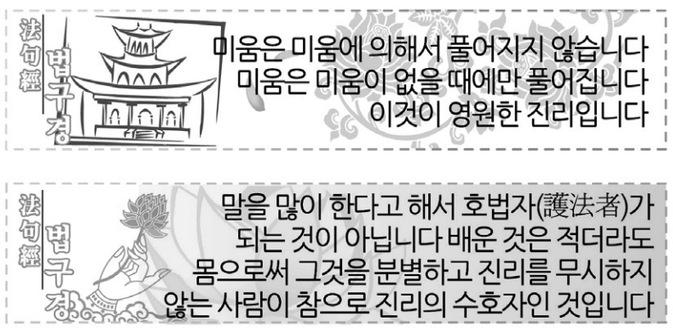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각을 떠난 사람에게는 얽매임이 없다. 지혜에 의해서 해탈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 없다. 그러나 생각과 견해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남과 충돌하면서 세상을 방황한다

-수타니파타-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법당 유무선 마이크
고성능이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중고고가 매입
전통사찰 200만원대
한성음향
010-4440-8687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및
각종 불공
바라작법
스님이 직접 만든 은행 엑기스 판매합니다
011-628-1156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 적 의 비 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작명 개명 전문
보석암
주지 금봉
010-4063-0087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강사
010-2418-6222

신심있는 화주보살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74-4099

천고비전 육임학을 공부하실분
정통으로 성심껏
지도하겠습니다
011-729-60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산의 조용한 암자)
02)954-9848

부전(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사무장(女)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성)
010-8954-8033

배 우 자 구 함
남 59세. 농장 운영 겸 회사원
텃밭 가꾸며 외로움과
노후를 함께 할 홀로 되신
진실한 여성 인연 바랍니다.
(평일만 19시 이후 통화 됨)
010-4074-30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보시금 130만원)
055)375-0142
011-880-6606

임종 전까지 함께 할 50세 전후의 신심깊고 후덕한 보살님을 찾습니다
02)584-8844

심 와 기 도
• 업장을 소멸시키고 운도 바뀌게 하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명리,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신심있는 공양주(60세 이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 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거제도)
010-5579-0404

기 적 의 물
■ 만병치유의 자화육각수, 지상수,
암반수가 나오는 각 지역 사찰
한 곳만 지정하여 최저비용으로
설치가능
■ 국내최초, 자장황토 '氣'토굴 쑥뜸방 설치)
010-4191-0455
무아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근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프리랜서 직원 모집합니다
40세 미만
모집인원 : 00명
02)365-7747 / 010-9468-1714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지장사
• 주 지 : 기종 (속명 : 이정로)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724번지
본인은 연화조계종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556(2012)년 음.4월 22일(양 6월 11일)
연화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초유선원
• 주 지 : 석암 (염석암)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366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35(목)
- 요사 : 60평
- 삼성각 : 5평
- 부지 : 2200평
- 가액: 약 30억이 소요됐으나 사정상 경남 부산, 양산, 창원지역 20억 정도 건물이나 사찰과 교환하고저 합니다

- 위치 : 경기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부지 : 80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5(목)
- 요사 : 75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및 토 굴 안 내

경남 사천 아름다운 토굴(급)

- 총 부지 : 630평
- 건물3동, 법당25평, 요사(방5칸)
- 사천읍내 5분거리
- 가액: 1억8500(은행 7천)

대 사찰 급 양도(반값)

- 총 부지: 약 1000평(평지)
- 건물8동,목조40평 2동, 요사채 방(12개)
- 사천왕 ●종가: 대북, 대종
- 진주공원 부근,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총가액: 9억(은행 6억가능)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및 연수원

- 충북 옥천군 대성산 278,800여평
- 평당 5,000원 , 좌청룡 덕운봉 국사봉 반안폭포 33m 동향
- 사찰 연수원 묘터 괴산군 문광면 매화낙지형
- 동향 18,800평 평당 2만 5천원 별장 묘터
- 명당 다량확보 풍수형 봉황형 거북형 95%로 화장을 하고 5%로 명당에 묘를 쓰면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할 인재 수재가 많이 배출됩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남이 찾지 못하는 명당 자리를 찾아 드립니다
합곡명당 바위명당 명사란 땅팔자 사람 팔자를 알아야 명사라 할수 있습니다
(샛별을 보고 득력) 풍수지리 명사 018-413-3377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구역, 고속터미널부근
- 5층건물중 3층
- 평수 60평(법당,방3,거실, 공양간,욕실)
- 삼존불,탱화(상단/신중 /칠성/산신)
- 소불 200불, 전통나무불단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88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 모든비품일체양도, 법회즉시가능

010-4634-3015

포교원안내

- 위치 : 영남 창원시 명곡동
- 전 1,200평, 2500평, 3600평
- 평당 65만원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땅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창원 통합시 인구 110만명의 도심속의 주변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 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 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
010-3518-39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임야 2500평, 야산 5000평, 대지 1500평
- 건평 110평, 법당 50평, 요사채 60평, 산신각
- 주차장 2,000평
- 소나무 많고 산세 좋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0-9433-3543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양천구 신월 6월
- 상가건물 2층 ●방2개, 33평
- 아미타,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불, 3년전 개금
- 보증금 800만원 월 50만원
- 총 3000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1-340-5963
010-2964-872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 집기일체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5555-8744

도심속산중사찰

- 위치 :경기도 파주읍
- 대웅전 24평
- 요사채50평, 방3,큰주방1,욕실1 난방, 심야보일러
- 대로변에서 5분거리 주변은 산
- 보증금 3천만원 월1백만원(조정가능)
- 시설비(양도도 가능)

010-4517-5502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9억(절충가능)

010-2503-0776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 11억 예산
(서울 – 안양 – 의왕)

010-3678-256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군포역 부근
- 면적 : 65평, 방 9개
- 시설비최저가절충
- 즉시입주가능
- 보증금 천만원 월세 팔십

031)427-4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 평수: 4층 건물에 2,3층 사용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390-66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 평수: 4층 건물에 2,3층 사용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390-6654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 526평
- 사찰이나 전원주택지
- 평당 80만원 ●30평 허가나 있음
- 절충가능(최대1억5천만원융자가능)

017-855-6717
017-856-234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음성에서 20분거리
- 대지 139평
- 1층 요사채 (공양간, 방3, 거실, 샤워실)
- 2층 대웅전(법당), 건평 21평
- 심야전기 보일러, 주차완비
- 가액: 1억 7천만원

010-5469-833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맞은편
- 남산에 위치한 경관좋은 명당터에 자리 잡은 암자, 땅주인 따로대작불자 하실분, 도통을 원하시는 분, 불치병에 걸리신분이 이 텅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2채
- 가액: 1억 5천만원

010-6488-2677
054)776-26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
- 2층 삼존불, 3층 산신각 2층,3층 사용, 각각 8평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700만원
-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010-3070-81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
- 법당, 목조 31평
- 요사채 위 50평 아래 70평
- 공양간 15평, 산신각 4평
- 과수원 30주 ~100주 총평수 5천평
- 지장보살(석) 1분
- 가액: 28억 5천만원

010-5199-7729

아담한 토굴안내

- 강릉시 사천해수욕장 뒤 아담한 토굴
- 큰 불사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
- 대지 텃밭 합 약 250평 (1년도지 20만원 야채는 자급자족)
- 법당 외 방 4개, 목욕탕 1개 화장실 2개, 종1, 집기일체
- 양도 가액 3,970만원(절충가능)

010-2461-3014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감정동 소재
- 평수: 56평, 시장인근 최요지
- 4층건물 중 2층
- 대법당, 친견실,스님처서, 공양간, 창고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3565-4931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 40대가능
- 가액: 5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500평
- 법당: 건축허가완료
- 요사 : 30평,건축허가완료
- 가액 : 최대한 협의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불교용품점(급)안내

불교 용품 전문점 (중, 대형)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성업중 . 개인 사정상 급 양도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가액: 상담 후 결정

010-6397-9449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8차선대로변
- 3층건물 3층, 법당 25평, 방3개,공양간1, 화장실2
- 2층 옥상 마당같이 넓은 25평 사용
- 총평수 100평
- 설비: 영가단, 후부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불기 일체
- 가액: 전세 7천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864-1095

전원주택.실버.요양지적지

-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67번지.현 전원주택
-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갖춘 정남향
- 스틸하우스 1동 23평
- 컨테이너 건물 2동 8평
- 나무때는 황토방 1동 3평
- 대지 : 554평, 1억 9천 5백만원

011-9517-8526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신원면내 소재
- 대지 145평, 건물 25평, 방4, 인법당1
- 입식주방1, 수세식화장실1
- 자연생수(석간수) 텃밭, 마당까지 차진입, 차고 있음 , 마을에서 500m 떨어져 있음
- 10m 전방에 마르지 않은 계곡
- 가액: 5,500만원

010-3509-0124

전원주택 겸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월정사입구
- 평수: 2500평 (토굴가옥1채포함)
- 계곡물 맑게 흐르고 양지바르며 자연경관이 수려함
- 가액: 2억 5천만원

010-9057-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2리 240번지
- 평수: 54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2동 각 13평, 5평
- 가액: 1억 7천만원 (꼭 하실 분 절충가능)

011-571-8961
010-2739-3816

최고의 암자터 급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소재
- 최고의 명당, 도로접
- 임야 4830평
- 가액: 4천만원

010-4396-7737

사 찰 안 내

- 물 좋고 공기 좋은 경북 왜관 사찰
- 부지 : 2천 500백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대출 1억 6천포함
- 총포함 4억 9천만원

010-7246-01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기장군 읍 대라니
- 평수 : 82평, 4층 4층
- 법당 : 삼존불, 신중단, 칠성, 용왕, 산신, 지장단
- 인등 : 지장등 관음등
- 종무소, 주지실, 친견실, 주방, 화장실, 창고, 최고시설,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 9백만원

010-5031-8089

대형사찰터안내

- 위치: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
- 대지 전 합 2만 7천평
- 주택 3동 다수의 농가주택
- 소백산정상구인사반대편 국만봉
- 상월봉신선바위아래 청정계곡상류
- 가액: 합 35억

010-3288-1317
서울권 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 나주 중간 도심근교
- 토지 400평
- 법당, 요사채
- 가액: 1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011-9602-2293

사 찰 안 내

- 팔공산 한티재 부근
- 대지 200평,법당, 요사채 60평
- 삼존불, 노상 지장보살님
- 집기일체 양도
- 주변 경관수려함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60만원
- 시설비 2천 8백만원

016-849-88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흥동
- 5층 80평, 엘리베이터 有
- 천안역 3분거리 ●관음, 칠성, 산신, 용궁 모셔져있음, 후불탱화,신중탱화
- 법당, 큰방1, 에어컨2대, 냉장고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조정가능)

041)558-6658
010-4781-865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지산동 아파트 단지
- 평수 : 4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법회 즉시 가능

010-7726-23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대지 86평, 건평 114평
- 3층건물
- 1층 고양간 2층 스님 서재
- 3층 법당 (각 30평씩)
- 가액 : 3억

010-4516-8930

사찰(급)안내

- 위치:부산 서구
- 평수 45평, 법당 45평
- 삼존불, 후불탱화, 칠성탱화, 신중탱화 외 모셔져 있음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2499-23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사찰등록)
- 평수 40평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 실,주방포함) 공양간별도있슴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비품일체)

010-8940-5858
055)252-3172

살아 있을 때는 삶,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도 없게 된다. – 벽암록 –

마음 길들이기

아쟌 차 스님 (태국)

〈3〉 놓아버리는 공부

'놓는 공부'는 최상의 수행법 어떤 것도 지니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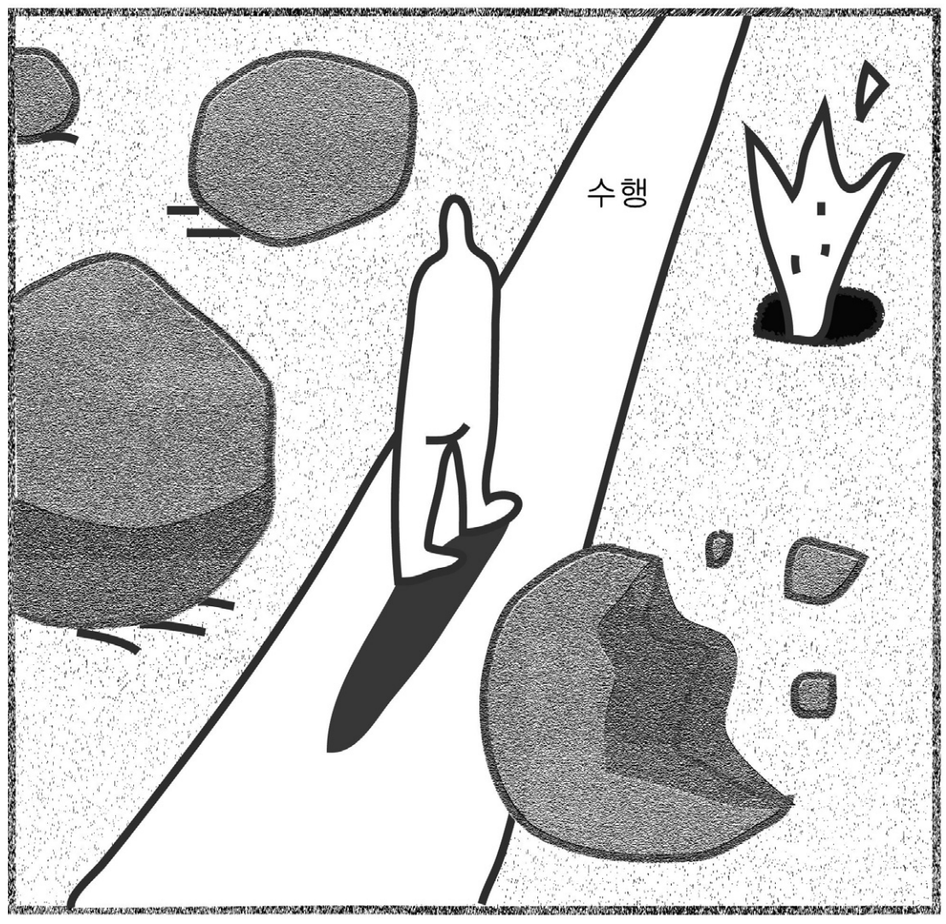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수행은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한것

마음은 단지 마음이며, 생각과 감정은 단지 생각과 감정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 두십시오! 색깔을 단지 색깔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놓아두십시오. 왜 우리가 그것들에 매달려서 신경을 써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놓아버리는 식으로 사유하고 느끼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것들과 떨어져서 따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이 한쪽에 서게 되고 마음은 다른 쪽에 서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마치 물과 기름이 같은 병 속에서도 따로 나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과 깨달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같이 살았을 뿐 아니라 이들 평범하고 깨닫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귀하고, 깨달은,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쳤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수행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이것이 오로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정 수행이 진전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출가하여 승단에 들어온 것은 미혹에 빠져 헤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비겁해서이거나, 두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출가는 우리 자신을 길들이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이해를 확고히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법은 더욱 더 명명백백해질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합니다. 또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법을 이해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가 되십시오

요즈음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법의 찌꺼기만이 규범으로 받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찾아 어떤 다른 곳에서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지혜를 통해 벗어나십시오. 무지의 어리석음[無明] 속으로 도피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화를 원하거든 지혜로운 평화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을 바로 볼 때만이 거기에 바른 길이, 바른 도가 나타납니다. 번뇌는 단지 번뇌일 따름이며 마음은 단지 마음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사물로부터 떨어져 따로 설 때 사물은 진정한 실상 그대로이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단순한 객체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한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언제나 거기에는 열린 마음과 자유가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내 말을 주의깊게 들어라. 그대들은 어떤 법(dhamma:대문자 담마(Dhamma)는 부처님이 발견하고 널리 가르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법이고, 소문자 담마는 어떤 특성 · 사물 · 마음의 대상 등 모든 현상을 의미한다. 이들 담마의 의미는 중첩 되기도 한다)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체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과 증오도 법이며, 즐거움과 괴로움도, 좋아함과 싫어함도 법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법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을 실천할 때 그래서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잡고 있던 것을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조건들, 우리 정신의 모든 조건들, 우리 몸의 모든 조건들은 항상 변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할 것이며 더 이상 무엇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번뇌를 마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올바르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르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번뇌입니다. 즉 번뇌란 놈이 스스로 골치 아프게 돼 우리를 방해하고 온갖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번뇌를 번뇌인 줄 모르고 내 마음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충실히 따르면 결코 어떤 문제거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부처님의 도에 매달리면 어떤 고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는 현상을 이루는 모든 법을 하나하나 풀어 '놓아버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선정의 최상의 수행법으로서 부처님께서는 '놓는' 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것도 지나지 마십시오! 떨쳐 버립시오! 좋은 일을 보아도 놓아버리십시오. 옳은 일을 보아도 놓아버리십시오. 이 '놓는다'는 말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놓아버리는' 방법 그 자체를 따라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가르치셨으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살핌으로써 도(道) 공부를 바르게 지어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법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 속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을 닦는 사람은 힘있게 정진해야 합니다. 마음이 더욱 커지고 밝아지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자유롭고 독립되도록 하십시오. 선행을 하고 나서 그것을 마음속에 지니지 말고 놓아버리십시오. 나쁜 행위를 삼가고서도 그것을 놓아버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 속으로, 혹은 미래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떤 법에도 집착하면 안된다
무엇을 얻기 위해 수행하지 말라"

마음·생각·색깔·소리 등 모든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 두십시오
왜 그것들에 매달려 신경 쓰는지?
번뇌는 번뇌일뿐, 마음은 마음일뿐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고 이해할때
잡고 있던것을 놓아줄 수 있어요

과거 · 미래 아닌 지금 여기에서 사세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 하고 또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과 가장 상충되는 가르침이 바로 이 '놓아라' 라든가 '빈 마음으로 일하라' 는 가르침입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을 '법의 언어(Dhamma language)'라 합니다. 이를 세속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면 혼란에 빠지게 돼,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는 말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소지도 없지는 않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까운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무거운 바위를 끌고 간다고 칩시다. 조금 지나자마자 우리는 그 바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놓아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던져버리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걸 던져 버리면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걸 던져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걸 믿지 않은 채 "내가 이걸 던져 버리면, 난 아무것도 없게 돼"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 허약해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때까지 그 무거운 바위를 끌고 가다가는 마침내 힘에 겨워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걸 떨어뜨리자마자 우리는 갑자기 놓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이로운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곧바로 가볍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며 바위를 끌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위를 놓기 전에는 놓아버린다는 것의 이익을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놓아버리라고 얘기해주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바위를 붙들고 놓지 않다가 마침내 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진 다음에야 할 수 없이 놓고 맙니다.

그때 그는 홀가분함과 안도감을 스스로 느끼며, 놓아버림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이익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거듭 짐을 지게 되겠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 그리고 놓아버리면 편하고 홀가분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알게 된 구체적인 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글은 (사)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보리수잎 시리즈 중 2편 〈마음 길들이기〉의 내용입니다.

893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3평반
- 청돌암반지하수 130m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맞은편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주방가구 일체
- 30평, 방2, 주방,샤워실
- 가액: 보증금 6백만원, 월 59만원
- 시설비1천만원, 주방기구 일체

010-2208-774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어 및 사용면적 약 500평
- 가액: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1-9108-5589

포교원안내
- 위치: 목포시 산정동 (사거리 코너 건물)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 집기일체 양도
- 4층의 3층, 43평
- 길건너편 아파트 1400세대 공사 착공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2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3535-24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기장군 청강리
- 평수: 65평, 3층의 2층
- 천수천안, 후불, 신중
- 방3, 주방, 탈의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8948-2612

전원주택 및 기도처
- 위치: 함양군 서하면 노을정 주변
- 대지 230평
- 건물 하우징 목조주택 20평
- 주변이 화려하고 계곡물이 흐르는 곳
- 전원주택 및 기도처로 적합
- 가액: 7천만원

010-8828-3718

포교원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01-2
- 층수 : 1층 건물 • 건평 약 30평
- 전용 주차장 5대 • 뒷마당 약 20평
- 보증금 500만원(월 60만원)조정가능
- 불사금 500만원 (연등 200개, 관음, 냉장고 3대, 에어컨 2대, 일체생활 구비되어 있음

010-4134-45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 평수: 대지 86평, 건평 114평
- 3층건물
- 1층 공양간, 2층 스님 서재
- 3층 법당(각 30평씩)
- 가액 : 3억

010-4516-8730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현우경' 이야기 (25)

5명의 상인을 살린 늑나사야

바다에 자기 몸 던져 따라간 사람들 구제

어느 나라에 늑나사야라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나라에서 제일가는 큰 상인이었다. 어느 날 늑나사야는 숲에 들러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 거지?"

늑나사야는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나무에 밧줄을 묶고 목을 매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 늑나사야는 깜짝 놀라 뛰어갔다.

"자네는 왜 죽으려고 하는 것이오? 사람의 몸을 얻고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시오?"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지나가던 길을 가십시오."

"누구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죽음을 선택하게 되오. 그렇다고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소."

늑나사야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타일렀다.

"저는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살면서 돈을 갚아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매일 같이 빚쟁이들이 저를 찾아와 괴롭힙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려는 것이니 상관 마십시오."

늑나사야가 말했다.

"지금 바로 나무에서 내려오면 그대가 진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소."

그는 늑나사야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늑나사야의 말이 진심임을 깨닫고 나무에서 내려왔다.

"정말 제 빚을 다 갚아주시겠단 말입니까?"

늑나사야는 그와 함께 빚쟁이들을 찾아갔다. 그리곤 그의 빚을 일일이 다 갚아주었다. 마을에 이 사실이 금방 퍼져나갔다. 나머지 빚쟁이들도 늑나사야를 찾아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아갔다. 늑나사야의 재물은 빚을 갚아주다 점점 떨어져 갔다. 하지만 빚은 끝이 보이질 않았다.



삽화 · 강병호

결국 늑나사야의 부인과 자식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구걸을 다녀야 했다. 가족들은 늑나사야를 몹시 원망했다.

"저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빚을 갚아주다가 자식들이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당신은 미쳤습니다. 어째서 재물을 그 사람을 위해 다 탕진한단 말입니까?"

그때 어떤 상인들이 늑나사야를 찾아왔다. 그들은 늑나사야에게 제안했다.

"제가 보물이 있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할 텐데, 저에게는 배를 살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현재 5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모두 돈을 합하면 배를 장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늑나사야는 상인들의 제안에 승낙했다. 늑나사야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대들도 나를 따라 보물을 찾으러 가겠는가?"

그때 5명의 상인들이 늑나사야의 말에 승낙하며 보물을 찾기 위해 따라나섰다. 늑나사야와 500명의 상인들은 모두 3000냥의 돈을 모았다. 1000냥은 배를 구입하고, 1000냥은 양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냥은 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

얼마 후, 출항할 준비를 마친 이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항해를 한지 며칠이 지나 폭풍이 불어 닥쳤다. 매서운 파도는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결국 배는 난파당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때 늑나사야를 따라온 5명의 상인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믿고 이 배에 탔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늑나사야가 말했다.

"큰 바다는 시체를 바다에 묵히지 않는다고 들었소. 나를 붙잡으시오. 내 몸을 바다에 보시하고 당신들을 구제해 주겠소."

늑나사야는 칼로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그가 죽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5명의 상인들은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됐다. 죽음의 고비에서 큰 자비심을 낸 늑나사야는 시간이 많이 흘러 부처로 태어났다. 또한 늑나사야가 살린 5명의 사람들은 번뇌의 큰 바다를 건너 바른 법을 얻게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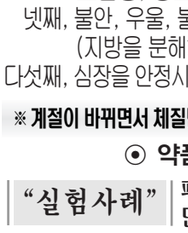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대행 스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좀 주인공을 믿고 맡겨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면 그것을 리드해나가는데 어떻게 리드해나가야 되느냐? 부처님 법은 이렇게 한다도 없고 저렇게 한다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고정되게 딱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닥치는 대로 대치해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다 하고 하는 게 부처님 법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면 그대로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대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놓고 아파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삼풍백화점에 그 난리가 난 것도 바깥으로만 끄달리고 자기 콩씨는 짐작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침착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벌써 이런 공부하는 분들은, 진짜로 자기 콩씨를 믿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무너지게 짓지도 않겠지만 어느 옆이 잘못됐으면, 벌써 통하게 되죠. 통하질 못하면 하다못해 꿈으로라도 그냥 보여줘요. 이런 예가 있죠. 집을 짓는데 이 공부 하는 사람의 꿈에 그러더랍니다. "야! 이쪽이 잘못됐으니까 이쪽을 봐봐. 가서 봐봐. 거기를 한번 이렇게 헤치고 봐봐!"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뭐가 딱 그냥 모래하고 양회가 같이 들어가서 콱 메워져서 그냥 요지부동이더랍니다. 그거를 만약에 다 해놓고 그랬으면, 집 반쪽을 다 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주 탄복을 했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공부 하는 자체가 벌써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콩씨가 콩싹을 형성시켜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산다고 아주 그냥 야단들이거든요. 자기가 사는 게 뭐 있습니까? 물 한 모금을 먹어도 혼자 먹지 않고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서로서로 먹고 사는데. 이거는 과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의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느 과목이든 들어가지 않는 과목이 없어서 심성천체물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禪)과 학(學)은 둘이 아닙니다. 몸과 자기 불성도 둘이 아닙니다. 콩씨와 콩싹이 둘이 아니듯이 떼려야 뗄 수가 없죠, 그거는. 콩싹이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싹이 없으니까요. 진짜로 '아이고, 나는 바빠서 할 사이가 없어서 못합니다.' 요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하하하. 그럴 때 보면요, 난 저절로 웃음이 나고 아주 죽겠어요, 그냥. 허허허. 아니, 세상 살아나가는 게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게 자기가 태어났으면 콩씨가 콩싹을 형성시켜서, 자기가 또 콩씨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고는 살아나가는데 아이, 글쎄 누가 백일기도를 하랬나, 누가 삼천배 절을 하랬나, 응?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앉아서 '주인공(主人空), 너만이 네가 있다는 증명을 해줄 수 있어.' 하고 관(觀)하고, 또 여유가 없으면 그냥 서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관하고, 앉으나 서나 변소에 가나, 더럽고 깨끗한 게 불법엔 없으니까, 변소에 가나 어딜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다 그냥 통하는데 뭐가 바빠서 못합니까, 글쎄. '난 참, 아이 바빠서.' 하하하.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바깥으로만 끄달리던 분들도 안으로 관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내가 있으니깐 모두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콩씨와 콩싹은 떼려야 뗄 수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세요. 또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업으로 자손을 낳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원수로 자식이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선업으로 자식이 생기는 일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 자식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자손들도 원수로 태어났다면 말도 못하게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또 선업으로 태어났다면 그 가슴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주어서 흥락하게 만듭니다. 또 원수가 아니고 업장으로다가 만났다 이런다 하면은, 극하게 그렇게 나가서 그냥 온통 그 속을 썩힙니다.

그러니 그것을 녹이려면은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려도 아니 됩니다. 말로 한다면 오히려 더 빗나가요. 아주 듣기도 싫어하구요. 그리고 만약에 때렸다 하면은 '아이 요놈, 때렸어?' 하곤 그냥 또 나가죠. 허허허. 여러분 참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녹이는 방법이 어떤 거냐. '업장이 생기게 한 것도 너고 업장이 안 생기게 한 것도 너고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 같이 공(空)했어. 나는 내가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모두가 너만이 해결을 할 수 있어.' 그러곤 그냥 딱 거기다가 맡겨놓고 지켜보기만 하라 이런 겁니다. 개미도 나가서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아는데 어찌 사람이 나갔는데 자기 살 궁리 안 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줘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몰라요, 귀한 거를 모르고.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어서 산다는 그 자체를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 사는 거죠. 그러면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도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불이 들어오게, 항상 같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한방에서 같이 사는 식구인데 착이라고 할 건 없지만 어찌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사랑을 하려면 '너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거늘 어찌 너한테는 불이 안 켜지랴. 다 한마음으로서, 밝은 마음으로서 대치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바로 너뿐이 아니냐.' 하고 자꾸 관해준다면 나갔던 놈도 그냥 기를 쓰고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주인공, 주인공 이름만 찾고 그러고선 "아휴! 나갔던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아팠던 사람도 이렇게 잘 낫질 않습니다" 이러거든. 그래 내가 의사냐? 하하하. "내가 의사라서 그렇게 고쳐주냐? 너한테 너 자체의 한마음이 천차만별로 화해서, 마음이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찌 의사는 안 되겠느냐? 아프면 의사가 돼주고, 명이 짧으면 칠성(七星)이 돼주고, 또는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地藏)이 돼주고, 가난하고 일이 생기면 관세음(觀世音)이 돼주고, 물에서 사는 사람은 용신(龍神)이 돼주고, 조왕이 돼주고, 지신이 돼주고 다 그렇게 천차만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돼주는데 뭐가, 뭐가 잘못됐느냐? 네가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니까 너 알아서 해. 내가 만약에 할 줄 알아서 내가 해줬다 하면은 너는 아주 구할 길이 없어." 이렇게 해나가고 이렇게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허, 나도 애로가 없다고는 못 보나 때로는 이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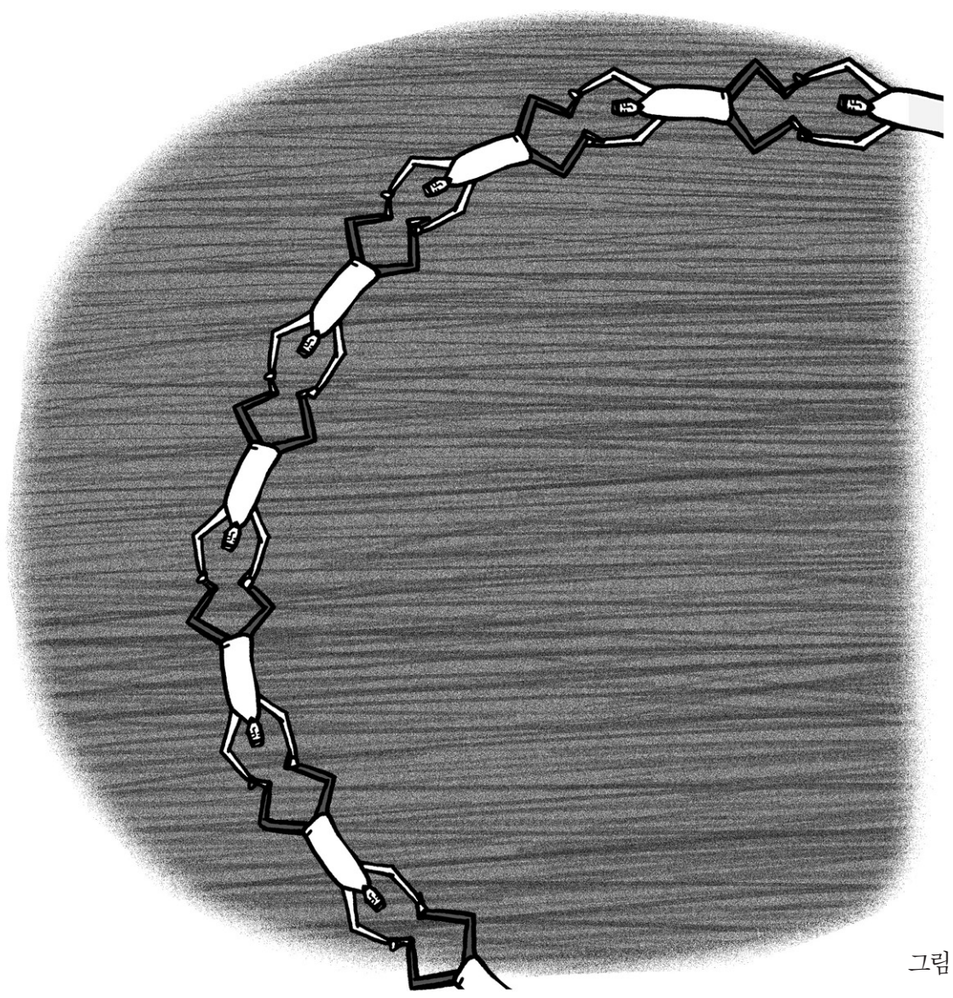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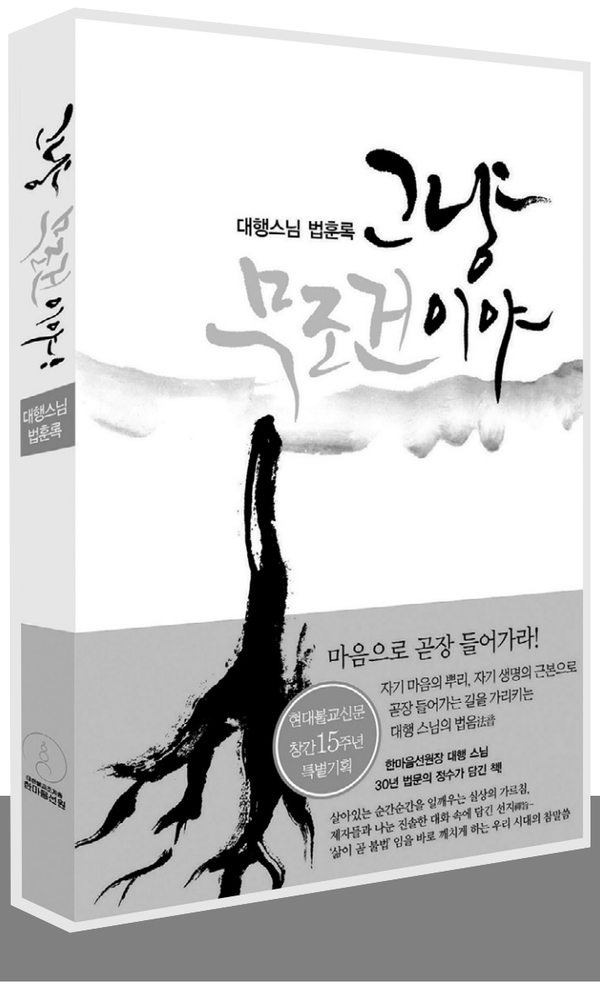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릴 줄 알아야

☞ 29면에서 계속

럽니다. '에이, 그냥 그럭하는 거, 그냥 자기 탓인데, 뭐. 과거로부터 자기가 지어서 자기 탓으로 온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한 거를 나한테다가 뭐 어쩌구저쩌구. 아이그, 다 알아서 해.' 이러고는 팽개쳐버리려 해도, 그렇게 마음이 울적했다가도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럽니다. 나 같은 사람 뭘 보고서 왔겠는가. 나의 고깃덩어리를 보고 오지는 않았을 텐데. 잘났든 못났든 그 마음이 아리땁지 못하다면, 그리고 같이 한마음이 돼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랑보다도 자비가 없다면 내가 될 수 없고, 내 아픔이 될 수 없고, 내 도량이 될 수 없고, 바로 더불어 같이 살 수 없으니 어찌 내가 아니랴.

한 사람을 건지려면은 과거로 수백 번 돌아가고 수천 번 돌아갔다 오고, 이렇게 마음이 이런 짓을 해야만이 그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지어가지고 현실에 모두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짐승으로 돼 있다거나 사람으로 돼 있다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또 몇 집을 걸러야 되겠죠? 여러분은 알지 못하니까 아,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됐나 하고 괴로워하시겠지만 괴로워할 것도 없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느 때든 내가 시원찮게 얘길 하더라도, 용어가 잘 되지 못해서 시원찮게 얘기를 하더라도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배운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서 지혜롭게 들으세요. 그래서 아주 마음 깊이 지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목적을 두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질문자1(남): 큰스님, 큰스님의 자비한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큰스님의 자비하신 말씀에 언제나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다시 큰스님의 자비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질문을 올리게 됨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죽어가는 이 육신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지요?

큰스님: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콩씨를 믿고 콩싹은, 예를 들어서 댁의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이 전체 살고 있는데 댁은 그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관리인이며, 즉 말하자면 집합소밖에는 될 수 없죠. 그런데 항상 내가 산다고 하니까 거기서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음이 돼야 이게 작용을 해줄 텐데 한마음이 돼주지 않는다면은 대뇌로 통신이 되질 않아요. 대뇌에 통신이 돼야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집착만 하지 마시고 전체 주인공에, 말하자면 전체 주인공의 일이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댁의 몸뚱이 한 덩어리에 생명체들이 헤아릴 수 없이 산다면 한 덩어리가 한마음으로 살고 있는 어떤 한 개체지, 혼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좀 마음을 넉넉히 써서 '네가 끌고 가는 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좀 맡겨봐요. 그리고 죽는다 산다를 떠나봐요, 좀. 응? 죽이든지 살리든지 제가 끌고가는 거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제삼자인 내가 그렇게 애씁니까? 아, 생각해봐요, 글쎄. 자기가 형성시켜서 자기가 끌고 가는 집이 헐어졌으면 집주인이 고쳐야지, 왜 집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응? 이 집이 헐어졌으면 이 집 지은 사람이 고쳐야지, 왜 이 집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안 그래요?

질문자1(남): 네. 그리고 우리는 왜 사람들끼리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며 타인을 헐뜯어야 하는지요. 이것도 이때까지 지내온 습과 인연의 소치인지요?

큰스님: 뭐라고 그랬는지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내가. 하하하

질문자1(남): 왜 사람들끼리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며 타인을 헐뜯어야 하는지요? 이것도 이때까지 지내온 습과 인연의 소치인지요?

큰스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세상도 벌어졌고 상대성도 생겼고, 종교도 생겼고, 가정도 생겼고, 자식도 생겼고 그런 건데,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잘하든 못하든 남의 탓으로 돌리니깐 그렇죠. 기껏 투자를 해놓고 그게 잘못되면 그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냥 가게도 기껏 얻어서 그게 잘못되면은 네가 잘못해서 그랬느니 마느니 하고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이게 뭣들입니까? 이게 부처가 될 수 있는, 99%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의 탓을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입니다, 이거는. 그건 내 탓입니다, 다 각자. 아내가 잘못해도 그렇고 남편이 잘못해도 그렇고, 또 자식이 잘못해도 그렇고, 내 탓으로 돌려야 그 무질서한 업이 다 그냥 지워집니다, 싹 쳐 그냥. 그런데 그렇질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하고 네가 벌었느니 내가 벌었느니 하고, 네 돈이니 내 돈이니 하고, 내가 했지 네가 했니 하고 이러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제일등 가는 인간이 되어서, 제일등 가는 부처로서, 제일등 가는 에너지를 자유스럽게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도량이 돼야죠, 마음의 도량이요.

질문자1(남): 그렇다면 진정한 즐거움과 고통이 무엇인지 큰스님의 자비하신 법문을 재차 상세하게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은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있으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욕망이 있고 착이 있고 욕심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지 만약에 내 생명까지도 다 팽개쳤다면 아무것도 붙을 게 없어요. 이 하늘이 지금 당장 무너져서 그냥 납작해진다 하더라도 "허허! 그래?" 이러고 웃을 거예요, 아마. '그래.' 그러고 웃게끔 될 수 있어야 그거를 (손바닥으로 허공을 받쳐 보이시며) 떠받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진정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루속히 그저 콩싹이 콩씨를 알아서 영원토록 그 콩씨로 인해서 모두 먹고 콩씨가 되남고, 또 먹고 되남아도 영원하리라고, 끝간 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느냐 그것이 제일 걱정이죠, 뭐. 그냥은요, 여러분이 걱정이 있다고 그러는 거, 나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뭔 걱정이 있을까? 지금 당장 그냥 밥을 굶는다 해도 '허어, 밥 굶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그러고 달랑 나가자빠지란 말입니다. 하하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 단지 내가, 내가 있다는 거,
> 내가 있으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욕망이 있고 착이 있고
>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지,
> 만약에 내 생명까지 팽개쳤다면 아무것도 붙을 게 없어요.
> 하늘이 당장 무너져서 그냥 납작해진다 하더라도
> "허허, 그래?" 하고 웃을 거예요, 아마.
>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큰스님: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체험한 것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실천해나가는 그 도리를 모두 기록해서 세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공부 재료가 됐으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두 알아져서,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불교 하면은 경전이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팔만대장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법화경』이니 『화엄경』이니 또 『금강경』이니 이렇게 모두 있고, 또 강원이나 승가대학, 동국대학에서 배우는 거 이런 것을 볼 때에, 모두가 그 재료로써 내가 배울 수 있게끔 체계를 세워놓지를 않았고, 우리가 또 체계를 세워놓지 않았는가 하면은 그거를 글자 풀이로써만이 해도 아니 되고, 이거는 무(無)의 세계와 유(有)의 세계 즉,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같이 혼합해서 엮어져야만이 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을 모두 교재로 내보내서 단란한 우리 지구도, 즉 말하자면은 홀랑 승천해버리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질문자2(여):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쌍파울로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큰스님: 네.

질문자2(여): 저는 쌍파울로에서 진각사란 절에 다녔습니다. 전 큰스님 말씀마따나 갖다 빌고 내가 달라는 것만 알았지 제 마음공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큰스님을 알고부터는 제 마음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공부를 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스님 뵙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꿈을 꾸니까 큰스님께서 보따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가지시고 제 안방에 오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언니들도 있고 또 우리 동생도 있어서, 한마음선원이 너무너무 이 마음공부하는 데 좋고 그러니 같이 가자고 제가 이끌고 큰스님을 한번 뵈었어요. 그런데 큰스님께서 "개같이 놀면 개로 태어나고, 사람같이 놀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마음 정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쌍파울로 브라질에서 옷장사를 해요. 그리고 원단도 수입을 해서 팔고 원단을 또 옷을 만들어서 제가 입은 이 옷도 제가 만들고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국에서 갈 때 너무 애절했어요. 왜?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외국생활 하면서 참 한푼 두푼 모으다 보니까 조그만 돈이고 마음은 있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스님 마음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가서 잘 살어." 그러시더라구요, 큰스님께서. 그런데 아, 지금 제가 한국을 나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믿는 법도 틀렸고, 모든 걸 둘로 보았습니다. 제가 주인공을 믿었다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제가 둘로 봤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큰스님 법문을 듣고 정식으로 이 주인공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끌고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 저는요, 마음을 내서 진짜 제 모든 사업이 잘되어 저도 물질이 따라서 지원을 꼭 내고 싶습니다. 큰스님, 마음 좀 내주세요.

큰스님: 잘 해봐요. 허허허. 댁에가 잘하면 또 갈 수 있는 스님네가 생길 거고 그러니깐요. 댁네가 모두 잘하지 않는다면 스님네들이 있다고 해도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댁네들이 잘하는 대로 스님네들이 생기는 거지, 허허허. 잘못하면 스님네들이 안 생기지. 그건 그릇대로 가는 거니까. 다 됐습니까, 이제?

※위 법문은 1995년 7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전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 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1인용 : 58만원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고급신형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여익구 선생을 추모하며

한국불교 잠깨운 '멱정의 꿈' 잇겠습니다



현응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무더운 6월, 잔잔한 초여름 연못에 가볍게 미풍이 불더니 커다란 홍련이 활짝 피었습니다.

붉은 연꽃인 선생께서는 나른한 침묵과 게으름 속에 잠자고 있는 이 땅의 불교와 사회를 향해 민중불교의 꿈을 다시 한번 활짝 펼쳐 보이셨습니다.

선생께서 홀연히 육십 육년의 사바 인연을 접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갑자기 붉은 연꽃이 활짝 피어나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께서 한세월 머무신 20세기 중반 이후의 한국 사회는 세계사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차별되고 왜곡된 구조적 모순이 깊어갔고, 개인적 슬픔과 고통은 뜻모를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병영체제가 되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과 내용은 너무 처참할 정도의 민중적 고통을 야기 시키고 있었습니다.

선생께서는 20대 젊은 시절에 한차례 큰 사회적 고통을 겪은 뒤 '멱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문에 의탁해 치열한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멱정'이라는 불명은 '꿈을 찾는 나그네'라는 뜻이었고, 용맹정진한 내용은 선생이 그렸던 이상사회의 꿈과 부처님 가르침을 접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용맹정진의 결론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선생은 5년만에 다시 하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 외쳤습니다.

"민중불교를 실천해 이 사회를 현실에서 바로 정토사회로 만듭시다!"

'민중불교'는 선생이 찾아냈던 사회적 꿈이었고, 평생을 통해 이루려 했던 꿈이었습니다.

민중불교는 내생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생에 이루자는 불교입니다.

민중불교는 개인적 행복은 사회적 실천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불교입니다.

민중불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불교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교입니다.

'멱정' 불명 받아 용맹정진
민중불교, 금생에 이루자는 원
대동사회 정토사회 꿈 키워

민중불교는 지배자나 더 강한 자 더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약한 자와 부족한 민중을 존중해 마침내 차별 없는 대동 사회를 이루려는 불교입니다.

민중불교는 부처의 불교가 아니라 중생의 불교, 그리고 중생의 사회적 이름인 민중의 불교입니다. 마침내 민중불교는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종식하고 열반의 안락을 이루려는 이상사회의 꿈이었습니다.

멱정 여익구 선생께서는 민중불교라는 이름으로 이상사회의 꿈을 찾았고, 평생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선생께서 제창하신 민중불교는 1980년대 잠자던 한국불교를 깨워 일으켰고, 움직이고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 변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무기력과 침체의 늪에 빠진 이 땅의 보디사트바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마지막으로 홀연히 유월의 태양아래 붉은 연꽃을 피워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연꽃의 향기를 맡으며 선생에 펼치신 민중불교의 꿈을 이어갈 것입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십시오.

"조계종 쇄신계획,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6월 7일 조계종총무원이 1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1일에는 쇄신계획의 입법을 다루는 종회도 열린다. 어느 때보다 세간과 출세간의 관심이 조계종의 쇄신에 모이고 있다. 불교계도 잇달아 성명서와 결의문을 내고 기대를 표하고 있다. 교구본사, 불교시민사회단체 등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종법 제개정에 신중 기하자

현조 스님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종단의 쇄신계획에는 환영한다. 쇄신계획이 한국불교 변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주사와 전국 교구본사 사부대중 역시 종단 쇄신에 함께 할 것이다.

종단도 이번에 발표한 1차 쇄신 계획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중앙종무기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실천과 의지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

이와 함께 쇄신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 수렴도 이뤄졌으면 한다. 특히 쇄신 관련 종법 제개정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개정하기 어렵고 공론화하기도 어려운 만큼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교구본사주지들도 사부대중 공동체의 가치를 가슴 깊이 간직해 쇄신 불사를 동참해 나가겠다.



감동 · 믿음 주는 쇄신 하라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종단 지도부의 1차 쇄신계획안에 대해 종단 지도부는 대체적으로 지지, 또는 긍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하지만 지도부와 단체 간 온도차가 너무 크다. 세간의 평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한 마디로 감동과 믿음을 주기엔 턱없이 모자랐다는 얘기다. 이제 총무원 집행부는 백척간두에 진일보의 자세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불교라는 그 당당하고 헌걸찬 진리를 올바르게 펼 수 있는 틀, 곧 종단의 근본철학과 유기적 짜임새를 온전하게 정립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불교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종교다. 종단의 쇄신도 이 '신해행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표한 제1차 쇄신안이 성공 할 수 없으며, 대중의 호응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의 쇄신을 하라.



재가자, 한국불교 위한 답 찾자

성태용 교수 우리는 선우 이사장

1차 쇄신안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이 여론수렴과 내부조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이번 쇄신안이 선언적이고 그 실천 의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쇄신 추진에 대한 기한 명시도 없고 그 주체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자기 반성이 없는 쇄신안은 미봉책이고 기만이다. 이번에도 적당히 넘어간다면 유사한 행위가 터질 때마다 대중들은 불교에 등을 돌릴 것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이를 근거로 훼불행위를 서슴지 않을 것이다.

재가자들 역시 진정으로 승가를 위한, 한국불교를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무조건적인 숭상은 답이 되지 않는다.

社說

WFB 중국대표 우의정신 잊었나

조계종이 6월 14일 세계 불교도들의 행사인 '세계 불교도 우의회(WFB)' 한국대회에서 중국 대표단이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 불교 대표단은 전남 여수서 6월 12~15일 일정으로 열린 '세계 불교도 우의회' 대회에서 티베트 대표단 참가를 비난하며 대회 첫날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오후 개막 행사에는 WFB다람살라 지부 페마 친쵸르 문화복지 이사(중앙티베트 행정부 장관)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급기야 13일엔 중국 불교 대표단 17명이 모두 철수해 중국으로 귀국했다. 일반 행사도 아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 사상을 나누는 행사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동안 외교관계를 고려해 침묵으로 그들의 행보만 지켜봤던 조계종과 국내 불교 단체들도 중국 대표단의 철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14일 발표문을 내고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도 없이 자국의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워 세계불교도 우의회의 정식 지부로 등록된 티베트 대표단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대표단의 행위를 개탄한다며 중국 불교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여기에 앞으로 조계종은 중국 불교와 관계 재설정도 고려하겠다는 초강수의 강경한 태도를 천명했다.

'세계 불교도 우의회' 대회는 1950년 세계 불교인의 연대와 형제애를 모토로 걸고 스리랑카에서 시작돼 2년마다 열리는 행사다. 해마다 40여개국서 불교 지도자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명실공히 세계 불교계의 큰 행사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를 조장한 중국 불교계는 각성하고 참회해야 한다. 이는 분명 부처님 가르침을 역행하는 일이다. 과거 한때 중화민족이라고 까지 자처했던 대륙적 기질의 포용심은 어디로 간 것일까. 소인배 같은 모습을 보인 중국 불교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 불법사찰 진상규명 나서라

1972년 6월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획책하기 위해 공작원이 워터게이트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의 선거 방해, 정치 헌금의 부정, 수뢰, 탈세 등이 드러났고, 결국 닉슨은 사임하게 된다.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이 전방위로 행한 불법사찰이 민간인들도 모자라 불교계에도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死即生'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검찰 수사도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불교계는 현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조계사는 호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와 〈주간한국〉에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청와대와 검찰에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검찰은 사찰 문건 500건 중 497건이 범죄행위가 성립이 안된다고 발표했다. 법에 저촉되는 수준의 사찰은 아니었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한 개인의 그것도 종교인의 성향을 사찰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고 표출할 수도 있다. 이를 국가 권력이 나서서 조사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정부가 솔직해져야 한다. 임기 말, 진정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을, 종교를 '잠정적 범죄집단'으로 봤던 지난날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O 제조업체등록, 품목허가등록 |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상상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적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몸이 따뜻해지기만 해도 10년전 정력으로‥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 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 참옻발효진액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토종참옻

우리 몸에 이로운 획기적인 식품이자 의약품 원료인 토종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데는 최고이다. 내용인 즉 우리 몸의 정상체온이 36.5℃이나 에어컨 및 냉방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 차가운 맥주, 냉음료 등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저체온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체온이 1℃ 상승하면 면역력이 5~6배 상승하며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기 최적의 조건이 35.5℃라 한다.

우리몸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암에 걸리지 않는 심장은 39℃이다.

특히 ○○그라 같은 정력제는 뇌에서 성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서 흥분하면 해면체에 혈액을 24배까지 증가시키는 원리인데 천연식물인 옻이 혈액을 8~12배까지 증가시킨다. 남자가 몸이 차가우면 정력이 약해지고, 여성일 경우에는 냉, 대하 생리통이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남자가 참옻을 먹고 몸을 따뜻해지기만 해도 10년전 정력을 되찾으며, 여성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임신하기 좋은 체질이 되며 생리량도 늘어나고 그날을 쉽게 보내게 된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5월 경인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60통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밀가루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그이튿날 아침에 숙변이 엄청나게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서서히 아프던 횟수가 줄어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통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꾸던 수면제도 먹지 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아래는 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체도 확 줄어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통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여러분 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 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게에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7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금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게에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잘이 돌고 시지가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하지 정액이 있어 굶은 정액이 튀어 나왔고 심핏줄이 수십개 엉겨 덩어있었는데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습니다.

1991年 동아일보 발췌



참옻, 넘치는 정력으로 비첩을 134명이나 거느려…
무월경이나 복강내 종양성질환에 특효



수양제(隨煬帝)는 비첩을 1백 24명이나 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태미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방을 공모했다. 이 때 공모한 것중에서 엄선한 처방의 하나로 益多散이란 게 있다. 지금까지도 絕倫의 명약으로 꼽히는 이 처방에는 다음과 같은 숨은 얘기가 있다.

齊迂는 나이 80에 정력이 쇄해져서 한 비방을 얻어 약을 조제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한데 그집 머슴 益多는 75세로 허리가 굽고 백발에 다리는 힘이 없어 겨우 어린애 걷듯 하는 자였는데 화부의 아내는 이를 불쌍히 여겨 이 약을 익다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복용 20일만에 30대 남자처럼 되더니 이 집 하녀 番息과 謹善을 처로 삼아 아들과 딸 넷을 낳았다. 화부의 아내도 익다와 관계하여 두 자식을 낳았는데 아내는 익다에게 질투가 치밀어 그만 익다를 죽여 버렸다. 그리고는 그의 정강이뼈를 꺾어 버렸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속에 누런 骨髓가 가득차 있는게 아닌가! 이 처방이 바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益多散에는 乾漆이 배합되어 있다. 건칠은 옻나무 줄기껍질을 칼로 상처내어 흘러나오는 진을 모아 말린 것이다. 처음에는 회색이지만 물기를 없애면 검붉은 색을 띠는데 이 덩어리에는 벌집 모양의 작은 구멍이 있고 윤이 나며 쉽게 부서진다. 生漆은 독이 있으므로 밀폐된 가마안에서 가열하여 탄화시켜 약용한다. 그래야 독성도 줄고 위장 손상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항간에 회자하고 있는 옻닭은 어떠한가. 옻닭이 냉증, 월경불순, 酒毒해소 및 강정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일까. 임상경험에 의하면 사실이다. 그러나 益多散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월경이나 복강내 종양성질환에 특효하다.

그럼 옻닭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건칠과 닭을 함께 삶거나 혹은 닭내장을 제거한 배속에 새끼 손가락 길이만하게 자른 옻나무 껍질을 1백g정도 넣고 푹 고아서 탕으로 만든다. 그러나 옻에 있는 우루시올이라는 화학물질에 예민한 경우, 전신에 심한 알레르기 피부염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알레르기 체질자는 금하는게 좋으며, 生漆을 피하고, 옻닭 湯속에 쌀을 넣고 죽을 쒀서 계란흰자를 풀어 먹으면 옻을 탈 염려가 적어진다.



무더위로 지친 여름이면
즐겨 찾는 전통보양식품 **옻닭**

옻가네 참옻진액은 국내 연구진이 3년동안 연구 개발하여 식약청에서 안전성검사를 통해 인정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옻오름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닭 요리입니다.

든든한 보양식 옻닭, 안심하고 드세요!

재 료
토종닭 한 마리 또는 오리, 발효참옻진액, 소금, 부추, 찹쌀

만드는 방법
1. 토종닭(또는 오리) 한 마리에 참옻진액 300ml~500ml에 물을 500ml~1000ml 붓고 천일염을 1/2TS 넣고 압력솥에 17~20분간 끓인다.
2. 고기가 다 익으면 전골냄비에 옮겨서 부추를 넣고 약한불에서 끓으면서 드시면 좋다.
3. 남은 국물에 불린 찹쌀을 넣어서 끓이면 옻죽이 된다.

닭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사라지고 고기가 쫄깃쫄깃하며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고급형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만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차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